

第39回 韓日經濟人會議

THE 39TH KOREA-JAPAN
BUSINESS CONFERENCE

2007. 4. 12 ~ 13 BUSAN, KOREA

報告書



社團
法人 韓日經濟協會

第39回 韓日經濟人會議

THE 39TH KOREA-JAPAN
BUSINESS CONFERENCE

2007. 4. 12 ~ 13 BUSAN, KOREA

報 告 書



社團 韓日經濟協會
法人

◎ 제39회 한일경제인회의 화보 ◎



일본측 단장단의 한덕수 총리 예방



양국 단장 부산김해공항 영접모습

개회식 전 VIP 환담



개회식장으로 향하는 주요인사

양국 단장의 개회식 진행모습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김상하 명예회장과 하타케야마 노보루 회장

진행하는 허남정 전무

◎ 제39회 한일경제인회의 화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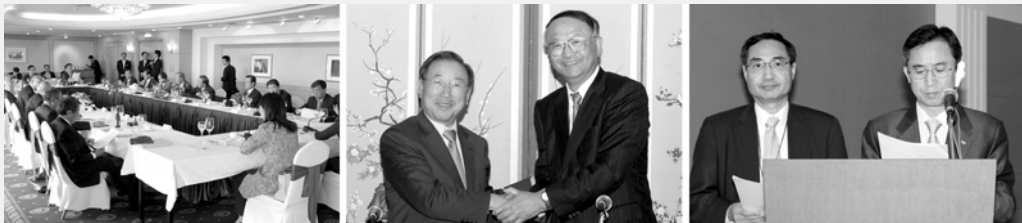
왼쪽부터 축사자 이희범 고문, 오시마 대사 / 경과보고자 허남정 전무, 유창무 চে어맨, 아소 চে어맨



한일 공동주최 리셉션 (축사하는 허남식 부산시장, 건배제의하는 라응찬 부단장, 축하공연 모습)



이틀째 회의 전경과 2세션을 진행하고 있는 설원봉 부단장, 사메시마 부단장



공동성명(안)을 심의하는 양국 단장단

매스컴 포토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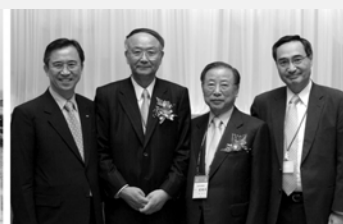
공동성명 채택



양국 단장 기자회견 모습



APEC누리마루를 방문한 양국부인들



한일·일한경제협회 회장&전무

- 目 次 -

I. 團長團 禮訪活動	3
II. 共同聲明	5
III. 日 程	10
IV. 議 題	14
V. 兩側 代表團 名單	15
1. 韓國側 代表團 名單	15
2. 日本側 代表團 名單	27
VI. 議 事 錄	37
1. 開 會 式	37
(1) 團長人事	
趙 錫 來 團長	38
飯島 英胤(IIJIMA Hidetane) 團長	39
(2) 來賓人事	
李 熙 範 韓國貿易協會 會長	40
大島 正太郎(OSHIMA Shotaro) 在大韓民國日本國特命全權大.....	41
2. 基調演說	44
(1) 韓國側 基調演說	
金相廈 韓日經濟協會 名譽會長	45
(2) 日本側 基調演說	
畠山 襄(HATAKEYAMA Noboru) (財)國際經濟交流財團 會長.....	49
3. 經過報告	55
(1) 一般經過報告	55
許南整 韓日經濟協會 專務理事	55
(2) 韓日產業貿易會議 報告 및 提案	
柳昌茂 韓國側Chairman (韓國貿易協會 常勤副會長).....	57
麻生 泰(ASO Yutaka) 日本側Chairman (麻生LAFARGE CEMENT(株) 社長)	58

4. SESSION I	61
(1) 座長 人事	
楊秀吉 國家經營戰略研究院 院長	62
(2) 韓國側 主題發表	
① 李鍾燾 學校法人 德成女子大學校 理事長	65
② 孫讚鉉 江原大學校 經濟貿易學部 教授	68
③ 金京源 三星經濟研究所 專務Global經濟室長	71
(3) 日本側 主題發表	
① 浦田 秀次郎(URATA Shujiro) 早稻田大學 教授	77
② 平塚 大祐(HIRATSUKA Daisuke) JETRO ASIA經濟研究所 開發研究Center長	81
③ 門脇 英晴(KADOWAKI Hideharu) 日本總合研究所 理事長	84
(4) 討論 및 質疑應答	89
(5) 座長 總括	99
5. SESSION II	100
(1) 兩側 共同議長 人事	
薛元鳳 韓日經濟協會 副會長	100
鮫島 章男(SAMESHIMA Fumio) 日韓經濟協會 副會長	101
(2) 韓國側 主題發表	
① 玄旻錫 韓國貿易協會 國際貿易研究院 院長	101
② 朴宇東 (株)豐山 專務	106
(3) 質疑應答	109
(4) 日本側 主題發表	
大鶴 英嗣(OTSURU Hidetsugu) 松下電器產業(株) 取締役長	112
(5) 質疑應答 / 共同議長 總括	120
6. 閉會式	124
(1) 共同聲明 採擇	124
(2) 團長人事	
飯島 英胤(IIJIMA Hidetane) 團長	125
趙 錫 來 團長	126
(3) 閉會	127
<附錄 1> 프레젠테이션 資料	129
<附錄 2> 報道資料·新聞記事	165

I. 團長團 禮訪活動

관례에 의거 訪問國側 단장단 일행은 政府 首腦의 예방을 실시하고 있음. 이에 금번 일본측 단장단은 한덕수(韓惠洙) 국무총리 이하 한국정부의 주요인사를 예방하였음. 이 자리에서 한국정부는 앞으로도 한일경제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두 나라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며, 한일경제인회의가 양국 간 경제교류와 한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한일 FTA 체결에 있어서 농업, 수산 등 전통적인 분야에 있어서 과제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과 국제화를 통해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언급과 함께 한일 FTA는 높은 수준이 되어야 하며, 보다 넓은 시야에서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하였음.

또한 작년 한일 간 무역역조는 254억불로 한일 FTA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농업분야에서의 밸런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한국의 경우 부품 소재 분야의 발전이 아직도 부족하며 최강 일본의 한국으로의 투자 기술 협력을 기대한다고 피력하였음. 한편 역사 인식 문제는 서로 공유해야 하고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으나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한일 간 왕래에는 비자가 필요 없는 등 한일관계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대부분 한일 간 선린우호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므로 양국 관계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 양국 재계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음.

한편, 일본측 단장단은 한일경제인회의에서 무역, 투자를 비롯하여 공통과제인 저출산 고령화, 에너지 절약, 환경문제 등 한일 관계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며, 한일 투자협정 체결, 비자면제로 인한 인적교류 확대 등 산업계, 경제계를 중심으로 정부차원의 개방정책이 도입되고 있음을 설명함. 금번 한미 FTA 타결은 일본 재계에서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한미 FTA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조속한 한일 FTA 체결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음.

1. 禮訪 實績

가. 권오규(權五奎)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예방

- 일 시 : 2007. 4. 11(수) 14:20~14:50
- 장 소 : 정부과천청사 재경부
- 예방인사 : 이이지마 히데타네(飯島 英胤) 단장 등 일본측 단장단 8명

나. 김영주(金榮柱) 산업자원부 장관 예방

- 일 시 : 2007. 4. 11(수) 15:20~15:40
- 장 소 : 정부과천청사 산자부

- 다.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장관 예방
 - 일 시 : 2007. 4. 11(수) 16:30~17:00
 -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외교부

- 라. 한덕수(韓惠洙) 국무총리 예방
 - 일 시 : 2007. 4. 12(목) 10:00~10:30
 - 장 소 : 정부중앙청사

2. 禮訪人事 名單

예방자

NO	區 分	姓 名	會 社 名 / 職 位
1	日本側 團 長	飯島 英胤 (IIJIMA Hidetane)	東レ[도레이] 株式會社 特別顧問 (社)日韓經濟協會 會長
2	名譽會長	瀬戸 雄三 (SETO Yuzo)	아사히비루[맥주] 株式會社 相談役 (社)日韓經濟協會 名譽會長
3	副團長	荒木 浩 (ARAKI Hiroshi)	東京電力 株式會社 顧問 (社)日韓經濟協會 副會長
4	副團長	鮫島 章男 (SAMESHIMA Fumio)	太平洋시멘트 株式會社 社長 (社)日韓經濟協會 副會長
5	副團長	石原 進 (ISHIHARA Susumu)	九州[큐슈]旅客鐵道 株式會社 社長 (社)日韓經濟協會 副會長
6	副團長	池田 弘一 (IKEDA Koichi)	아사히비루[맥주] 株式會社 會長 (社)日韓經濟協會 副會長
7	理 事	相原 元八郎 (AIHARA Gempachiro)	三井[미즈이]物産 株式會社 副社長 (社)日韓經濟協會 理事
8	團 員	武澤 泰 (TAKEZAWA Tai)	(社)日韓經濟協會 專務理事

주) 이케다 코이치(池田 弘一) 회장은 국무총리 예방시만 참가

안내 및 배석자

NO	區 分	姓 名	會 社 名 / 職 位
1	韓國側 團 長	趙 錫 來 (CHO Suck Rai)	(株) 曉星 會長 (社)韓日經濟協會 會長
2	特別參加	李 吉 鉉 (LEE Gil Hyun)	(株) 昴元 會長 (社)韓日經濟協會 監事
3	團 員	許 南 整 (HUH Nam Jung)	(社)韓日經濟協會 專務理事
4	大使館	大島 正太郎 (OSHIMA Shotaro)	駐大韓民國日本國特命全權大使
5	大使館	吾郷 進平 (AGO Shimpei)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 參事官
6	通 譯	金 惠 媛 (KIM Hae Won)	通譯士

주) 조석래 회장은 4/12, 이길현 회장은 4/11 정부부처 예방 시 배석

II. 共 同 聲 明

第39回 韓日經濟人會議가 2007年 4月 12日 및 13日 이틀 동안 大韓民國 釜山廣域市에서, 韓國側에서는 趙錫來 團長 等 197名(釜山廣域市 企業人 35名을 包含), 日本側에서는 이이지마 히데타네(飯島 英胤) 團長 等 115名이 參席한 가운데 開催되었다.

1. 一般經過報告 및 第8回 韓日産業貿易會議 (2006年 11月, 韓國 서울)에 대한 報告와 新産業貿易會議에 대한 提案은 異議 없이 承認되었다.
2. 開會式에서는 '東아시아 情勢變化와 韓日協力'을 主題로 兩國의 基調演說이 있었으며, 제1세션에서는 '東아시아의 浮上和 韓日協力 強化', 제2세션에서는 '韓日 兩國의 協力課題와 對應方案'이라는 主題 下에서 多様な 主題 發表와 열띤 討論이 이루어졌다.
3. 이러한 基調演說과 제1세션 및 제2세션의 論議를 통해 兩國 經濟人들은 다음 事項에 대해 意見을 같이 하였다.
 - (1) 兩國 經濟人들은 韓日을 둘러싼 國際環境이 急激하게 變化하는 가운데 글로벌한 觀點에서 未來指向적으로 協力해 나가기로 合意하였다.

韓日 兩國의 經濟는 堅調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中國의 高度成長 等으로 인해 世界經濟에서 東北아시아의 비중이 擴大되고 있다는 점에 認識을 같이하였다.

日本經濟는 消費·輸出 및 民間設備投資를 中心으로 繼續해서 堅調한 움직임을 보이며 年間 약 2%의 實質經濟成長率을 維持하는 等, 長期間에 걸쳐 景氣擴張局面이 持續되고 있다. 韓國經濟도 輸出好調에 힘입어 5% 内外의 堅實한 成長을 持續하고 있으며, 海外投資 增大 등 글로벌화를 積極 推進하고 있다. 이와 같은 經濟狀況을 背景으로 韓日 兩國間에 있어서 經濟의 상호 協力關係는 더욱 強化되어 가고 있다.

- (2) 이번 韓美 FTA 협상 妥結은 韓日 FTA와 韓日中 FTA, 나아가서는 東아시아 FTA 締結 論議를 촉발할 것이라는 점에 認識을 함께 하며, 兩國 經濟人들은 現在 中斷되어 있는 韓日 FTA 협상의 早速한 再開와 締結이 必要하다는 점에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 (3) 韓日中 3國間의 貿易 및 投資는 계속 확대되고 있고 韓日中 投資協定에 대한 檢討가 進行되고 있어 그에 따라 東아시아 FTA構想에 관한 論議도 活潑해지고 있으므로 그 共同體 形成을 위한 基盤造成 및 研究에도 積極적으로 參加해 상호 協力하기로 合意하였다.

(4) 韓日 兩國은 貿易과 投資面에서 重要한 파트너로서 緊密한 協調를 지속하고 있으나 貿易과 投資面에서의 더 한층의 擴大를 위해 課題를 解消해 나가기 위해서도 兩國經濟人이 더욱 努力할 必要가 있다는 점에 意見을 같이하였다.

貿易規模가 史上 最大值를 更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韓國의 大規模 對日貿易赤字가 있는 問題나, 兩國間의 雙방향 投資가 더욱 활발해 지도록 계속 投資環境 改善과 貿易障壁 除去를 위한 努力이 必要하다는 점에 認識을 같이 하였다.

(5) 韓日 兩國은 環境問題, 低出產·高齡化問題, 兩極化(隔差)問題 等 共通 課題를 안고 있다는 데 認識을 같이하였다. 向後 이들 課題를 解決하기 위해 經濟人들의 知識과 經驗을 共有하면서 서로 協調하기로 約束하였다. 특히 向後 地球環境問題에 대해서 韓日間에 協力하여 對應하기로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6) 兩國 經濟人은 朝鮮通信使 派遣 再開 400周年에 해당하는 올해, 兩國의 友好關係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韓日 兩國 企業間의 交流 擴大는 물론 스포츠, 觀光, 文化面의 人的交流를 더욱 擴大하기 위해 함께 努力하기로 合意하였다.

4. 兩國 經濟人들은 別添 事項을 兩國 協會 次元에서 推進하기로 合意하였다.

5. 次期 會議는 來年 日本에서 開催한다.

2007年 4月 13日

韓國側 代表團 團長 趙 錫 來
日本側 代表團 團長 飯島 英胤

[別 添]

合 意 事 項

- (1) 包括的이며 水準 높은 韓日FTA 締結의 重要性和 必要性을 再確認하고 韓日FTA의 早速한 체결을 促求하는 件
- (2) 兩國間 貿易不均衡의 是正 및 쌍방향의 投資 活性化에 協力하는 件
- (3) 『韓日新産業貿易會議』 開催에 協力하는 件
- (4) 『靑少年交流事業』으로서 韓日高校生交流에 關係 相互 協力하는 件
- (5) 兩國 中小企業의 『相互補完事業』에 關係 協力하는 件
- (6) 『韓日비즈니스交流商談會』 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7) 兩國 『産業技術協力財團』 事業에 協力하는 件
- (8) 其他 韓日·日韓 兩協會의 合意 下에 推進되는 事業에 協力하는 件

2007년 4월 26일

노무현 대통령님

현재 한일양국은 무역과 투자, 인적교류의 확대를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설립 이래 꾸준히 한일양국의 경제협력과 우호증진을 통한 공동번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양 협회가 금년 4월 12일, 13일 양일에 걸쳐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한 제39회 한일경제인회의에는 300여명의 양국 경제인이 참가하여 양국간의 향후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일FTA와 동아시아경제공동체로 이어 나갈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의 경제인들은 지금의 굳건한 동반자관계를 지속시키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한일FTA협상이 조속히 재개되어 포괄적이며 수준 높은 FTA를 하루라도 빨리 타결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한일 양국이 FTA를 맺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양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더욱이 향후 동아시아경제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서 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한 WTO 등의 다자간 협상에 있어, 동아시아의 입장이 뚜렷이 반영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탁월하신 지도력으로 한일FTA가 조속히 체결되도록 영단을 내려주시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대통령님의 건승을衷心으로 기원합니다.

(사)한일경제협회 회장

조석래

趙錫來

(사)일한경제협회 회장

이이지마 히데타네(飯島 英胤)

飯島英胤

2007年4月26日

内閣総理大臣
安倍 晋三 閣下

現在日韓両国は貿易や投資、人的交流の拡大により緊密な協力関係を拡大・発展させております。

日韓経済協会と韓日経済協会は設立以来継続して日韓両国の経済協力と友好増進を通じた共同繁栄を推進して参りました。両協会が今年4月12日、13日の両日に亘り韓国・釜山広域市で開催致しました第39回日韓経済人会議には300名余りの両国経済人が参加し、両国間の今後の経済協力の重要性を再確認し、日韓FTAや東アジア経済共同体に繋がる具体的な協力方策などを論議いたしました。

今回の会議で両国の経済人は現在の確固たるイコールパートナーシップとしての関係を持続させ、未来志向的な日韓関係を更に発展させて行くためには、現在進展を見せていない日韓FTA交渉が早急に再開され、包括的で水準の高いFTAを一日も早く妥結させる必要があるという点で意見の一致をみました。

日韓両国がFTAを結び、一つの経済圏を形成することによって両国経済を活性化し、更に今後、東アジア経済共同体を構築する上において両国が主導的な役割を果たすことができます。且つ、WTOなどにおける多国間の交渉において東アジアの立場が的確に反映される基盤が作られるものと信じており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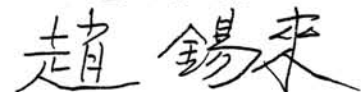
安倍首相閣下の卓越したご指導により、日韓FTAが早期に妥結できますようご英断を賜りたく、要望申し上げます。

安倍首相閣下のご健勝を心よりご祈念申し上げます。

(社)日韓経済協会 会長
飯島 英胤



(社)韓日経済協会 会長
趙 錫来



Ⅲ. 日 程



開催場所：釜山LOTTE HOTEL

《日本側 團長團 禮訪》

4月 11日 (水)

09:20～11:40 羽田空港 → 金浦空港 (JL 8831)
午後 主要機關 禮訪 (財經部・外交部・産資部)
19:00～20:30 駐韓日本大使主催 晚餐 (韓日兩側 團長團)

4月 12日 (木)

12:20～13:20 金浦空港 → 釜山(金海)空港 (KE 1117)
13:30～14:00 釜山(金海)空港 → HOTEL (BUS)
14:00 HOTEL CHECK IN (釜山 LOTTE HOTEL)

《日本側 團員》

4月 12日 (木)

09:30～11:05 關西空港 → 釜山(金海)空港 (JL 967) or
11:00～13:15 成田空港 → 釜山(金海)空港 (JL 957)
14:00～14:50 釜山(金海)空港 → HOTEL (BUS)
14:00 HOTEL CHECK IN (釜山 LOTTE HOTEL)

《韓國側 團員》

4月 12日 (木)

11:30～12:30 金浦空港 → 釜山(金海)空港 (OZ 8809) or
11:40～12:40 金浦空港 → 釜山(金海)空港 (KE 1115)
13:00～14:00 釜山(金海)空港 → HOTEL (BUS)
14:00 HOTEL CHECK IN (釜山 LOTTE HOTEL)

《 共 通 》

※ 韓日兩側 事務局 & VIP待機室：3F Pearl Room
夫人待機室：3F Dome / 記者室：3F Press Center

15:00~15:30 登錄・接受

15:30~16:10 開會式 ----- 3F Crystal Ballroom II・III

15:30~15:40 開會

15:40~16:00 兩側 團長人事

韓國側：趙錫來 團長 (韓日經濟協會・全經聯 會長)

日本側：飯島 英胤(IIJIMA Hidetane) 團長 (日韓經濟協會 會長)

16:00~16:10 兩側 來賓人事

韓國側：李熙範 韓國貿易協會 會長(前 產業資源部 長官)

日本側：大島 正太郎(OSHIMA Shotaro) 在大韓民國日本國特命全權大使

16:10~16:30 COFFEE BREAK

16:30~17:30 基調演說

韓國側：金相廈 韓日經濟協會 名譽會長

((株)三養社 會長, 前 大韓商工會議所 會長

『東北亞 環境變化와 韓日協力』

日本側：畠山 襄(HATAKEYAMA Noboru) (財)國際經濟交流財團 會長

『韓日 經濟關係의 強化를 위해』

17:30~18:00 經過報告

17:30~17:40 一般經過 報告

許南整 韓日經濟協會 專務理事

武澤 泰(TAKEZAWA Tai) 日韓經濟協會 專務理事

17:40~18:00 韓日產業貿易會議 報告 및 提案

柳昌茂 韓國側Chairman (韓國貿易協會 常勤副會長)

麻生 泰(ASO Yutaka) 日本側Chairman (麻生LAFARGE CEMENT(株) 社長)

18:20~20:00 共同主催RECEPTION ----- 3F Crystal Ballroom I・II

4月 13日 (金)

06:30~08:30 朝食(個別) ----- 1F Peninsula(06:30~) & LLF Momoyama(07:00~)

07:30~08:50 韓日兩國財團 連絡協議會 ----- 42F Berkeley Suite

09:00~11:50 **SESSION I** ----- 3F Crystal Ballroom II・III
[議題：東아시아의 浮上과 韓日協力 強化]
座長：楊秀吉 國家經營戰略研究院 院長

09:00~09:10

座長 人事

09:10~10:00

韓國側 主題發表

- ① 李鍾燾 學校法人 德成女子大學校 理事長
『東아시아共同體 實現을 위한 韓日協力』
- ② 孫讚鉉 江原大學校 經濟貿易學部 教授
『韓日FTA 推進展望과 課題』
- ③ 金京源 三星經濟研究所 專務Global經濟室長
『中國의 産業政策 및 外國人投資政策의 變化』

10:00~10:50

日本側 主題發表

- ① 浦田 秀次郎(URATA Shujiro) 早稻田大學 教授
『韓日FTA와 東아시아共同體 形成』
- ② 平塚 大祐(HIRATSUKA Daisuke) JETRO ASIA經濟研究所
開發研究Center長
『東아시아 經濟統合의 로드맵』
- ③ 門脇 英晴(KADOWAKI Hideharu) 日本綜合研究所 理事長
『韓日FTA와 東아시아共同體 形成』

10:50~11:10

COFFEE BREAK

11:10~11:50

討論 및 質疑應答 / 座長 總括

12:00~13:20

午餐會

- 顧問・團長團・專門委員長・座長 (共同聲明案 審議)

----- 42F Charlotte Suite

- 團 員 ----- 3F Crystal Ballroom I

13:30~15:40

SESSION II ----- 3F Crystal Ballroom II・III
[議題：韓日兩國의 協力課題와 對應方案]

共同議長 韓國側：薛元鳳 大韓製糖株) 會長 (韓日經濟協會 副會長

日本側：鮫島 章男(SAMESHIMA Fumio) 太平洋시멘트(株) 社長

(日韓經濟協會 副會長)

13:30~13:40 兩側 共同議長 人事
 13:40~14:20 韓國側 主題發表 [韓日間の 經濟交流 擴大]
 ① 玄杵錫 韓國貿易協會 國際貿易研究院 院長
 『韓日兩國間 貿易擴大의 展望과 課題』
 ② 柳 津 (株)豊山 會長 (韓日經濟協會 副會長)
 『韓日兩國間 投資增進을 위한 環境 造成』
 14:20~14:50 質疑應答
 14:50~15:20 日本側 主題發表 [企業에 있어서 環境經營의 促進]
 大鶴 英嗣(OTSURU Hidetsugu) 松下電器産業(株) 取締役
 『松下電器가 挑戰하는 環境經營』
 15:20~15:40 質疑應答 / 共同議長 總括

15:40~16:00 COFFEE BREAK (共同聲明(案) 配布)

16:00~16:20 閉會式 ----- 3F Crystal Ballroom II・III

16:00~16:10 共同聲明 採擇 (主催國側 朗讀)
 16:10~16:20 兩側團長 閉會人事
 16:20 閉會

16:30~17:00 共同記者會見 (兩國團長) ----- 42F Charlotte Suite

17:00~17:50 HOTEL → 釜山(金海)空港 (BUS) ※ Option行事 不參者
 18:20~19:15 釜山(金海)空港 → 金浦空港 (OZ 8816) or
 18:40~19:35 釜山(金海)空港 → 金浦空港 (KE 1136)

4月 14日 (土) <Option Program>

07:20~08:00 HOTEL → Benest G.C. (BUS)
 08:30~15:20 親善活動 (午餐包含)
 15:20~16:00 Benest G.C. → 釜山(金海)空港 (BUS)
 16:40~17:35 釜山(金海)空港 → 金浦空港 (KE 1130)
 17:20~18:15 釜山(金海)空港 → 金浦空港 (KE 1132)
 20:10~22:15 金浦空港 → 羽田空港 (JL 8834)

08:00~08:50 HOTEL → 釜山(金海)空港 (BUS) ※ Option行事 不參者
 10:40~12:40 釜山(金海)空港 → 成田空港 (JL 5230)
 11:00~12:20 釜山(金海)空港 → 關西空港 (JL 5232)

IV. 議 題

1. 基調演說

- 韓國側：『東北亞 環境變化와 韓日協力 方向』
金 相 廈 韓日經濟協會 名譽會長((株)三養社 會長, 前 大韓商議 會長)
- 日本側：『韓日 經濟關係의 強化를 위해』
畠山 襄(HATAKEYAMA Noboru) (財)國際經濟交流財團 會長

2. SESSION I

[議題：東아시아의 浮上과 韓日協力 強化]

- 韓國側：『東아시아共同體 實現을 위한 韓日協力』
李 鍾 燾 學校法人 德成女子大學校 理事長
- 『韓日FTA 推進展望과 課題』
孫 讚 鉉 江原大學校 經濟貿易學部 教授
- 『中國의 産業政策 및 外國人投資政策의 變化』
金 京 源 三星經濟研究所 專務Global經濟室長
- 日本側：『韓日FTA와 東아시아共同體 形成』
浦田 秀次郎(URATA Shujiro) 早稻田大學 教授
- 『東아시아 經濟統合의 로드맵』
平塚 大祐(HIRATSUKA Daisuke) JETRO ASIA經濟研究所 開發研究Center長
- 『韓日FTA와 東아시아共同體 形成』
門脇 英晴(KADOWAKI Hideharu) 日本總合研究所 理事長

3. SESSION II

[議題：韓日兩國의 協力課題와 對應方案]

- 韓國側 [韓日間의 經濟交流 擴大]：
- 『韓日兩國間 貿易擴大의 展望과 課題』
玄 昨 錫 韓國貿易協會 國際貿易研究院 院長
- 『韓日兩國間 投資增進을 위한 環境 造成』
柳 津 (株)豊山 會長 (韓日經濟協會 副會長)
- 日本側 [企業에 있어서 環境經營의 促進]：
- 『松下電器가 挑戰하는 環境經營』
大鶴 英嗣(OTSURU Hidetsugu) 松下電器産業(株) 取締役

V. 兩側 代表團 名單

1. 韓國側 代表團 名單

順：職責·가나다 順

區 分	姓 名	團體·會社名 / 職位
團 長	趙 錫 來 CHO Suck Rai	(社)韓日經濟協會 會長 全國經濟人聯合會 會長(株)曉星 會長
名譽會長 (基調演說者)	金 相 廈 KIM Sang Ha	(社)韓日經濟協會 名譽會長 (株)三養社 會長
顧 問	李 熙 範 LEE Hee Beom	(社)韓日經濟協會 顧問 (社)韓國貿易協會 會長
副 團 長	具 本 俊 KOO Bon Joon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株)LG商事 副會長
副 團 長	金 熙 勇 KIM Hi Yong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東洋物產企業(株) 會長
副 團 長	羅 應 燦 RA Eung Chan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新韓金融持株會社 會長
副 團 長 (Session II 發表者)	柳 津 RYU Jin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株)豐山 會長
副 團 長	朴 世 英 PARK Sei Young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韓國PENTLAND(株) 會長
副 團 長	徐 敏 錫 SUH Min Sok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東一紡織(株) 會長
副 團 長 (Session II 共同議長)	薛 元 鳳 SULL Won Bong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大韓製糖(株) 會長
副 團 長	禹 石 亨 WOO Suk Hyung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株)SINDORICOH 會長
來 賓	許 南 植 HUR Nam Sik	釜山廣域市 市長
特別參加	姜 信 浩 KANG Shin Ho	東亞製藥(株) 會長
特別參加	朴 承 復 PARK Seung Bok	SEMPIO食品(株) 會長
特別參加	李 吉 鉉 LEE Gil Hyun	(社)韓日經濟協會 監事 (株)昴元 會長

區 分	姓 名	團 體·會 社 名 / 職 位
特別參加 (Session I 座長)	楊 秀 吉 YOUNG Soo Gil	國家經營戰略研究院 院長
特別參加	尹 鳳 秀 YOON Bong Soo	韓國中堅企業聯合會 會長 (株)南盛 代表理事 會長
特別參加	李 權 相 LEE Kweon Sang	釜山廣域市 行政副市長
特別參加	申 正 澤 SHIN Jung Taek	釜山商工會議所 會長
特別參加 (Session I 發表者)	李 鍾 燾 LEE Chong Hoon	學校法人 德成女子大學校 理事長
特別參加 (專門委員長)	柳 昌 茂 RYU Chang Moo	(社)韓國貿易協會 副會長
特別參加 (Session I 發表者)	金 京 源 KIM Kyeong Won	三星經濟研究所 專務Globo經濟室長
特別參加 (Session I 發表者)	孫 讚 鉉 SOHN Chan Hyun	江原大學校 經濟貿易學部 教授
特別參加 (Session II 發表者)	玄 昨 錫 HYUN Oh Seok	(社)韓國貿易協會 國際貿易研究院 院長
團 員	姜 大 均 KAHNG Dae Kyoon	DemcoProbe(株) 代表理事 會長
團 員	金 德 吉 KIM Duk Kil	大永產業開發(株) 會長 AIS(株) CEO
團 員	盧 喜 燦 RO Hee Chan	三一紡織(株) 代表理事 會長 大邱商工會議所 名譽會長
團 員	朴 鍾 益 PARK Jong Ik	(株)三益 會長 釜山經營者總協會 會長
團 員	裴 基 一 BAE Ki Il	(株)世和 代表理事 會長
團 員	宋 明 哲 SONG Myung Chul	(株)南昃R&D 會長
團 員	辛 東 烈 SHIN Dong Yeol	成門電子(株) 會長
團 員	辛 源 吉 SHIN Won Kil	世潛商工(株) 代表理事 會長
團 員	梁 龍 雄 YANG Yong Woong	(社)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 會長
團 員	吳 聖 銖 OH Sung Soo	KORSTEC·R(株) 會長

區	分	姓	名	團體·會社名 / 職位	
團	員	李 LEE	汪 Wang	烈 Yul	Guinnesslee Group 會長 (株)國際戰略經營研究院
團	員	金 KIM	英 Young	三 Sam	(財)釜山發展研究院 院長
團	員	金 KIM	定 Jung	植 Shick	堤川SEOUL病院 院長
團	員	盧 RO	成 Sung	泰 Tae	韓國經濟研究院 院長
團	員	奇 KEE	秉 Byung	泰 Tae	韓國JMAC(株) 經營顧問
團	員	金 KIM		正 Jung	HANWHA GROUP 常勤顧問
團	員	金 KIM	珍 Chinhyun	鉉	(株)曉星 顧問
團	員	文 Moon	永 Young	秀 Soo	大邱商工會議所 常勤副會長
團	員	申 SHIN	德 Duck	鉉 Hyun	(社)韓國優良製品振興協會 常勤副會長
團	員	李 LEE		英 Young	釜山商工會議所 常勤副會長
團	員	李 LEE	榮 Young	祐 Woo	釜山經營者總協會 常任副會長
團	員	李 LEE	卓 Tag	熙 Hee	韓國光學機器協會 常勤副會長
團	員	張 CHANG	濟 Je	國 Kuk	東西大學校 第1副總長(國際協力委員長)
團	員	全 JOHN	賢 Hyun	哲 Chul	韓國中堅企業聯合會 常勤副會長
團	員	崔 CHOI	明 Myung	煥 Hwan	(株)HHI 副會長
團	員	黃 HWANG	昊 Ho	均 Kyoon	The Faceshop Korea Co.,Ltd. 副會長
團	員	姜 KANG	東 Dong	錫 Suck	東進機工 代表
團	員	金 KIM	江 Kang	熙 Hee	(株)東和Entec 代表理事
團	員	金 KIM	東 Dong	星 Seong	(株)韓中日Media 社長

區	分	姓	名	團體·會社名 / 職位	
團	員	金 KIM	明 Myoung	勳 Hun	(株)HIKARI情報 代表理事
團	員	金 KIM	相 Sang	道 Do	(株)POWERNET 代表理事 社長
團	員	金 KIM	善 Sun	泰 Tae	ITEC KOREA 代表理事
團	員	金 KIM	壽 Soo	南 Nam	Hanbit Korea Co.,Ltd. 代表理事
團	員	金 KIM	勝 Seung	雄 Woong	(株)釜山LOTTE HOTEL 代表理事
團	員	金 KIM	源 Won	培 Bae	東亞製藥(株) 代表理事 社長
團	員	金 KIM	乙 Eul	宰 Jae	金洋通信 CEO
團	員	金 KIM	仁 In	中 Chung	韓國產業團地公團 産業立地Center 所長
團	員	南 NAM	廷 Jung	泰 Tae	YOOILRUBBER Co.,Ltd. 代表理事
團	員	朴 PARK	南 Nam	淑 Sook	共生國際特許情報(株) 代表
團	員	朴 PARK	石 Suk	培 Bae	太陽機電(株) 社長
團	員	朴 PARK	龍 Yong	洙 Soo	大慶電裝(株) 代表理事
團	員	朴 PARK	孝 Hyo	燦 Chan	一林NANO TEC(株) 代表理事
團	員	宋 SONG	普 Bo	永 Young	(株)RF Hitec 代表理事
團	員	沈 SIM	述 Sool	鎭 Jin	(株)KODUCT 代表理事
團	員	梁 YANG	泰 Tae	鎭 Jin	(株)HANWHA/貿易 代表理事
團	員	禹 WOO		國 Kuk	(株)海仁旅行 代表理事
團	員	李 LEE	相 Sang	俊 Joon	FINE-TEC 代表
團	員	李 LEE	榮 Young	澤 Taek	World Entertainment 代表

區	分	姓	名	團體·會社名 / 職位	
團	員	張 CHANG	藝 Un	基 Ki	FINE TMS CO.,LTD. 代表理事
團	員	張 CHANG	才 Jae	煥 Hwan	青河物產(株) 代表理事
團	員	鄭 CHUNG	奉 Bong	佑 Woo	(株)Smartro 代表理事
團	員	崔 CHOI	雨 Woo	珏 Kak	(株)大成HI-TECH 代表理事
團	員	黃 HWANG	炳 Byong	玟 Yoon	釜山貿易振興(株) 代表理事
團	員	李 LEE	洙 Soo	喆 Chul	三星物產(株) 副社長
團	員	鄭 CHUNG	東 Dong	學 Hak	STX Engine(株) 副社長
團	員	崔 CHOI	海 Hai	淑 Sook	(株)LITTA產業 監事
團	員	金 KIM	富 Bu	國 Gook	韓國金型工業協同組合 專務理事
團	員	朴 PARK	禹 Woo	建 Keon	韓國生產性本部 專務理事
團	員	朴 PARK	宇 Woo	東 Dong	(株)豐山 專務
團	員	河 HA	東 Dong	萬 Man	全國經濟人聯合會 專務
團	員	許 HUH	南 Nam	整 Jung	(社)韓日經濟協會 專務理事 (財)韓日產業·技術協力財團 專務理事
團	員	金 KIM	文 Moon	基 Kee	韓國Bio產業協會 常務
團	員	魯 RO	在 Jaebong	峯	(株)曉星 常務
團	員	李 LEE	栢 Baeg	儀 Euy	(株)三養社 常務
團	員	李 LEE	勝 Seung	太 Tae	(株)HANWHA/貿易 常務
團	員	林 IM	子 Ja	鉉 Hyun	韓國產業技術振興協會 常務理事
團	員	金 KIM	世 Se	鎬 Ho	大韓商工會議所 國際本部 本部長

區	分	姓	名	團體·會社名 / 職位	
團	員	金 KIM	都 Do	亨 Hyung	啓明大學校 國際學大學 日本學科 教授
團	員	司 SAKONG	空	穆 Mok	產業研究院 副研究委員
團	員	姜 KANG	英 Young	之 Ji	(社)韓國TECHNOMART 理事
團	員	金 KIM	承 Seung	允 Yoon	(株)釜山LOTTE HOTEL 販促理事
團	員	俞 YOO	成 Sung	根 Keun	韓國FINECERAMICS協會 理事
團	員	宋 SONG	成 Sung	基 Gi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日本企業研究Center 理事·局長
團	員	柳 RYU	奉 Bong	雨 Woo	(社)韓日經濟協會 理事事務局長
團	員	李 LEE	智 Jee	容 Yong	(株)世亞製鋼 理事
團	員	金 KIM	飛 Bee	泰 Tai	Busan Convention & Visitors Bureau 事務局長
團	員	姜 KANG	秀 Soo	吉 Kil	韓國機械産業振興會 嶺南支部長
團	員	金 KIM	奎 Kyu	興 Heung	自動車部品研究院 Team長
團	員	沈 SHIM	鉉 Hyun	石 Suk	中小企業振興公團 國際協力事業處 亞洲協力Team長
團	員	禹 WOO	元 Won	善 Seon	(株)曉星 部長
團	員	尹 YOUN	炳 Byung	壽 Soo	韓國計量測定協會 教育事業部 部長
團	員	尹 YOON	韓 Han	英 Young	韓國染色技術研究所 Team長
團	員	李 LEE	東 Dong	淵 Youn	大韓商工會議所 能力開發室長
團	員	李 LEE	俊 Jun	奉 Bong	(社)韓國TECHNOMART Team長
團	員	蔡 CHAE	奎 Kyou	英 Young	韓國纖維産業聯合會 部長
團	員	高 KO	鍾 Jong	燮 Seob	中小企業中央會 課長

區 分	姓 名	團 體·會 社 名 / 職 位
Observer	林 承 允 LEEM Seung Yoon	產業資源部 亞洲協力Team長
Observer	朴 載 正 PARK Jae Jung	產業資源部 亞洲協力Team 事務官
Observer	裴 泳 吉 BAE Young Kil	釜山廣域市 經濟振興室長
Observer	金 鍾 海 KIM Jong Hae	釜山廣域市 行政自治局長
Observer	裴 光 孝 BAE Kwang Hyo	釜山廣域市 經濟政策課長
Observer	宋 三 鍾 SONG Sam Jong	釜山廣域市 經濟企劃擔當事務官
Observer	姜 多 恩 KANG Da Eun	Busan Convention & Visitors Bureau 課長
Observer	金 丞 振 KIM Seung Jin	KOTRA 專門委員
Observer	李 鴻 培 LEE Hong Bae	對外經濟政策研究院(KIEP) 研究委員
Observer	金 彰 彬 KIM Chang Bin	(財)韓日產業·技術協力財團 Team長
Observer	張 震 旭 CHANG Jin Wook	(財)韓日產業·技術協力財團 Team長
Observer	金 瑋 卓 KIM Tak	(財)韓日產業·技術協力財團 次長
Observer	金 度 勳 KIM Do Hoon	(財)韓日產業·技術協力財團 日本企業研究Center 研究委員
Observer	劉 崇 勳 YOO Sung Hun	(財)韓日產業·技術協力財團 Japan Outsourcing Center 課長
Observer	李 丞 慥 LEE Seung Hyuk	(財)韓日產業·技術協力財團 社員
隨 行 員	金 鍾 旭 KIM Jong Wook	(財)釜山發展研究院 經濟產業研究部長
隨 行 員	朴 東 澈 PARK Dong Chul	韓國產業團地公團 國際協力Team長
隨 行 員	朴 載 桓 PARK Jae Hwan	釜山商工會議所 通商振興Team長
隨 行 員	朴 俊 準 PARK Joon	大韓商工會議所 海外調查Team 課長

區 分	姓 名	團 體·會 社 名 / 職 位
隨 行 員	申 尚 憲 SHIN Sang Heon	HANWHA GROUP 日本Team
隨 行 員	申 辰 雨 SHIN Jin Woo	(社)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 部長
隨 行 員	柳 載 祐 YOO Jae Woo	大韓製糖(株) 社員
隨 行 員	李 炳 寬 LEE Byeong Kwan	三一紡織(株) 總務Team 代理
隨 行 員	李 泰 龍 LEE Tae Yong	新韓銀行 釜山LOTTE WORLD支店長
隨 行 員	朴 然 雨 PARK Yeon Woo	(社)韓國貿易協會 亞洲Team 次長
隨 行 員	李 東 基 LEE Dong Ki	(社)韓國貿易協會 秘書室 次長
隨 行 員	尹 龍 YOON Yong	(社)韓國貿易協會 秘書室 課長
隨 行 員	鄭 守 源 CHUNG Su Won	東西大學校 教授
隨 行 員	丁 芝 淑 JUNG Ji Sook	FINE TMS CO.,LTD. 代理
隨 行 員	鄭 銀 靖 CHUNG Eun Jeong	(株)曉星 課長
隨 行 員	鄭 永 憲 JEOUNG Young Heon	(株)曉星 課長
隨 行 員	林 延 柱 LIM Yoen Ju	(株)曉星 代理
隨 行 員	崔 秀 慶 CHOI Su Kyung	(株)三養社 秘書Team 課長
隨 行 員	黃 碩 基 HWANG Sug Ki	共生國際特許情報(株) 國際部 理事
隨 行 員	洪 性 一 HONG Sung Il	全國經濟人聯合會 國際協力室 次長
隨 行 員	洪 性 喆 HONG Sung Chul	韓國產業技術振興協會 國際協力Team 主任
事 務 局	趙 德 卯 CHO Duck Myo	(社)韓日經濟協會 部長
事 務 局	金 正 鎬 KIM Jung Ho	(社)韓日經濟協會 次長

區 分	姓 名	團 體·會 社 名 / 職 位
事 務 局	沈 揆 榛 SHIM Kyu Jin	(社)韓日經濟協會 課長
事 務 局	洪 昭 榮 HONG So Young	(社)韓日經濟協會 社員
事 務 局	金 惠 媛 KIM Hye Won	同時通譯士
事 務 局	李 定 南 LEE Joeng Nam	同時通譯士

[地域側(釜山) 參加者 名單]

<釜山經營者總協會 16名>

姓 名			團體·會社名 / 職位
金 KIM	炳 Byung	椿 Choon	(株)世原 會長
金 KIM	承 Sung	永 Young	(株)金永 會長
裴 BAE	英 Young	基 Ki	(株)世起HI-TECH 會長
河 HA	炳 Byeong	權 Kweon	釜山廣域市BUS運送事業組合 理事長
權 KWON	英 Young	俊 Jun	油源產業(株) 代表理事
金 KIM	性 Sung	直 Jik	(株)中央綜合土建 代表理事
朴 PARK	淇 Ki	淳 Soon	(株)合同電機 代表理事
申 SHIN	沃 Ouc	均 Kun	(株)美化實業 代表理事
吳 OH	亨 Hyung	根 Khun	大韓製鋼(株) 代表理事
禹 WOO	揚 Yang	浩 Ho	(株)成一SIM 代表理事
尹 YOON	壽 Soo	吉 Kil	盛祜POLYCHEM(株) 代表理事
李 LEE	龍 Yong	俊 Jun	(株)東永COLD PLAZA 代表理事 社長
李 LEE	廷 Jung	根 Geun	泳東建設 代表理事
李 LEE	熙 Hi	道 Do	(株)釜山都市Gas 代表理事
張 JANG	哲 Cheol	淳 Soon	(株)新東DIGITECH 代表理事
趙 CHO	顯 Hyun	彩 Chae	裕盛化學工業社 代表

<韓國女性經濟人協會 釜山支部10名>

姓 名			團體·會社名 / 職位
盧 NOH	京 Kyoung	子 Ja	Young Jin Co. 代表
吳 OH	鐘 Jong	守 Soo	韓日冷藏(株) 代表理事
洪 HONG	泳 Young	任 Im	Woojoo Travel Service Co.,Ltd. 代表理事
曹 CHO	貞 Joung	淳 Soon	Duksung Industry 代表
崔 CHOI	貞 Joung	子 Ja	Daewon M&C Co.,Ltd. 代表理事
徐 SEO	順 Soon	子 Ja	合資會社 金湖商事 代表理事
韓 HAN	明 Myoung	愛 Ae	Gooil Flower shop 代表
洪 HONG	玉 Ok	姬 Hee	Hajin Camtec Co.,Ltd. 代表理事
金 KIM	東 Dong	仙 Sun	T.S Co.,Ltd. 代表理事
李 LEE	孝 Hyo	禮 Ryeoi	Dongmyung Co.,Ltd. 代表理事

<釜山地區青年會議所(釜山地區C) 9名>

姓 名			團體·會社名 / 職位
李 LEE	庚 Kyung	雨 Woo	(株)泰日產業 代表
李 LEE	吉 Gil	鎬 Ho	泰光木材 常務
金 KIM	東 Dong	守 Su	(株)ZERO TECH 代表理事
金 KIM	成 Seong	駿 Jun	Domino's Dongnae 代表
曹 CHO	赫 Hyeok	成 Sung	P&P KOREA 本部長
余 John	俊	昊 YEO	Vesta Cosmetics 代表理事

姓 名			團體·會社名 / 職位
鄭 JEONG	永 Young	碩 Seok	(株)Metal Kotea 代表
張 JANG		京 Kyung	지가구이야기 代表
黃 HWANG	智 Ji	恩 Eun	Sun Telecom 代表

2. 日本側 代表團 名單

(敬称略・順不同)

団 長	飯 島 英 胤 IJIMA HIDETANE	(社)日韓經濟協會 會長 東レ(株) 特別顧問
名譽會長	瀬 戸 雄 三 SETO YUZO	(社)日韓經濟協會 名譽會長 アサヒビール(株) 相談役
副 団 長	荒 木 浩 ARAKI HIROSHI	(社)日韓經濟協會 副會長 東京電力(株) 顧問
副 団 長	田 崎 雅 元 TAZAKI MASAMOTO	(社)日韓經濟協會 副會長 川崎重工業(株) 取締役會長
副 団 長 共同議長	鮫 島 章 男 SAMESHIMA FUMIO	(社)日韓經濟協會 副會長 太平洋セメント(株) 代表取締役社長
副 団 長	石 原 進 ISHIHARA SUSUMU	(社)日韓經濟協會 副會長 九州旅客鐵道(株) 代表取締役社長
副 団 長	麻 生 泰 ASO YUTAKA	(社)日韓經濟協會 副會長 日韓産業貿易會議チェアマン 麻生ラファージュセメント(株) 代表取締役社長
副 団 長	池 田 弘 一 IKEDA KOUICHI	(社)日韓經濟協會 副會長 アサヒビール(株)代表取締役會長
來 賓	大 島 正太郎 OSHIMA SHOTARO	駐大韓民國日本國特命全權大使
特別參加 基調講演	畠 山 襄 HATAKEYAMA NOBORU	(財) 國際經濟交流財団 會長
特別參加 主題發表	浦 田 秀次郎 URATA SHUJIRO	早稻田大學大學院 アジア太平洋州研究課 教授
特別參加 主題發表	平 塚 大 祐 HIRATSUKA DAISUKE	日本貿易振興機構アジア經濟研究所 開發研究センター長
特別參加 主題發表	門 脇 英 晴 KADOWAKI HIDEHARU	(株)日本總合研究所 理事長
団 員 主題發表	大 鶴 英 嗣 OTSURU HIDETSUGU	松下電器産業(株) 取締役
団 員	杉 山 廣 明 SUGIYAMA HIROAKI	旭化成ケミカルズ(株) ポリマー製品營業部長

団員	樋田 憲一 HIDA NORIKAZU	アサヒビール(株) 秘書室長
団員	三浦 園子 MIURA SONOKO	アサヒビール(株) 秘書室課長
団員	中川 雅博 NAKAGAWA MASAHIRO	伊藤忠商事(株) 常務執行役員
団員	鈴木 敦 SUZUKI ATSUSHI	伊藤忠商事(株) 海外市場部アジア・大洋州室長代行
団員	岩成 俊彦 IWANARI TOSHIHIKO	韓国伊藤忠(株) 代表理事社長
団員	吳 希昌 OH HI-CHANG	(株)インジェスター 代表取締役社長
団員	權 京鎬 KWON KYONGHO	(株)インジェスター 取締役副社長
団員	片山 頼康 KATAYAMA YORIYASU	エスワン(株) 副社長
団員	鄭 尙勳 JUNG SANGHOON	エスワン(株) 主任
団員	福井 啓二 FUKUI KEIJI	韓国ウシオ(株) 代表理事社長
団員	上田 勝弘 UEDA KATSUHIRO	大垣精工(株) 代表取締役
団員	服部 和史 HATTORI KAZUSHI	川崎重工業(株) 営業推進本部 理事 国際部長
団員	中村 隆男 NAKAMURA TAKAO	川崎重工業(株) 営業推進本部国際部国際課 国際課長・参与
団員	平松 敬 HIRAMATSU TAKASHI	川崎重工業(株) 秘書室
団員	平井 彰 HIRAI AKIRA	(社)九州経済連合会 総務企画本部長
団員	矢野 佳秀 YANO YOSHIHIDE	(社)九州経済連合会 総務企画本部課長
団員	赤木 由美 AKAGI YUMI	九州旅客鉄道(株) 経営企画部室長

団員	重松友岳 SHIGEMATSU TOMOTAKE	九州旅客鐵道(株) 經營企畫部主席
団員	青木秀雄 AOKI HIDEO	近畿産業信用組合 副會長
団員	永井卓 NAGAI TAKASHI	(社) 經濟同友會 政策調査部長
団員	任龍彬 IM YONG BIN	韓國 J M A C (株) 代表理事社長
団員	藤井龍夫 FUJII TATSUO	韓國 J M A C (株) 理事
団員	十倉雅和 TOKURA MASAKAZU	住友化學(株) 常務執行役員
団員	長尾良司 NAGAO RYOJI	韓國住友商事(株) 社長
団員	中平政廣 NAKAHIRA MASAHIRO	韓國双日(株) 代表理事社長
団員	鈴木忠 SUZUKI TADASHI	双龍洋灰工業(株) 代表理事會長
団員	横山全徳 YOKOYAMA MASANORI	大成建設(株) ソウル支店長
団員	舟久保陽一 FUNAKUBO YOUICHI	太平洋セメント(株) 秘書部長
団員	清田瞭 KIYOTA AKIRA	(株)大和証券グループ本社 取締役副會長
団員	山室潤 YAMAMURO JUN	(株)大和証券グループ本社 秘書室/上席課長代理
団員	寄木正敏 YORIKI MASATOSHI	月島機械(株) 社友
団員	森島進 MORISHIMA SUSUMU	月島機械(株) 執行役員
団員	早乙女智紀 SOTOME TOMONORI	月島機械(株) 海外營業部 第1營業グループリーダー
団員	和地孝 WACHI TAKASHI	テルモ(株) 代表取締役會長

団員	佐藤 淳 SATO ATSUSHI	東京電力(株) 秘書部副長
団員	中山 裕二 NAKAYAMA YUJI	東友ファインケム(株) 代表取締役副社長
団員	小林 純 KOBAYASHI JUN	東レ(株) 国際部門長
団員	森野 仁 MORINO HITOSHI	東レ(株) ソウル事務所 在韓国 東レ代表
団員	沼野 隆一 NUMANO RYUICHI	東レ(株) ソウル事務所 ソウル事務所長
団員	水口 泰介 MINAKUCHI TAISUKE	東レインターナショナル(コリア) (株) 代表理事 東レインターナショナル(株) 取締役
団員	飯沼 岳 IINUMA GAKU	韓国TEK(株) 代表理事
団員	小原 直樹 OHARA NAOKI	トヨタ自動車(株) 豪亞中近東業務部GM
団員	千吉良 泰三 CHIGIRA TAIZO	韓国トヨタ自動車(株) 社長
団員	山崎 弘 YAMAZAKI HIROSHI	(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常務理事
団員	成田 洋助 NARITA YOSUKE	(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カウンセラー
団員	遠藤 一郎 ENDO ICHIRO	日鉱金属(株) 顧問 経営企畫部
団員	林 寛爾 HAYASHI KANJI	(社)日本経済団体連合会 国際第二本部 アジア・グループ長兼国際協力グループ長
団員	西塚 英和 NISHIZUKA HIDEKAZU	(株)日本航空 顧問
団員	山村 毅 YAMAMURA TSUYOSHI	(株)日本航空 韓国地区支店支店長
団員	篠原 徹 SHINOHARA TORU	日本商工會議所 常務理事
団員	渡辺 泰一 WATANABE TAIICHI	日本商工會議所 国際部調査役

団員	岩間 信弥 IWAMA SHINYA	日本商工會議所 ソウル事務所所長
団員	林 哲三郎 HAYASHI TETSUSABURO	日本貿易振興機構 ソウルセンター所長
団員	高橋 恒弘 TAKAHASHI TSUNEHIRO	日立製作所(株) グローバル事業本部部長
団員	寺澤 主税 TERASAWA CHIKARA	日立製作所(株) 韓国支店支店長
団員	河本 兼尚 KAWAMOTO KANEYOSHI	(株)パシフィックアイランディアリゾート 取締役顧問
団員	高杉 暢也 TAKASUGI NOBUYA	韓国富士ゼロックス(株) 最高顧問
団員	金 炳 源 KIM BYUNG-WON	韓国富士通(株) 代表理事
団員	齋藤 淳一 SAITO JUNICHI	韓国富士通(株) 理事
団員	清水 紘一郎 SHIMIZU KOICHIRO	(株)ホテルオークラ 代表取締役副社長
団員	菅野 伸和 SUGANO NOBUKAZU	松下電器産業(株) 環境渉外・企画担当部長
団員	菅原 和夫 SUGAWARA KAZUO	韓国丸紅(株) 代表理事社長
団員	成川 敦 NARIKAWA ATSUSHI	(株)みずほコーポレート銀行ソウル支店 支店長
団員	日下 一郎 KUSAKA ICHIRO	(株)みずほコーポレート銀行ソウル支店 国際金融チーム長
団員	相原 元八郎 AIHARA GEMPACHIRO	三井物産(株) 副社長執行役員 兼アジア・大洋州三井物産(株)社長
団員	村上 雅章 MURAKAMI MASAOKI	韓国三井物産(株) 代表理事社長
団員	敦賀 啓介 TSURUGA KEISUKE	韓国三井物産(株) 理事・本部長
団員	高島 正之 TAKASHIMA MASAYUKI	三菱商事(株) 顧問

団員	矢野 雅英 YANO MASAHIDE	三菱商事(株) 常務執行役員
団員	伊与部 恒雄 IYOBE TSUNEO	韓国三菱商事(株) 代表理事社長
団員	古山 裕子 FURUYAMA HIROKO	韓国三菱商事(株) 管理本部課長
団員	西村 和義 NISHIMURA KAZUYOSHI	三菱マテリアル(株) 社友
団員	帯刀 楯夫 OBINATA TATEO	韓国横河電機(株) 代表理事會長
団員	西田 宗旦 NISHIDA MUNEAKI	學校法人立命館 總長理事長室参与
団員	村上 吉胤 MURAKAMI YOSHITSUGU	學校法人立命館 東京オフィス副所長
団員	渡辺 精一 WATANABE SEIICHI	(株)ロッテアサヒ酒類 理事
団員	李 瓊 球 RHEE KYONG-GU	早稻田大學 商學研究科客員教授
団員	武澤 泰 TAKEZAWA TAI	社団法人日韓經濟協會 專務理事
団員	秋山 迪 AKIYAMA SUSUMU	社団法人日韓經濟協會 常務理事 調査部長
特別參加	伊原 純一 IHARA JUNICHI	外務省 アジア大洋州局參事官
特別參加	岡田 誠司 OKADA SEIJI	外務省 アジア大洋州局日韓經濟室長
特別參加	山本 榮二 YAMAMOTO EIJI	駐大韓民國日本大使館 經濟部公使
特別參加	吾郷 進平 AGO SHINPEI	駐大韓民國日本大使館 經濟部參事官
特別參加	中川 浩 NAKAGAWA HIROSHI	駐釜山日本國總領事館 副領事
特別參加	深川 由起子 FUKAGAWA YUKIKO	早稻田大學 政治經濟學部 教授

特別参加	影 山 美佐子 KAGEYAMA MISA KO	(財) ちば国際コンベンションビューロー 事務局長
特別参加	小 林 直 人 KOBAYASHI NAOHITO	独立行政法人国際交流基金ソウル日本文化センター長
特別参加	東 條 秀 彦 TOJO HIDEHIKO	(財) ちば国際コンベンションビューロー 誘致課課長
事務局	保 坂 昭 壽 HOSAKA AKITOSHI	(社)日韓経済協会 調査部主任調査役
事務局	初瀬川 茂 HATSUSEGAWA SHIGERU	(社)日韓経済協会 業務部長
事務局	木 下 和 彦 KINOSHITA KAZUHIKO	(社)日韓経済協会 業務部部長
事務局	杉 山 茂 夫 SUGIYAMA SHIGEO	(社)日韓経済協会 総務部長
事務局	伊 藤 美千代 ITO MICHIO	(社)日韓経済協会 総務部課長
事務局	金 秀 庭 ITO MICHIO	(社)日韓経済協会 業務部

VI. 議 事 錄

1. 開 會 式

司會【許南整 (社)韓日經濟協會 專務理事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專務理事, 以下同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皆さん、こんにちは。이번 회의의 진행을 맡은 한일경제협회의 전무이사 허남정입니다. 박수는 건강에 다들 좋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30년 역사의 국제항을 보유한 대한민국 최대의 항만물류도시이자 21세기 동북아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광역시에서 본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회의 개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관계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행사에 참여해 주신 내외귀빈, 양측 단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9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단상에 계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손님이신 일본측 내빈부터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측 단장을 맡고 계신 이이지마 히데타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시마 쇼타로 재대한민국일본국특명전권대사님이십니다. 오늘 일본측 기조연설을 해

주실 하타케야마 노보루 (재)국제경제교류재단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토 유조 일한경제협회 명예회장이십니다.

계속해서 한국측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측 단장이신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 및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상하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이십니다. 다음은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이지마 히데타네 단장님을 비롯한 일본측 단장단의 주요정부기관 예방 사항에 대해 여러분께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예방은 일정이 맞지 않아 실현되지 못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일본측 단장단 8명은 4월 11일 오후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님,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님, 그리고 오늘 4월 12일 오전에는 새로 부임하신 한덕수 신임총리님을 조석래 회장님의 안내로 예방하였습니다.

금번 예방을 통해서 한일경제인회의가 한일 양국 간에 개최되는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민간경제인회의임을 강조하면서 한일간 새로운 협력관계 모색을 위해서 진솔한 대화와 활발한 교류의 장으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 받은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장 선출과 의제 채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인회의 관례에 따라서 주최국측 단장께서 정의장으로, 방문국측 단장께서 부의장으로 취임하시는 것과 사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제가 채택되는 것을 여러분께서 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團長人事

司會 : 그럼 식순에 따라서 양국 단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한국측 대표단 단장이신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석래 회장님은 지난 3월 제31대 전경련 회장으로 취임하신 바가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趙錫來
韓國側 代表團 團長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일 양국 기업인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에서 제39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가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주신 한국과 일본의 대표단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특히 멀리서 오신 이이지마 회장님을 비롯한 일본측 참석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하타케야마 회장님과 김상하 회장님, 축사를 맡아주신 오시마 대사님, 이희범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갖는 이곳 부산은 맑은 날이면 쓰시마섬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일본과는 가깝고 역사적으로도 한일 간 교류의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올해는 조선통신사가 처음 일본으로 파견된 지 꼭 400년이 되는 해인데 당시 통신사가 출발하였던 곳이 바로 이곳 부산입니다. 이렇게 뜻 깊은 곳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인들이 모여서 21세기의 공동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니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한국경제는 수출증가에 힘입어 연 5%의 성장을 기록하였고 일본경제는 기업수익이 개선되고 설비투자가 증가하는 등 건실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한일 양국 간의 무역은 사상 최대인 780억불을 기록하였고 지난 해 3월의 비자면제에 힘입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의 수가 2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양국 간의 인적교류도 또한 45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더욱 확대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미 간 FTA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던 한일 FTA는 협상을 먼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담보상태에 있어서 못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한일 FTA 추진을 위해서 활발히 의견 교환을 하면서 양국 간의 FTA 체결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힘을 합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양국이 FTA를 맺어 하나의 경제권이 된다면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고 다자간 협상에서 동아시아의 입장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한일 양국이 정말로 단합하기 위해서는 문화교류도 더욱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문화에 익숙해지고 서로간의 양국민들은 드라마, 영화, 노래 등을 통해 상대방의 문화에 익숙해지고 서로간의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문화교류는 양국 간의 이해와 우호를 증진시킴으로써 경제교류를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이번 경제 회의에서는 발표자 간의 활발한 토

론을 유도하고 일반 참석자들의 의견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패널 토론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 활발히 의견을 내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알찬 결실을 거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한일양국의 기업인 여러분들께 다신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 인사말씀을 이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司會 : 조석래 단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일본측 단장이신 이이지마 히데타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飯島 英胤
(IJIMA Hidetane)
日本側 代表團 團長



일한경제협회의 이이지마입니다. 작년 6월에 세토 전 회장님의 뒤를 이어서 회장에 취임하였습니다. 여러분의 협조, 지원 하에 제 임무를 다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39회 한일경제회의는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의해 이곳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매우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님, 그리고 오시마 일본국 특명전권대사를 비롯한 양국의 내외귀빈 여러분, 또한 출석해 주신 단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2001년 1월 26일에 한국인 유학생인 이수현씨가 도쿄 신오쿠보역 구내에서 일본인을 구하기 위해

사고를 당하여 소중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이수현씨의 용기 있는 행동, 국경을 뛰어넘은 인간애, 이수현씨의 가족애를 주제로 한 한일합작영화 「너를 잊지 않을 거야」가 완성되어서 이수현씨의 6주기를 맞이한 금년 1월 26일에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천왕폐하 내외분께서도 참석하셔서 끝까지 영화를 함께 보셨습니다. 이수현씨가 바로 이 곳 부산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수현씨의 소망이 저희를 이 곳 부산으로 불렀다는 느낌이 들만큼 아주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이 합작영화로 상징되는 한일 양국 간의 문화교류는 문화개방정책 이후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둘러싼 경제 환경도 앞서 조석래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는 무역, 투자 모두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적 교류에 있어서도 모두 445만명이 교류하는 등 과거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교류확대는 양국의 순조로운 경제 발전에 힘입은 바도 있습니다만, 양국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이 예를 들자면 경제면에서는 한일투자협정의 재정 또는 인적교류 면에서는 90일의 단기비자를 면제하는 등 개방정책이 정비되면서 이러한 교류를 뒷받침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매우 중요한 과제인 한일 FTA는 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둘러싼 경제 환경은 BRICs에 대두, 약진과 세계 각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제연결 공동체 형성 등 크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부디 한일 FTA 조기 협상 재개와 체결을 강력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한일 FTA는 단지 경제면뿐만이 아니라 특히 동아시아의 FTA 추진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양국의 정치·외교면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계로써는 정부를 서포트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에 한미 FTA가 합의되었습니다. 전 이점을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아직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있겠습니다만, 이것을 극복하고 한국 산업에 국제경쟁력 강화와 한국경제의 발전 확대에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국의 변화가 여러 가지로 있는 가운데 거시적인 FTA를 비롯한 정책과제와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양국의 교류확대를 저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성숙된 한일관계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존의 검토의 자리였던 산업무역회의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신산업무역회의로 다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유창무 Chairman님께서 후에 보고와 제안을 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인적 교류면에 있어서는 한일고등학생 교류 캠프가 세토 전 회장님의 노고에 힘입어 시작되어 금년 2월에 드디어 8 회째를 맞이한 바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이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 2월부터는 OB에 의한 한일학생미래회의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현역과 OB 이 두 가지 축으로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일간 청소년 교류를 더욱 강화하면서 중·장기적인 양국 관계에 상호이해와 상호신뢰를 확립해 나갔으면 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 회의가 여러분의 협조 하에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여러분께도 결실을 볼 수 있는 회의가 되고 부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제 인사말씀을 가름하고자 합

니다. 감사합니다.

司會 : 이이지마 히데타네 단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부인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사모님들께서는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안내에 따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들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2) 來賓人事

司會 : 다음으로 내빈축사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국측 내빈으로 참석해 주신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신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님께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李 熙 範
(社)韓國貿易協會 會長
前 産業資源部 長官



존경하는 한일경제협회 조석래 회장님, 김상하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님, 멀리 일본에서 와주신 일한경제협회 이이지마 히데타네 회장님, 국제경제교류재단 하타케야마 노보루 회장님, 세토 유조 일한경제협회 명예회장님, 오시마 쇼타로 주한일본 대사님,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양국의 경제인과 귀빈 여러분, 오늘 제39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는 유럽연합과 북미지역과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는 현재 세계인구의 23%, 세계 국내 총 생산의 17%, 세계 무역규모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세계 경제에 있어서 동북아 지역의 위상은 더욱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부상과 함께 한일 양국 간의 교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한일간의 무역규모는 784억불의 달하였으며 인적교류도 앞서 두 회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446만명의 이르렀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교류도 진전돼서 양국 국민간의 상호 이해의 폭도 매우 넓어졌습니다. 이러한 한일 양국 간의 우호 증진의 배경에는 지난 1969년에 발족해서 매년 양국 경제인들이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해 온 한일경제인회의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일 양국의 경제인들이 우호협력의 분위기를 바탕으로 더욱 진일보한 경제협력의 장을 열어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산업구조는 상호경쟁적인 요소도 있으나 기술과 경험, 자본, 중소기업 등이 여러 부분에서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산업 전반에 걸쳐서 보다 높은 단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양국의 경제적 실익 역시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일 양국의 경제인들이 한데 모여서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정리한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앞으로 한국경제는 큰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이는 향후 일본은 물론 동아시아의 경제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번 한일경제회의에서는 현재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한일 FTA 협상의 재개를 위한 양국 정부는 물론 경제인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앞서 두 분 회장님께서도 양쪽의 인

적·물적 교류와 함께 한일 FTA 협상 재개를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합의해서 짠 문헌이 아닙니다만 양국 경제인의 공통된 이익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양국 간의 무역뿐만 아니라 상호투자의 증대, 환경보호 및 에너지 확보를 위한 협력,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위한 실천 가능한 대안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한일경제인회의가 한국과 일본경제계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민간경제협력기구로서 양국 경제협력 관계발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의 무한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39회 한일경제인회의의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司會 : 이희범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일본측 내빈으로 참석하신 오시마 쇼타로 주대한민국일본국특명전권대사님께 축사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大島 正太郎
(OSHIMA Shotaro)
在大韓民國日本國
特命全權大使



한일경제협회 조석래 회장님, 이지마 히데타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그리고 한일·일한 경제인회의의 양국 대표단 여러분, 또한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내외빈 여러분. 오늘 이곳 부산에서 제39회 한일경제인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 회의의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일경제계에 있어서 커더란 역할을 해 오신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님께서 이번에 한국 전경련의 회장님으로 취임하신 것,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경제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조석래 회장님께서 한국 경제의 총수가 되신 것, 이것은 저희 한일 경제 관계자로서도 대단히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번 기회에 조석래 회장님의 전경련 회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 중국, 이런 ASEAN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경제가 예전에 비해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성장 센터로서 전 세계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공급하고 그러한 세계의 공장으로서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 기술의 발신지로서 동아시아가 앞으로 그 역할을 확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일 양국에 있어서도 이웃나라 중국이라든지 또 ASEAN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적 발전은 일본경제뿐만 아니라 또 한국경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경제 발전에 있어서 커다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동아시아 지역의 성장의 중심이 되고 있는 선진 국가로써 한국과 일본, 일본과 한국이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과 경제통합에 어떻게 해서 건설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그것이 바로 이 지역의 경제발전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민간경제활동의 측면에서도 정부의 경제외교적인 측면에서도 한일 양국 간의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경제 측면에서 보면 한일양국의 경제관계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일의 무역을 보더라도 2006년에는 한국에

서의 대일 수출이 11.3%, 일본에서 대한 수출이 8.7%, 전년도대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직접 투자도 2006년에는 전년대비 12.2% 증가했습니다. 21.1억불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인적왕래의 측면을 보더라도 앞서 많은 분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460만명 이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해주시는 분들이 200만명을 넘어섰고 전년대비 증가가 21%나 되었다는 것은 작년에 달성된 숫자이지만 참으로 놀랍습니다.



한편, 이러한 한일경제 관계의 확대 긴밀화에 입각하여 정부 차원에서도 더욱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앞서 말씀이 있으셨듯이 한일 FTA의 실현은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연대 강화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한일 양국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국은 최근 미국과 FTA협상을 타결하셨습니다. 저의 입장에서 한국측의 끈기 있는 협상력과 과감한 결단력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협상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매우 포괄적이고 또 높은 수준의 한미 FTA의 합의 내용은 한일 FTA의 잠재적인 가능성도 새삼 제시해 준 것이라 봅니다. 안타깝게도 한일 FTA의 협상은 상호 입장차이로 인해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있을 협상 재개를 위해서 상호 그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아시아 경제

전반의 발전을 한국과 일본이 서로 주도한다는 관점에서는 한·중·일 투자협정 등 한·중·일 3개국의 틀 구축 혹은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준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일 양국이 손을 맞잡고 협력을 하면서 건설적으로 진행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번 한일경제인 회의에 있어서도 한일경제연대 강화와 동아시아 공동체의 전망, 그리고 한일 양국의 협력을 위한 과제 이러한 주제 하에 논의가 있을 거라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경제계 여러분들께서 흥금을 털어서 솔직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한일관계는 계속해서 여러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또 오랜 교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일 관계에서는 좋은 뜻으로라도 그리고 또 안 좋은 뜻으로라도 양국민의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근시안적인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긴밀한 대화를 계속하고 또 상호의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감으로써 해결해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현실적인 경제활동에서 양국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한국과 일본의 경제계 분들께서 한 자리에 모여서 솔직한 의견교환과 폭넓은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은 대단히 의의가 있는 것이며 그 성과를 크게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얻어서 한일 양국의 경제관계가 더욱 더 굳건하고 또 깊고 넓은 것이 될 것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한일경제인회의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과 또 오늘 참석하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건승하심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司會 : 오시마 쇼타로 대사님 감사합니다. 이번 39회 경제인회의에는 양측 합쳐서 316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 숫자는 39회 경제회의를 개최한 동안 가장 많은 숫자라고 지금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특히, 부산지역상공인 여러분들 적극 참여해주신 점에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4시 30분까지 커피 브레이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도에 음료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상에 계신 내외빈께서는 내려오셔서 맨 앞줄에 착석하시고, 잠시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커피브레이크 이후 4시 30분부터 기조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시 30분까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ffee Break>

2. 基調演說

司會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양측 단장님과 기조연설을 해주실 김상하 회장님, 하타케야마 노보루 회장님, 양 단상에 올라가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조연설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후의 회의 진행은 조석래 단장님과 이이지마 히데타네 단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趙錫來 團長 :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하고 이이지마 회장님이 같이 회의를 속개해 나가겠습니다. 회의 순서에 따라서 한일 양국의 기조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측으로부터 김상하 회장님께서 「동북아 환경변화와 한일협력」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상하 회장님, 여러분 아마 소개가 필요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랜 동안 이 한일경제인회의를 이렇게 성대하게 만들어 주신 주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모르는 부분도 계셔서 잠시 소개드리면 김상하 회장님께서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가업인 삼양사에 입사를 하셔서 88년부터 오늘까지 회장으로 계십니다. 그 뿐만 아니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또 여러분이 아시는 한일경제협회 회장, 그 외

한중민간경제협의회 회장, 또 환경보존협회 회장 등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걸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우선 우리 김상하 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일 관계 교류협력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김상하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1) 韓國側 基調演說

『東北亞 環境變化와 韓日協力』

金 相 廈

(社)韓日經濟協會

名譽會長



우선 지금 조석래 회장님께서 과분한 소개 말씀 받은 김상하입니다. 여러분들, 이 활기찬 부산에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일한경제협회 이이지마 히데타네 회장님, 또 우리측의 한일경제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석래 회장님, 그리고 아까 귀한 말씀을 들은 오시마 쇼타로 주대한민국일본국특명전권대사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을 모신 뜻 깊은 제39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맡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은 제가 한일경제협회 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에 있을 당시부터 다년간 귀한 조언을 해 주시고 계시는 일본국제경제교류재단의 하타케야마 노보루 회장님과 이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주 오랜 친구입니다.

더욱이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장 가까운 이곳 활기찬 항도 부산에서 평소 존경하는 한일기업인 여러분을 뵙게 되어 그야말로 양국은 가깝고도 또 가까운 나라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최근 급변하는 세계 정치경제환경 속에서 한일양국 기업이 세계 어디에 내어 놓아도 손색이 없는 글로벌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하려면 앞으로 양국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전개해야 할 것인지 저의 평소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더욱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최근 세계경제가 안정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일본경제의 급속한 회복, 중국 및 러시아의 고성장, 한국의 수출호조 등으로 동북아시아는 국제경제에서의 존재감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일본, 한국 3개국의 현재 외환보유고 합계는 2조 달러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활발한 설비투자 등에 힘입어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경제는 과거의 장기호황기록을 갱신 중에 있으며, 기업들은 활력이 넘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막대한 외국인투자를 배경으로 고도 성장을 부가하고 있는 중국은 신산업정책을 채택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선별적인 유치를 천명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원자재 가격 상승, 원화강세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IT 및 디지털 가전의 수출호조 등으로 5% 내외의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위기감이 고조된 한반도 정세도 6자회담 개최와 북미 간 대화 진전 등으로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FTA의 성공적 타결은 한일 FTA와 한중 FTA 체결 논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향후 한일 FTA와 한중 FTA 등 2개국 FTA를 넘어서 한·중·일 FTA 등 동북아 경제통합이 실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양국 간 협력증진을 포함해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두 분 회장님과 또 축사를 해주신 두 분 선생님의 여러 가지 말씀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의 말씀에도 그런 부분

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한일 양국 협력관계는 무역, 투자, 자본, 인적교류 확대는 말할 것도 없고, 교역의 범주도 종래의 상품과 서비스 영역을 넘어 방송, 음악, 애니메이션, 영화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활동주체도 지방과 NGO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양국 간의 교역현황을 보면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일본은 한국의 제 1의 수입국이면서 제 3위의 수출국이 됩니다. 2006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은 265억 달러, 대일 수입은 519억 달러로, 교역규모가 784억 달러로 최고치를 갱신하였으며 동시에 대일 무역적자도 254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양국이 상호 협력확대를 통해서 무역의 확대균형을 유지하면서 무역불균형을 개선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둘째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미국에 이은 제 2위의 투자국입니다. 1962년부터 2006년까지 누계기준으로 일본의 대한 투자는 195.2억 달러로써 전체 외국인 투자의 1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일본의 반도체, LCD부품 등 첨단 분야의 대규모투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6년에도 전년대비 12.2% 증가한 21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최근 일본의 대한 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부품·소재분야의 대한 투자는 2005년 3.9억 달러에서 2006년에는 15.2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일본의 대한 투자는 부품·소재분야의 공장설립형 투자비중이 높아 한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양국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기업의 적극적인 대한 투자를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상대국으로 극히 소규모인

한국의 대일 투자도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한일 간의 인적교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일본방문자 수가 급증 증세를 보이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일본의 한국 방문자 수를 초과하는 역전 현상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방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엔화약세 기조, 단기 비자 면제, 항공망 확충 등의 영향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2006년의 경우 전년대비 21.2% 증가한 212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일본인의 한국방문은 2005년에 240만 명에서 2006년에는 234만 명으로 약간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국정부는 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2006년에 한일 간 관광취업비자 발급한도를 연간 1,800건에서 3,600건으로 2배 확대하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하기 쉬운 인프라가 계속적으로 구축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이 더욱 증진되어 경색되어 있는 한일관계가 개선된다면 양국 간 인적교류는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 올해는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조선통신사 400돌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한국조선통신사는 임진왜란이 끝난 지 10년만인 1607년 일본 에도 막부 시대에 처음으로 파견되기 시작하여, 1811년까지 200여 년 동안 모두 열두 차례에 걸쳐서 양국 간의 문화교류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일본과의 장기간에 걸친 문화교류는 400년이 지난 지금도 한일 우호의 상징이자 양국의 문화 상품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조선통신사 40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후로도 양국 간 문화교류와 우

호친선행사를 더욱 활발히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굳건한 동반자 관계를 더욱 지속시키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향후 협력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일 FTA에 의해 타결촉진을 위한 양국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본보다 늦게 시작한 한미 FTA가 양국의 어려운 상황과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최근 타결되었다는 것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한일 FTA 교섭 재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5년 동안 준비하고 시작한 양국 정부간 FTA협상은 안타깝게도 2년 이상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일 FTA가 오랜 시간 동안의 공동연구와 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협상단계에서 서로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한일 FTA 체결은 분명히 양국 모두에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 피해를 강조한 나머지 양국 간 연대와 결속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중장기적인 시장통합에 따른 규모이익, 다자간 협상에 우월적 지위 확보 등이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파이마저 상실하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뒤쳐지고 말 것입니다.

다행히 두 나라는 한일 FTA 협상 중단 이후 여타국과의 FTA 추진과정을 서로 지켜보면서 향후 협상 재개시 상대방의 있을 수 있는 요구와 조건을 점검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국은 이미 포괄적, 실질적 자유화, 상호이익 증진, WTO규정의 합치를 목표로 한 고도의 FTA여야 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한일 FTA 협상을

재개하고 과거의 전철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원칙에 충실한 미래지향적인 사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실질적 시장통합을 위해서는 관세철폐만으로는 부족하며, 각종 규제 속에 잠재되어 있는 비관세장벽의 완화·철폐야말로 한일 두 나라의 법과 제도의 선진화 및 양자간 FTA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역, 수입할당, 폐쇄적 유통시스템 등과 관련된 비관세장벽 해소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양국은 서로 FTA 타결 노력이 부족했던 점을 인식하고, 하루빨리 FTA 논의의 초심으로 돌아가 양보와 배려 속에서 한일 FTA를 조기에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한·중·일 FTA와 동아시아 경제통합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한일기업 간 전략적 제휴 확산 및 제 3국 공동 진출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진취적인 역동성과 일본의 우수한 기술, 그리고 자본력이 결합하는 기업 간 협력제휴를 강화하여 핵심역량을 공유함으로써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제 3국 공동 진출 등 공동수익모델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본 소니와 한국 삼성의 S-LCD 합작 사례는 양국 간 Win-Win 협력의 좋은 모델이 될 것입니다. 한일 양국기업이 아시아 역내에서 이미 국제사업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중국을 포함하는 제 3국 시장에서의 공동사업을 확대할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문화, 스포츠, 인적교류의 확대를 통해서 신뢰관계 구축에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최근 양국 간에는 문화, 스포츠, 인적교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자이언츠구단의 이승엽 선

수, 주니치 드래곤스의 이병규 선수나 J리그에서 활약하는 축구스타 등 스포츠선수의 일본진출을 통해서, 이들의 경기를 시청한 한국인들에게 일본에 대한 친근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보아, 윤사마, 줌 지루하니까 말씀하는데 제가 이름이 김상하입니다만, 친한 일본 사람한테는 산사마라고 불러달라고 가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몇 분밖에 안남았습니다. 보아, 윤사마 등의 한류열풍과 더불어 가수, 영화인 등 일본 연예인의 한국 진출 확대도 두드러지는 등 문화계의 인적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확대는 양국의 민간·경제 레벨의 신뢰관계와 친밀감을 심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넷째 한일 양국 간의 올바른 역사인식의 공유는 한일 FTA와 한·중·일 FTA의 추진을 위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논의가 있어왔고, 또 앞으로 쉽게 결론을 내기는 어렵겠지만 양국 간 신뢰기반 구축과 협력 확대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 모두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간의 선린 우호 관계향상을 위해서 양국 기업인이 힘을 모아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말씀을 마칠까합니다.

아무쪼록 부산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둬주고, 참석하신 분들 모두에게 귀한 추억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시고 많이 인내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趙錫來 團長 : 김상하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상하 회장님께서서는 한일 FTA

또 양국 간의 기업 간 전략전인 제휴, 또 스포츠 문화 교류, 또 역사 인식 등에서 아주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일본측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이이지마 회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이지마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飯島 英胤 團長 :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본측의 기조연설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본측으로부터는 재단법인 국제경제교류재단의 하타케야마 노보루회장님으로부터 「韓日 經濟關係의 強化를 지향하여」라는 주제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하타케야마 회장님은 제가 가장 신뢰하고 또 존경하는 경제전문가이심과 동시에 탑매니지먼트(Top Management)로서 경영적인 능력에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하타케야마 회장님은 1959년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신 후에 당시 통상성에 입성하셨습니다. 통상성에서는 무역국장, 기초산업국장, 통상정책국장 등등 많은 분야에 중책을 역임하신 후에 통상산업심의관 후에 퇴임하셨습니다.

그리고 1998년부터는 JETRO(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 일본무역진흥기구)에 이사장으로서 활약을 하였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 국제경제교류재단 회장님으로서 활약하고 계십니다.

하타케야마 회장님은 한일간의 경제문제와 투자문제에 대해서도 정통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타케야마 노보루 회장님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2) 日本側 基調演說

『韓日 經濟關係의 強化를 위해』

畠山 襄

(HATAKEYAMA Noboru)

(財)國際經濟交流財團 會長



소개받은 하타케야마입니다. 분에 넘치는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국경제연합회의 회장님이시며 한일경제협회 회장님이신 조석래 회장님, 그리고 일한경제협회 이이지마 히데타네 회장님, 한국무역협회의 이희범 회장님, 주한일본대사관 오시마 쇼타로 대사님, 그리고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 전통 있는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예전부터 존경하며 친분을 나누어 온 한일경제협회의 김상하 명예회장님과 함께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이며 초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저는 일본 통산성 무역국장으로 있으면서 일한경제협회가 파견한 미션의 일원으로서 처음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 이후 아까 말씀 해주셨듯이 JETRO 이사장, 도쿄·서울 담당 각료님께서 참석하신 투자 촉진위원회 일원으로서 참석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작년인데요. 12월에는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재단법인 국제경제교류재단과 한국의 Think-Tank인 동아시아협의회와의 공동 개최로 한일 라운드 테이블도 개최했습니다. 여기는 이이지마 회장님께서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에 입각하여 오늘 한일관계에 경제관계의 현재의 상황, 그리고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안고 있는 공동과제 등등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말씀이 나왔지만 FTA를 중심으로 한일경제관계를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면한 한일경제상황인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경제는 2002년 2월부터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의 장기적인 회복과정이 있습니다. 이 회복의 특징은 공공사업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설비투자 등 민간주도형 경제성장인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년의 실질경제성장률은 2.2%였습니다. 그리고 2007 회계연도의 실질성장률은 일본은 회계 연도가 4월부터 3월까지인데요. 2007년 회계연도는 실질성장률 2.0%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전망이구요. 민간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상회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상황은 아직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신규 구인수라든지 유효구인배율이라든지 이러한 숫자가 1월 숫자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파트타임 근로자에 관해서는 소정내 급여 즉, 기본급이 증가하는 기조에 있으며, 또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배경으로 노동시장이 압박을 받아서 1인당 임금이 상승할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의 분야는 계속해서 불안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개인의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기업부문에서 기업부문 성장에서 가계부문 성장으로 이것이 조금 앞으로 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0.5%로 올렸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금리인상이 또 예측이 되고 있으며 이것도 기업에서부터 대출상대가 기업에서 개인으로 바뀌면서 개인소득의 증가요인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상승이 가계에 미칠 영향은 한 가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각부는 1%의 금리상승으로 기업의 이자지불은 3조엔 올라갔지만 가계는 준비소득은 약 6조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원화절상, 미국 원유가 상승에 있어서 작년에는 5%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한국경제가 침체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5%나 성장하고 계셔서 높이 평가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한일 경제관계에 대해서입니다. 무역은 앞서 김상하 명예회장님께서 언급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저는 생략을 하고, 약간 한일간에서 보는 통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소개를 하자면, 일본의 통계에 따르면 아까 243억 달러의 흑자가 아니라 230억 달러 흑자, 약간 숫자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일본측의 흑자가 일본측 통계에 의하면 230억 달러인데요. 저는 이 문제에 통산성 무역국장에 있었을 때부터 제기된 문제였습니다. 일본측의 흑자가 너무 크지 않나 하는 문제인데요. 최근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액정 디스플레이라든지 디스플레이 판넬이라든지 DLM(Dynamic Load Management)이라든지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되신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투자하는 쪽이 더 고객 지향적으로 또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를 해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본기업 일부에서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출에 대체해서 핵심 부품을 한국 내에서 생산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또 본격화되면요. 수요가 일정한 경우에는 한국의 대일 수입도 줄어들 것이라 기대됩니다. 삼성과 소니의 합작사례 등에 대한 말씀도 있었지만요. 미쓰비시 레이온과 호남석유화학 M&A 합작회사를 작년에 설립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점점 본격화되면 일본으로부터 수출을 대신해서 한국내 국내 판매로 전환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또 투자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중복되므로 일본의 대한투자는 생략하겠습니다. 한국의 대일투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대외직접투자는 184억 달러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거의 2배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매우 축하할 일인데요. 그 중에 대일투자 비율은 불과 1.6%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래 일본도 대내 직접 투자에 수용증가를 일본국가의 정책으로 삼고 있으므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일본을 제외하면은 OECD 가입국인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를 대환영하고 싶습니다. 일본의 전 세계 차지하는 시한은 1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 1.6% 정도가 아니라 일본의 세계투자제한의 비율에 근접한 비율을 한국 분들에게서 대일투자를 해주시면 어떨까합니다. 대일투자를 하시면 거기에 함께 일본의 대한수출도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서로 기대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많은 일본의 대한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한일양국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안고 있는 공통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출산화 문제입니다. 고령화 문제도 연결이 되고 있지만 일단 저출산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특수 출생률이 2006년 1.29가 되었습니다. 제작년 1.25에 비해서는 하방 경직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아서 제작년 1.08이 1.01정도로 떨어졌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도 아동수당이라든지 사무실 내 탁아소 증설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5개년 계획을 세워서서 32조원을 투자하는 저출산 종합대책 이런 것을 전개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제 친구가 결혼을 한 젊은 부부가 기꺼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그들이 근무하는 기업의 공동책임이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일정 이상의 규모의 기업들은 종업원의 자녀 수 및 그 자녀 수 대 종업원 비율을 임의로 공표하는 제도를 마련하면 어떤가 이런 걸 제창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이 높은 기업은 사내에 출산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한 기업으로서 사회적으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신문보도에 의하면 손 사장님께서 계시는 소프트뱅크가 이번 달 초부터 근로자를 위한 출산 장려금을 발본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셋째 아이가 나오면 100만 엔, 네 번째 아이가 태어나면 300만 엔, 다섯 번째 이상은 1인당 500만 엔씩, 출산 축하금·장려금으로써 지불한다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기업이 경쟁적으로 사내의 출산·육아제도를 개선하게 되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공통과제는 양극화문제입니다. 일본에서는 격차문제라고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양극화문제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현재 정치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도 개인도 경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격차를 더욱 더 벌리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격차를 벌리려고 하는 노력을 부정하는 것은 경쟁을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본래 평등을 원하는 공산국가인 중국 체제 이는 중국도 등소평이 먼저 풍요로워질 수 있는 자는 먼저 풍요로워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풍요로워진 사람과 나중에 풍요로워지는 사람 사이에

는 격차가 있습니다. 공산권 제도에서도 그런 것을 인정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어느 정도 자본주의 사회인 한국과 일본에서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사회 격차의 크기를 얘기하는 지니계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낮을수록 격차가 좋습니다. 0.265입니다.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한국은 0.31정도, 일본과 독일에 비해서는 약간 많습디다만, 그래도 미국이나 캐나다보다는 적습니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90년 저성장 시대에 고용 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파트타임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타임 근로자는 비정규직이라고 분리가 됩니다. 이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임금격차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파트타임 근로자에는 정규사원과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정한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속칭 파트노동법을 이번 국회에 제출을 해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고용자 가운데 파트 타임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26%까지 달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7.7%로 매우 낮아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공통과제는 지구 환경 문제입니다. 지구 환경 문제는 아시다시피 21세기를 살아 나갈 우리 인류의 똑같은 주어진 커다란 과제입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에서 OECD에 가입한 오로지 두 나라로서 적절한 감축의무를 부담을 해야 하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또 CO2의 감축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2004년 일본의 CO2 배출량 대(對)세계비율은 일본이 CO2를 배출하고 있는 양을 전 세계의 CO2 배출량으로 나누는데요. 그 세계대비는 4.6%였습니다. 일본의 GDP 비율은

2004년 GDP 세계 대비는 11.1%였습니다. 이 CO2는 4.6%만 배출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랑하는 것 같아서 황송합니다만, 일본의 에너지 사용 효율이 대단히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교토의정서의 회원국입니다. 그리고 CO2등의 감축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한편 2004년 한국의 CO2 배출량 對세계 비율은 1.7%였습니다. GDP는 한국은 1.6%입니다. 안타깝게도 약간이긴 합니다만 CO2 배출 對세계기준이 조금 더 큼니다. GDP 비율 보지요. 따라서 CO2 배출량이 GDP 對세계비율을 상회하고 있는 것은 주요국가 중에서는 한국 외에는 중국, 인도, 그리고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드린 세 나라는 OECD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교토의정서 회원국이지만 CO2 등의 감축의무를 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향후 에너지절약 등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협력을 한일이 함께 추진함으로써 한국도 13년 이후에 2013년 이후에 포스트 교토의정서 계획에 따르면 그때에는 감축의무를 지시고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헌해주시실 것을 바라며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부터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일본에 왔습니다. 중국도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지만 2013년 이후에 이 감축의무를 지는 방면으로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추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국 쪽도 나가주시면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중국과 인도 대두에 따른 대응입니다. 먼저 일본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으로부터 저가격 수입품이 수입되어 예를 들어 공장을 폐쇄한다거나, 임금삭감 압력을 받는 경우도 적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 인식으로 볼 때 역시 일본과 같은 경우는 특히 중국으로

부터의 저렴한 가격의 수입덕분에 인플레이 없이 최근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9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미국의 인플레이 없는 경제성장은 서비스는 인도에서, 제품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Think-Tank와 공동 연구를 했는데요. 중국과 인도의 대두, 그리고 일본과 미국의 관계인데 중국과 인도의 대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고도 경제 성장 자체는 위협이 아니다 위협은 오히려 그들의 경제정체다. 만약에 중국과 인도의 경제 성장이 정체되면 그것이 더 위협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과 인도의 우수한 부분을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경제 속에 도입을 하고 취합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인도의 아웃소싱은 현재로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점점 늘려서 그리고 그들의 성장력을 자국의 성장력에도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공동과제입니다. 이것은 글로벌화에 따른 대응인데요. 먼저 한미 FTA에 대해서입니다. 작년 2월 이후 협상이 지속되었던 한미 FTA가 지난 주 초에 합의에 이르게 된 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미 FTA는 한국경제, 한미관계뿐만 아니라 한일경제관계, 그리고 미국과 동아시아의 관계 등등에 헤아릴 수 없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획기적인 FTA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제조업의 대한투자자로 인해서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미 FTA로 한국에서 대미수출을 하게 되면 무관세인데 반해 일본에서 대미수출을 하면 평균 4%내외의 관세가 부과되므로 일본기업들은 대미 혹은 대한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리고 한미관계가 이 FTA 타결로 인해서 극적으로 개선 될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 으로부터 농산물 등에 대한 수출이 증가 하는 등의 경제관계뿐만 아니라 FTA라는 유대관계가 형성됨으로써 한미의 정치적 관계도 강화될 것입니다. 한미 FTA가 동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체결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 봅니다.

이것이 한일 FTA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칠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역시 한 미 FTA를 하나의 기폭제로 삼아서 한일 FTA를 거듭 추진하도록 먼저 경제계 분 들이 서로 자국의 정부에 압력을 가할 필 요가 있습니다. 협상 체계를 위해서요 이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계분 들이 한미 자유무역 협정의 내용을 같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한일 FTA에 응용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서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요? 한일 FTA는 여러 분 기억을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98년에 당초 한국이 일본측에게 제안을 해서 연 구·공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 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98년 11월말 당시 의 한일경제각료회의가 가고시마에서 개 최되었습니다. 한국의 산자부 장관은 당 시에는 한덕수 현재 국무총리님이셨습니 다. 이분이 처음에 제창을 하셔서 한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습 니다. 한국의 그러한 주도력에 이니셔티브(Initiative)에 저는 깊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회를 과연 누가 할 것 인지, 저는 당시 JETRO 이사장이였는데 요. JETRO에 있는 아시아경제연구소라는 곳과 또 한국의 KIEP(대외경제정책연구 원) 이 두 군데가 주축이 되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2000년 5월 정도에 보 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제1차 연구 회였습니다. 제2차 연구회도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지만 제3차 연구회도 있었습니다. 즉, 한일 경제계에 계신 분들 은 한일 FTA에 대한 연구회를 너무 많이 해서 지금 지쳐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미 FTA도 이렇게 타결이 됐으니까 이 것을 하나의 기폭제로 삼아 또 이것을 하 나의 연구 재료로 삼아서 한일 FTA 협상 재개도 연결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중·일 FTA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중·일 투자협정은 최근의 정 상차원에서 이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사실 한일 간에는 고도의 투자협정이 있 었습니다. 한일 간에는 더 투자협정을 마 련할 필요는 없는데요. 일본과 중국, 그리 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고도의 투자 협정이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한 건 에 대해서 이것을 수용할 때 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초보적인 투자협정 은 서로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 투자를 해오는 외국기업에 내국민대우 등 을 인정한 그러한 고도의 투자협정이 일 본과 중국,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없었습 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정할 필요가 있습 니다.

글로벌화 마지막인데요. 동아시아 FTA 와 한일관계입니다. 동아시아 FTA에 관 해서는 두 가지 구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EAFTA(East Asia Free Trade Area : 동 아시아자유무역지대)입니다. 이것은 ASEAN+3, 한·중·일입니다. 이 13개국의 전문가그룹이 정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구요. 또 한 가지는 일본이 제안한 ASEAN+6, ASEAN+3에 호주와 뉴질랜 드, 인도를 더한 ASEAN+6를 제안한 것 이 있습니다. ASEAN+3는 연구회 보고서 가 지난번 완성이 됐는데요. 좌장은 중국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ASEAN+3는 맨 처음에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ASEAN+3라는 하나의 틀을 만드셨습니

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은 일본이 제안한 ASEAN+6에 대해서 그다지 호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ASEAN+3가 좋은 건지 ASEAN+6가 좋은 것인지, 또 사실 미국이 이 어느 것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APEC으로 FTA를 하면 어떠냐, APEC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물론 한·중·일, 대만, 러시아까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SEAN 10개국 중에 7개국이 APEC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APEC 중심으로 FTA를 마련하면 어떠냐 라고 미국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ASEAN 국가에는 현재 지금 아시아지역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ASEAN+3, ASEAN+6, 그리고 APEC FTA, 그 3가지 FTA 구상이 있는데 이 중에 무엇이 좋은지, 순서대로 연구하고 공부해 나갈 시간적 여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동시에 연구를 시작하여 조속히 결론에 달한 것을 기본 틀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번에 한미 FTA는 지금 말씀드린 연구, 동아시아 FTA의 연구를 가속화시킨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도 한일 경제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앞으로의 논의시간에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飯島 英胤 團長 : 하타케야마 회장님 감사합니다. 대단히 유익하고 다양한 내용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타케야마 회장의 말씀과 또 방금 전에 해주신 김상하 회장의 말씀은 내일 세션1과 세션2 논의가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석래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趙錫來 會長 :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

으로 기조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3. 經過報告

趙錫來 團長 : 계속해서 경과보고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과보고는 일반경과보고 및 한일산업무역회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해 5월에 삿포로(札幌)에서 개최된 제38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실시상황 및 이와 관련된 양국 간의 협력사업 등에 대해서 한국측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보고 부탁드립니다.

(1) 一般經過報告

(社)韓日經濟協會 專務理事 許南整
(社)日韓經濟協會 專務理事 武澤泰

한일경제협회 전무이사 허남정입니다. 양측 사무국을 대표해서 일반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일본 삿포로(札幌)에서 개최된 제38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실시상황 및 이와 관련된 양국 간의 협력 사업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회의의 산하 전문위원회인 「한일산업무역회의」개최 결과에 대해서는 양측 대표로부터 별도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본 일반경과보고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일비즈니스상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측은 한일경제협회가, 일본측은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일한경제협회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작년에는 감시 장비,

정보보호 솔루션, 반도체제조장비 및 부품을 중심으로 2회에 걸쳐 일본 도쿄에 있는 빅사이트전시장과 치바시에 있는 마쿠하리멧세 전시장에서 국내 중견중소기업 25개사와 일본기업 66개사가 134건의 1:1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서 수출입, 기술 제휴 등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교류확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한편, 금년부터는 10월에 일본 JETRO가 주최하는 JETRO CEATEC JAPAN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형태로 한일비즈니스상담회를 운영해 가고자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한일 양국 산업기술협력재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일 양국 간의 산업·기술협력을 통해 경제적 현안인 대일무역 불균형을 개선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서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의 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2년 양국 정부 간의 합의로 설립된 산업기술협력재단은 양국 정부 그리고 경제단체 및 기업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가 속에서 광범위한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일 양국 재단은 공동으로 산업기술 인재육성, 생산성 향상 성과보급, 부품소재산업협력, 지역 간 산업협력, 조사홍보 사업 등 폭넓은 사업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한일 양국 간의 산업기술협력 사업은 한국의 중견·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양국 산업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 중소기업 간의 상호 보완 관계의 구축에 힘을 쏟고 한일 양국 간의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 한일청소년교류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니다.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적교류의 활성화, 특히 차세대를 짚어질 청소년들의 풀뿌리 교류의 추진이며, 이를 위해서는 그 중심이 되는 청소년들의 교류를 한층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2004년 1월부터 『한일고교생교류캠프』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8회의 캠프에 760여명의 한일고교생들이 참가하여 상호 교류를 통해서 돈독한 우정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한일고교생교류캠프는 양국 고교생들이 혼성팀을 이루어 양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연구를 거듭하여 발표하는 체험 캠프입니다. 참가 학생은 물론이거니와 참관한 내외賓들로부터도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본 캠프를 통해서 양국 고교생들이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어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공동 작업을 추진해 나가는 동안 선입관에 사로잡히지 않고 상대국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쌓으며, 우정을 싹틔워 가는 모습을 저희들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 6월에는 캠프 참가 학생들이 지속적인 교류와 발전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OB회를 발족시켰으며 스터디 및 토론회 등의 활동을 통해서 끈끈한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캠프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착실하게 『감동의 고리』를 넓혀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나라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한일관계의 차세대를 짚어질 청소년들의 교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 상호보완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일 양국 간의 부품·소재산업의 협력 촉진을 위한 정보의 교류 및 한일 기업

간 상호보완을 목적으로 한 『한일 중소기업 세미나·상담회』를 작년 6월과 10월에 도쿄(東京) 및 서울에서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한국 기업 79개사, 일본 기업 64개사가 참가하여 201건의 상담 회를 실시하였으며, 무역확대는 물론이거니와 양국 기업 간 기술 제휴 및 공동 연구를 통한 기술력 향상과 신제품개발, 위탁 생산을 통한 기술 교류 등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추진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KOTRA,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등 6개 기관이 공동개최하고, 향후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충실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상담 회는 7월에 도쿄(東京)에서, 그리고 10월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趙錫來 團長 : 허남정 전무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작년 11월에 한국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8회 한일산업무역회의 보고와 제안에 대해서 동 회의 한국측 Chairman을 맡고 계신 한국무역협회 유창무 상임부회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본측의 Chairman을 맡고 계시는 아소 유타카 Aso LAFARGE CEMENT 사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2) 韓日産業貿易會議 報告 및 提案

柳 昌 茂

(社)韓國貿易協會 常勤
副會長



방금 소개받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유창무입니다. 제39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8회 한일산업무역회의 결과와 산업무역회의 개편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일산업무역회의는 기존의 한일경제인회의 산하 3개 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보다 높은 차원의 인식 공유와 합의 형성을 지향하고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1999년에 발족된 이래 작년까지 총 8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제8회 회의에는 일본측에서 아소 유타카 체어맨, 시미즈 코이치로 코디네이터를 비롯한 31분이 참석하셨고, 한국측에서는 저와 삼성물산의 이수철 코디네이터 등 36분의 기업인이 각각 참석하였습니다. 「저출산시대의 도래와 기업경영」, 「한국의 투자환경과 한일합작사례」, 그리고 향후 본 회의의 운영개선방안을 주제로 해서 이틀간에 걸쳐 활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첫날 제 1세션에서는 한일미래의 공통과제로서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기업의 대응」, 또 「인구감소사회와 기업경영」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향후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의한 생산성 위기, 소비와 투자의 위축, 성장률 감소와 사회갈등 현상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업의 대응과제로 이민자 고용 확대 및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장려, 또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 등의 고령인력 활용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 도시바의 사례를 통해서 기업의 대응전략도 살펴볼 수 있었으며, 회의 참가자들로부터 제 3세대 공존 대책, 또 IT가 접목된 보육 시설의 확충 등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튿날 제 2세션에서는 「한국의 투자환경과 한일합작사례」를 주제로 한국의 경제현황과 투자환경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한일합작기업인 한국텔라글라스는 기술이전 및 투자에 대한 신속·과감한 의사결정 또 제조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우수 기업과의 만남, 또 주주·회사 간 깊은 신뢰와 협력이 가장 큰 성공 요인이 되었다는 내용의 사례 발표를 해 주셨는데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이상적인 협력 모델로서 참가자 모두에게 큰 공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또 한국요코가와전기에서는 대한 투자 경험사례 발표를 통해 일본 본사에 문화적 차이를 주지시키고 현지인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최고 책임자의 입장에서 본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매사를 일본의 잣대로만 판단하지 말 것 등을 조언해 주셨습니다.

특히, 지난 제8회 회의에서는 한일산업무역회의의 운영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회의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ask Force팀을 구성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니다.

양측에서 각각 3명씩 참여한 Task Force팀을 구성했고 3차례에 걸친 Task Force팀 회의와 2차례의 걸친 Chairman 회의를 거쳐서 한일산업무역회의의 개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한일산업무역회의 명칭을 한일신산업무역회의로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신산업무역회의는 지금과 같이 한일경제인회의 산하에 있으면서 양국 간의 공통 관심사를 논의하는 협의체로 실천적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정보·의견교환을 통한 인식공유 등을 목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양국 기업 간 교류협력도 적극 추진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4가지의 미션으로써 첫째, 한일 간 무역확대 또 한일 간의 투자확대 또 한일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 한일 산업경쟁력강화 프로젝트에 대해서 활발한 정보교환과 논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위원구성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측은 대기업을, 일본측은 중견·중소기업의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회의내용의 충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무국에 기획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토의주제 선정과 제언내용의 조정기능을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제별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회의에서의 제안된 문제해결에 대한 의견서는 경제인회의에 제출·보고하고, 이를 통하여 정부와 업계 등에 건의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회의 기간도 2일에서 1일간으로 단축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절약되는 예산을 조사연구 활동에 지원키로 하고, 이러한 새로운 회의 운영방식은 금년 회의부터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금년 11월에 일본에서 개최될 신산업무역회의에서는 「소자녀시대에 있어서의 기업경영」과 「대중소기업간 협력방안」 등을 테마로 상정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아울러 금번 경제인회의에서 발표, 제안된 내용 가운데 제언을 위해 보다 심층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신산업무역회의에서 적극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개선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새롭게 탄생하는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 대해 많은 관심과 관심을 갖고 성원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개선방향에 대해 저와 함께 본 산업무역회의 일본측 체어맨을 맡고 계시는 아소 유타카 ASO LAFARGE CEMENT 사장님께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趙錫來 團長 : 유창무 부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아소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麻生 泰
(ASO Yutaka)
麻生LAFARGE
CEMENT(株) 社長



신산업무역회의에 관하여 유창무 체어맨의 제언을 보충하는 형식으로 일본측에서 운영사항, '07년 회의개요, 여러분께 드리는 요청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소 실무적인 내용이므로 배포해 드린 자료 11페이지 이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운영추진체제에 대해서입니다만, 신회의 목적으로 정부 등에 대한

제언을 추가한 것과 함께 체제도 강화하였습니다.

우선 신산업무역회의 개최는 기존처럼 매년 가을 개최를 기본으로 하되 주제 수 및 제언 내용의 검토 상황에 따라 한일합동 또는 각국 단독 개최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무국 간에서 4분기마다 기획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제 선정과 제언안 조정,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해 조정 및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매년 2~3개의 주제별 전문위원회를 마련하여 각 주제에 대해 애로사항 추출 및 문제제기를 하여 해결을 위한 제언 안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문제해결에 적합한 인재를 구성원으로 맞이하여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전문위원회는 주제에 따라 한일합동 또는 단독으로 설치됩니다. 다음으로 문제 해결 및 제언 업무의 과정입니다. 기획운영위원회에서 주제에 대해 회원 여러분의 의견도 수렴하여 매년 봄 개최되는 경제인회의에서 보고 및 결정합니다.

아울러 경제인회의의 보고 의제에서 문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도 제언 주제로 추가하겠습니다. 주제가 결정된 후에는 전문위원회에서 애로사항 추출, 문제 제기하여 제언 안을 검토 및 작성하게 됩니다. 그 제언 안에 대해 기획운영위원회에서 조정된 후 신회의에서 제언 안에 대한 보고와 논의를 합니다.

신회의 논의 결과를 담은 제언내용을 다음 해 봄에 열리는 경제인회의에서 제언의견서로서 보고합니다. 그리고 경제인회의에서 정부 등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제언 제출 후에는 사후처리, 응답, 완료 보고로서 종료하게 되며 이상의 주기가 업무의 전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업무과정을 연간으로 보면 기

본적으로 1년간의 업무 주기를 매년 되풀이 실시하게 됩니다. 우선 3~5월경에 그해의 주제를 선정하여 경제인회의에서 결정합니다. 5월 이후에 주제별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제언 안 검토 및 작성을 실시합니다.

가을에 개최되는 신회의에서는 주제별 제언 안에 대한 논의를 하며 이에 따라 제언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이듬해 5월의 경제인회의에서 당해 연도 주제 제언을 보고합니다. 이상이 주제 선정에서 주제 제언에 이르기까지의 연간활동입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신산업무역회의 개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개최 시기는 예년과 같이 11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일본이 개최할 차례이며 수도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 시간은 참가자 분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의 2일간 개최를 1일 개최로 단축하였으나 전체 회의시간은 종전과 큰 차이 없으며 논의시간도 확보하였습니다.

회의 제언 주제 안에 대해서는 ①저출산화시대와 향후의 기업경영, ②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방안의 두 가지 주제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5월까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리셉션은 회의 전날 밤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신회의와 관련하여 회원 여러분께 요청 말씀이 있습니다. 회의 활성화와 제언 활동을 목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제, 회의내용, 그리고 참가자 등 3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먼저 제언 주제의 발굴에 대해서입니다만, 추후에 사무국이 회의 미션에 따른 구체적 문제, 의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많은 협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회의 참여에 대해서입니다만, 앞으로도 추진 가능한 회원을 환영하므로 적극적이며 전향적인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립니다. 전문위원회에서의 주제 제언 노력 등에 대해서도 함께 협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에 관한 요청사항입니다만, 일본측 회원은 기존까지 대기업 중심이었으나 협회 방침에 따라 이를 중장기적으로 시정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참가자도 중견기업 분들을 단계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므로 회원 여러분들께서 추천 및 소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국에서도 대기업 중견간부들의 참가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중견간부 육성 및 일본 기업과의 인적교류도 실현 가능하므로 이곳에 참석하신 기업들의 참여 및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신산업무역회의에 대한 양국 보고와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유창무 체어맨, 한일경제협회 및 한국무역협회 사무국 분들께 이번 재검토와 관련하여 협조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유창무 체어맨과 3월 16일 회의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렀을 때 서로 확인한 것은 이번 재검토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회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공통 인식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신회의의 거듭난 출발에 미스매칭은 없다고 확신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참석하신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신회의를 구체적이며 문제대응 가능한 회의로 변모시켜 전향적이며 부가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나갈 생각이므로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趙錫來 團長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양 사무국에서 경과보고와 신산업무역회의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시다만, 여기에 대해

서 특별한 의견이 계시거나 어떤 제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지요?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활동보고 및 신산업무역회의에 대한 제안에 대해 이의 없이 승인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여러분에게 안내가 있겠습니다.

司會 :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단장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두 분 단장님께 뜨거운 박수로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후 일정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6시 30분부터 한일 양국 경제협회 공동주최로 리셉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장과 옆방을 합친 크리스탈 볼룸 I·II에서 개최되오니 단원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셉션 식전 행사로 숙명여대가야금연주단과 라스트포원 비보이의 역동적인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폭발적인 젊음의 피를 느낄 수 있는 공연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시 20분까지 입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환담을 나누실 수 있도록 로비에 칵테일 바를 준비했습니다. 드시면서 잠시 대기하셨다가 입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내일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지금까지의 분과(分科)의 방식이 아니라 전체회의 형식의 패널 디스커션(Panel Discussion : 배심토의)으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내일 오전에 1세션, 오후에 2세션 그리고 폐회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9시부터 개최되는 제1 세션에서는 『동아시아의 부상과 한일 협력 강화』라는 테마, 오후 2세션에서는 『한일 양국의 협력과제와 대응방안』이라는 테마로 이 곳 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그리고 양국 산업기술협력재단의 위원님들께서는 아침 7시반부터 42층 버클리 스위트에서 조찬을 겸한 연락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으로 참석해 주신 대영산업기술주식회사의 김덕길 회장님이 최근 편찬하신 『어머니』라는 책을 여러분께 한 권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만, 한빛코리아의 김수남 사장님이 황토와 홍삼 비누를 한 세트씩 해서 300세트를 지원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다가 하나씩 받아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趙錫來 團長 :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司會 : 6시 30분에 이 장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4. SESSION I

議題 : 『東아시아의 浮上과 韓日協力 強化』

司會【許南整 (社)韓日經濟協會 專務理事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專務理事, 以下同一】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皆さん、おはようございます。오늘 진행을 맡을 한일경제협회 전무이사 허남정입니다. 여러분 어제 부산에서의 밤은 어떠했습니까? 첫날밤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드시고 편안한 잠을 주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리셉션에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폭발적이고 역동적인 힘을 상기하면서 오늘 힘차게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다시 큰 박수 한번 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 1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단상에 계신 여러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경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 1세션 회의 좌장을 맡아주실 양수길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양수길 원장님은 서울대학교를 거쳐 미국 존스홉스킨스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1980년대 초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재직하시면서 전면적 수입자유화 및 8% 관세율 인하를 주장하셔서 한국의 경제 개방화정책에 불을 지핀 경제전문가이십니다. 양 박사님은 1980~90년대 여러 가지 정부 및 대통령 자문기구에 참여하셨고, 특히 90년대 후반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과 주OECD 대사를 역임하시고 현 정부 초기에는 대통령주재 정책심의기구인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민간 Think Tank인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과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주제발표 및 토론을 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양측 발표자는 시간관계상 직책과 성함만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중앙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덕성여자대학교 이사장으로 계신 이종훈 박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대학교 손찬현 교수님이십니다. 김정원 삼성경제연구소 전무이사 글로벌연구실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본측 발표자 및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와세다 대학 우라타 슈지로 교수님이십니다. 히라쓰카 다이스께 JETRO아시아경제연구소 개발연구센터장이십니다. 가도와키 히데하루 일본종합연구소 이사장님 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시간 이후의 진행을 양수길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座長 人事

楊 秀 吉
國家經營戰略研究院
院長



허전무님, 소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엄청난 자리에 앉아서 사회를 볼 수 있도록 저를 초대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를 드리고 이 기회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허전무께서 저를 소개하시면서 80년대 초에 관세율 8% 인하를 주장했다고 그러셨는데 조금 뉘앙스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제가 82년에 우리 전면적인 수입자유화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관세를 8%를 중심으로 하는 단일 관세율 8%안을 주장해 가지고 굉장히 그 당시에 국내적으로 시장개방화와 관세개편에 관한 토론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결과 정부에서 8%관세율안을 8%중심세역이다, 해가지고 그 제품의 관세율을 다 8% 중심으로 모으는 그런 작업을 해서 지금도 그 제품의 관세율수를 보면 8% 수준의 위아래로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상호 상견례 차원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오후의 목적은 말하자면 본격적인 의견교환과 토론을 해서 끝에 가서는 공통된 의견을 모아서 결론으로 채택하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오전 세션의 주제는 「동아시아 시대를 맞이해서 한국과 일본 양국이 어떻게 협력을 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개막프로그램 때 양측 단장님, 두 내빈 분께서 인사말씀과 축사를 통해서, 그리고 김상하 회장님, 하타케야마 회장님 두 분의 기조연설을 통해서 오늘 토론

의 기초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아시아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것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것이고 특히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번영도 두 나라의 협력에 의하여 크게 좌우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의 요지를 말씀해주셨고 그리고 이런 한일협력의 기본적인 요소로 한일 FTA를 우리가 조속히 체결을 해야 한다. 이런 요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일 양국 간의 협력과제로서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는 「한일 FTA의 추진」인데 이미 그동안에 추진되었다가 중단돼 **한일 FTA를 어떻게 하면 조속히 재개해서 협상을 추진하고 완성할 것이냐, 거기에 따른 장애물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이나**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오늘 토론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들을 모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의 중점은 오전에는 특히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해 둘 것이고 그런 토론과정에서 한일 FTA를 과연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 이유 자체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그러한 토론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분의 주제 발표자 양측에서 세 분의 가장 권위 있는 학자들을 모셨습니다. 아까 잠깐 소개 말씀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한국측의 이종훈 덕성여대 이사장님은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을 위한 한일협력과제」에 관하여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이 이사장님은 79년부터 중앙대학교에서부터 교수로서 재직하시면서 2001년에는 총장까지 역임을 하신 그런 우리나라의 저명한 원로 경제학자이십니다.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말하자면 일본통이기도 하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강원대학교 손찬현 교수는 「한일 FTA 추진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한국의 중진무역

문제의 전문가로서 한국무역협회 연구실 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무역정책을 연구하고 지금은 강원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Case Western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일본 요코하마대학교 객원 교수를 역임하셨고 한일 FTA, 한일공동연구회, 한국측 연구 책임자로 임무를 수행하시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실 김경원 삼성경제연구소의 글로벌 연구실장은 중국의 새로운 외국인 투자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중국에 새로운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써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Wisconsin 대학교에서 MBA를 받고 콜롬비아대학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고 삼성증권 연구실장,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와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측에서도 세 분을 모셨는데 먼저 말씀하실 우라타 슈지로 와세다 대학교 교수는 「한일 FTA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실 것이고 이분은 게이오대학교를 졸업해서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미국의 저명한 연구소인 브루킹스, 월드뱅크(세계은행)등의 Economist로서도 재임하셨고 이 아태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무역정책, 특히 FTA 연구 전문가의 한 분이시고 저하고 이력저력 1년에 한 두 번씩 이런 회의 자리에서 만나는데 오늘도 다시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JETRO아시아경제연구소의 APEC 연구센터장 히라쓰카 다이스께씨는 「동아시아경제통합 로드맵」이란 주제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요코하마시립대학교(横浜市立大)를 졸업하시고 79년에 아시아경제연구소에 입소하셨고 지금 현재 리츠메이칸대학교(立命館大) 객

원교수를 겸직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일본종합연구소에 가도와키 히데하루 이사장님은 「한일 FTA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하실 것이고 동경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시고 68년에 미즈이(三井)은행에 입행하시고 96년에는 주식회사 사쿠라에 입행을 하셔서 전무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는 미즈이스미토모(三井住友)은행으로 옮기셔서 전무에서부터 부사장까지 재직을 하신 분이시고 2004년 이후에 현재 연구소에서 이사장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 사실은 김상하 회장님하고 하타케 야마 두 회장님의 기조연설 자체가 사실은 오늘의 주제 발표의 첫, 두 부분이라고 간주하셔도 되겠습니다. 귀중한 내용 등이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나중에 혹시 다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지금 소개드린 여섯 분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제가 듣기에 일본측에서 좌장을 한국사람 하나만 해서 뭔가 좀 불안하다 이런 표시가 있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정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저희 이름이 양수길인데요, 히데요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만, 이름 요는 중국성이고 이름 히데요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히데요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이익을 초월해서 동북아 이익을 항상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좌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같이 시간이 굉장히 제약된 그런 상태에서는 그래서 저로써 오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시간사용을 철저히 통제하는 게 되겠습니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 발

표자 여섯 분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시간을 좀 엄수해서 각자 15분 내로 꼭 끝내주시고 15분을 채우지 못하시면 제가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그리고 혹시 시간초월하실까봐 앞에서 말씀을 시작하시고 12분이 되면 3분이다 라는 표시를 저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부터 좀 정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순서는 프로그램이 나온 대로 한국측 발표 세 분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일본측 발표 세 분을 듣고, 그리고 20분간 Coffee Break을 가진 다음에 40분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대개 학자들이 단상에 서서 말을 시작하면 기업인들이 하품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부분이 기업인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학자로서의 한계를 좀 벗어나서 좀 재미있게 그리고 시간 내에 요점 위주로 결론 위주로 그리고 무엇이 쟁점이다 정리해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일 먼저 이 중훈 이사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2) 韓國側 主題發表

① 『東아시아共同體 實現을 위한 韓日 協力』

李 鍾 燾

德成女子大學校 理事長



방금 소개 받은 이종훈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을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입니다. 4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세계경제의 변화와 동아시아, 두 번째는 동아시아 공동체와 한·중·일 경제협력, 그리고 세 번째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의 전략, 그리고 네 번째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와 한일 협력의 중요성,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자께서 15분이라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15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문은 한 40분정도의 내용입니다만, 참고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론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라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지역이 넓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공동체라 그래서 어떤 공동체인지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지역적인 범위, 내용과 방향, 방법과 전략으로 요약해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적인 범위는 동아시아 공동체보다는 동북아시아 공동체를 먼저 만들자, 동북아시아 공동체보다는 한일 간에 먼저 공동체를 한 번 만들어보자, 이러한 지역적인 3단계 순서를 말씀을 드리고 내용과 방향에 있어서도 막연하게 공동체라고 하면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 경제 공동체부터 하자, 그리고 경제 공동체 하기 전에 에너지 공동체부터 하

자, 이것은 EU가 시작된 지 지금 50년이 됐습니다만, 석탄·철강 공동체로부터 50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동아시아에는 유럽의 50년 전부터 다시 한 번 시작을 해서 에너지 공동체부터 하자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방법과 전략에 있어서는 일본이 한 번 적극적으로 한 번 나와 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북아시아 역사적인 책임의식이기 때문에 일본이 술선수범을 한 번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과 전략은 외환 보유고를 좀 활용을 해서 IMF에 대응할 수 있는 AMF(Asian Monetary Fund : 아시아 통화기금)를 한 번 만들어보자 이 AMF를 통해서 경제공동체를 우선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공동체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소프트웨어 분야로써 문화라든가 과학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한 번 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한일경제공동체 그것도 한일 간의 에너지 공동체를 만듭으로써 동아시아의 공동체 실현을 위한 한일 간의 역할과 그 중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4가지 순서로 시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세기는 미국시대라고 그러합니다. 1900년서부터 2000년까지 100년 동안에 지구상에 불경기가 62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전쟁이 2번 일어났고 1929년에 세계공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시대를 반기를 했습니다마는 20세기는 바로 미국시대가 된 겁니다. 그것은 1900년에 GDP가 1180억 달러에서부터 2000년에는 10조 2000억 달러로 100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20세기는 오늘도 바로 미국시대입니

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인 석학들 헌팅톤 교수(S. P. Huntington) 교수라든가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교수는 **21세기는 미국시대가 아니고 중국시대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전제로 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바야흐로 중국은 과거 25년 동안 평균 GDP 성장률이 9.3%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국은 3.2%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25년 동안 중국은 미국의 3배의 경제성장을 달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학자는 지금도 미국보다도 중국이 100년이 뒤떨어졌다고 그럽니다. 이 100년을 따라가는 데는 약 35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미국보다도 앞으로 30여 년 동안 GDP가 3배나 성장하게 되면 앞으로 2050년 안에 미국보다도 중국이 GDP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바야흐로 21세기는 중국시대 즉 동아시아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외환보유고에 있어서 작년부터 중국이 세계 제일로 1조 600억 달러 그리고 일본이 8750억 달러, 그리고 한국이 2650억 달러 그래서 이미 외환보유고가 한·중·일 3국이 2조 달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한·중·일 3국에 대미무역적자가 2130억 달러가 됩니다.

이와 같이 무역에 있어서나 외환보유고에 있어서나 이미 미국시대가 아니고 태평양 시대도 아니고 이미 아시아에 상륙을 해서 동북아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1세기의 관한 새로운 세계경제의 틀 속에서 과연 한일 간의 또는 한중간의 동아시아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최근의 세계 경

제를 이렇게 결론을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원론으로는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세계 경제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무역적자만 하더라도 7천억 달러에 가깝습니다. 재정적자가 4천억 달러에 가깝습니다. 물론 경상수지 적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매년 1조 달러 이상의 돈을 미국이 밖으로 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세계 경제는 달러 인플레이시 시대다.

이 달러 인플레이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가 그렇게 파국으로 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세계 공장인 중국이 값 싼 공산품을 세계에 지금 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인플레이를 수출하고 있고 중국이 디플레이를 수출해서 조화와 갈등 속에서 세계 경제가 움직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물가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 일본의 마이너스 물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한국이 단군 이래의 물가가 안정이 되어 있는 것이 국내적인 사정도 있습니다만, 바로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서 값 싼 물건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양복이라든가 와이셔츠라든가 내의 전부 중국제입니다. 일본에 가서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가서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인플레이를 수출하고 중국은 디플레이를 수출하는 속에서 새로운 21세기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세계 경제 속에서 WTO 등을 중심으로 한 세계화의 바람과 EU라든가 NAFTA라든가 하는 지역 바람이 세계 경제의 양 날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대륙에서는 이미 이러한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한·중·일 삼국의 협력관계를 보게 되면 먼저 한일관계는 20세기가 시작하자마자 적대관계에 있습니다. 1965년 한일국제정상화로 해서 보완관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쟁관계입니다. 이 경쟁관계가 다시 격화되면 대립관계가 될 것입니다. 즉, 적대관계, 보완관계, 경쟁관계, 대립관계, 한중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세월동안 적대관계였습니다. 공산국가였기 때문에. 그러나 1992년 한중국제정상화를 통해서 보완관계로 왔습니다. 그러나 15년밖에 안됐는데 지금 한중관계는 경쟁관계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오히려 대립관계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중관계도 1894년 청일전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적대관계였습니다. 1972년 일중국교정상화를 통해서 보완관계인데 지금은 보완관계가 아니고 일본과 중국도 경쟁관계로 봅니다. 이 경쟁관계가 대립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한·중·일 삼국은 경쟁관계에서 대립관계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FTA가 됐든 경제공동체가 됐든 새로운 지역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전략에 있어서는 저는 먼저 경제공동화의 전략으로써는 지금까지는 태평양 경제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국이나 일본도 태평양 경제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야흐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대륙 경제가 지금 점점과 출발점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50년 동안 동남풍의 지정학적 전략이라고 봅니다. 50년 동안 일본과 미국만 바라보고 일본도 마찬 가지입니

다. 동남풍의 지정학적인 전략에 의한 태평양경제 속에 속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즉, 서북풍의 지정학적 경제입니다. 지정학적 전략을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한일의 과제이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동남풍의 과거 50년 동안의 지정학적 전략 +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서북풍의 지정학적 전략을 합쳐가지고 아시아 시대를 만들기 위한 경제공동체부터 하자는 겁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태평양 경제를 아시아 경제로 연결시켜 가지고 유럽대륙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21세기의 실크로드를 만드는 것이 아시아의 공동체, 구체적으로 동북아시아의 경제공동체,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일 간의 에너지 협력으로부터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21세기의 실크로드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에너지부터 시작하자는 뜻입니다.

결론에 도달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석유매장량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11번째입니다. 산유국으로써는 지금 7번째입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은 비산유국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 한국이 석유소비가 7입니다. 한국은 7번째입니다. 그러나 수입에 있어서는 중국이 2번째, 일본이 3번째, 한국이 4번째 수입국입니다. 이와 같이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산유국인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과 일본부터 에너지 협력위원회를 만들어서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즉, 에너지 자원의 공동개발, 에너지 자원의 공동조사, 연구 그리고 에너지의 공동 구입, 관리하는 한일 에너지 협력 위원회를 만

들어서 에너지 공동체부터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 드린 데로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 10%만 떼면 약 2300억 달러가 됩니다. 이것을 AMF를 만들어서 아시아의 무역과 투자뿐만 아니라 금융과 외환과 통화의 안정을 위한 기관을 마련하게 되면 바로 경제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제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것이 AMF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AMF를 만들고 한일 에너지 협력을 위해서는 문화교류, 스포츠 교류, 과학·기술 교류에 의한 소프트웨어 분야를 협력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다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본은 선진국이고 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또 동아시아 역사에서도 책임의식이기 때문에 이런 때 공동체 형성하는데 제발 술선 수범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아울러서 일본과 한국이 영원한 세계 제일의 제2의 공업국이 될 수 없습니다. 미국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한국이 2.5%, 일본이 8.4%, 중국이 16%입니다. 10년 전과는 월등히 달리 중국으로부터 일본과 한국이 미국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국내시장, 한국의 국내시장이 중국 제품한테 밀려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경제,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야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순서는 에너지 공동체, 두 번째는 경제공동체, 나아가서 전체적인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하자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한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자는 것으로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座長 : 이종훈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찬현 교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② 『韓日 FTA 推進展望과 課題』

孫 讚 鉉
江原大學校 經濟貿易
學部 教授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손찬현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한일간의 FTA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일 한국과 미국은 FTA에 대한 큰 협상을 마무리해서 다음 FTA 대상국이 어딘가, 그 역시 한국에서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많은 FTA를 해왔지만 특이한 것은 일본하고는 협상을 하다가 중단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한국 FTA의 전략은 크게 3가지에 요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대 경제권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두 번째로는 포괄적으로 추진한다. 세 번째는 동시다발적으로 한다. 이런 것은 정부의 정책을 갖고 이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정부의 가장 큰 차기 FTA 대상국은 EU가 되고 있습니다. EU 다음에는 아마 중국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찍 시작했던 한일 FTA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질문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한일 FTA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98년도에 양국 간의 공동연구회 합의를 한 이후에 공동연구도 하고 또 양국 간의 비즈니스 포럼도 진행해왔고 마지막으로 한일 FTA 산관학(産官學)공동연구회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2004년 11월에 제6차 협상을 끝으로 중단되었습니다. 협상이 중단되었던 것

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보기에는 맨 마지막 줄에 써 놨습니다마는 중간과정이었던 한일 간의 비즈니스포럼에서 민간기업 부문에서 가질 수 있는 한일 FTA에 따른 어려움 또는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민간부분의 인식이 부족해서 결국은 추진동력을 잃음으로써 중간에 결렬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일 FTA는 한국에 대해서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첫째로 한국은 만성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무역적자를 가지고 있고 또 양국 간의 실질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투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투자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특히 한일 간의 산업 및 수출구조가 굉장히 경쟁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적인 국가하고 FTA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여기에 대해서 학계뿐만 아니고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일 간의 FTA를 공동 연구했을 때 한국측과 일본측에서 나온 결론의 공통된 부분 중의 하나가 FTA를 통해서 한국의 무역 적자가 많이 확대된다는 데 일반적으로 의견의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아마 어쩌면 한국의 대외 세계 무역 수지도 한일 FTA를 통해서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에 나름대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의 평균관세율이 일본보다 높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확대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수출구조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런 수출구조가 비슷한 나라끼리 FTA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기술이 조금 부족한데 그렇게 되면 한국이 거꾸로 지금 첨단기술에서 오히려 밀려나가지고 경공업이라든지 기술이 좀 떨어지는 산업으로 특화됨으로써 산업이

역진화하거나 또는 퇴행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학계에서 또는 관에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일 FTA에 따른 혜택을 찾아보려면 그 동태적인 차원에서 찾아보아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런 투자라든가 또는 규모로써 경제효과라든가 또는 경쟁심화에 따른 효과, 이런 것을 갖고 목표를 들여다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FTA의 실질적인 한일 간의 FTA는 실질적인 혜택은 투자에서 와야 된다. 전 이렇게 깊게 믿고 있고 이렇게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일 FTA를 했을 때 만약 일본에서 한국으로 순투자가 년30억 불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한국의 무역 적자도 많이 해소가 되고 또 성장률도 양수로 바뀌가고 또 무역 상호간의 무역확대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60억불의 무역 흑자를 확대를 하니깐 30억 반 정도를 한국에 투자한다면 그러한 동태적 효과에 따라서 양국 간의 본격적인 상호 활성화할 수 있는 체제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결국은 투자가 일어나서 그 투자가 산업 내 교역으로 활성화되어 가야지 어떤 경쟁에서 새로운 협력체제로 전환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일 FTA가 결렬된 마당에서도 과연 FTA를 계속 추진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특히 한국 정부쪽이라든가 한국의 학회에서는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되는 이유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까마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 양국의 비교우위가 유사하기 때문에 양국이 꼭 FTA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또 양국이 모두 지금 빠른 사회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이행을 해서 노동 인력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양국 간의 한계적 산업의 퇴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조조정을 해갈 수 있겠느냐, 이것이 지금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북아에 있어서 일본의 경우는 소위 말하는 잃어버린 10년,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97년의 아세안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를 통한 그런 어려움 그리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고도성장 그러다 보니 3개국 이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날으는 기러기(Flying Geese) 모형의 어떤 그런 경제 발전이 지금 충돌하는 기러기(Colliding Geese)에 형태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한 일간의 FTA는 동북아의 경제구조조정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일 FTA가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하고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일 FTA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결국은 양국 기업의 협력을 통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의 퇴행이라든가 역진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그 믿음 또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기업군의 기업과 기업 측으로부터의 정부에 대한 이런 신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사실은 2001년 5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양국 간의 FTA를 위한 비즈니스 포럼이 사실 진행 되어 왔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해서 왔습니다만 서도 실질적으로는 깊이 있는 양국 간 기업 간의 실질적 논의가 많이 부족했다 이것이 제가 보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지금 양국

간의 FTA 결렬된 상황이고 또 한국정부의 한일 FTA에 대한 Priority(우선순위)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한일 FTA의 돌파구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 저는 실질적인 기업에 협력 메커니즘 그래서 양국 간의 Business Cooperation Council 같은 협력 메커니즘이 꼭 필요하다, 그 협력 메커니즘에서 실질적으로 양국에 FTA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혜택을 갖고 오고 또 얼마나 중요하게 유통과 경제에 출발점이 되느냐를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일 FTA를 위한 Business Cooperation Council를 예를 들어서 추진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일본측에서 보았을 때 옛날과 같이 한국이 일반적으로 산업위원회라든가 기술위원회를 만들어서 일본측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좀 도와 달라 또 수혜한다, 이런 형태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양국이 동등하게 참여해서 상호 이익이 있는 협력을 발굴하고 그것을 개척해 가는 그런 것 목표를 하는 Counci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적인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투자가 중요하기때문에 그 투자를 통해서 산업구조 조정도 하고 서로가 한계 산업들을 정리하는 방법을 위해서 투자개발은행을 민간부문에서 주장을 해서 양국 정부에 동등한 매칭펀드를 유인함으로써 민간부문에 이런 유사한 산업구조가 서로 충돌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라든가 또는 산업구조조정인 문제라든가 또한 한계산업 정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도울 수 있는 Investment 뱅크가 있으면 양국의 구조조정도 좀 더 촉진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양국 Business Cooperation Council 과제를 본다면 첫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한일 FTA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의 대한

직접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Council이 이끌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이런 투자가 일어나는데 그 투자가 어디로 가야되느냐 하는 양국 간의 산업 내 교역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야됩니다. 산업간 교역이 활성화된다면 한국측에 산업 역진화라든가 퇴행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산업 내로 교역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결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경쟁력 있는 부분의 서로가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조선, 철강, 기계, 전자, 반도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 경쟁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호 투자가 일어나야 되고 그래야 서로 생사의 경쟁으로부터 공동 번영의 길을 구축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 Business Cooperation Council에서는 공동 구조조정을 위해서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어떤 메커니즘이나 어떤 방법이 더욱더 바람직하고 더 큰 효율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투자개발은행(IDB)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끝으로 어차피 FTA를 하게 되면 그 FTA 내용 거의 다 WTO Plus입니다. 그러니까 WTO에서 규정한 이상의 시장개방과 자유화인데 그 자유화에 있어서 특히 양국 간의 민간부문에서 머리를 맞대고 새롭게 어떤 지혜와 또 큰 이익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표준 인증에 대한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상호인증협정)이라든지 또는 건설시장에 대해서 상호 협력이라든가 유통질서에 대한 상호협력 그리고 Patent-Pool/Cross-Licensing 과 같은 이런 민간 부분의 협력 메커니즘을 유연하게 도출해 내느냐. 그 다음에

또 일본에서 많은 부분 최근 중소기업들 기술이 아주 상당히 높은 산업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인구가 노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결국 어딘가로 이전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대한 Techno-Mart라든가 Techno-Expo같은 것을 개최하면서 한일 간의 기술에 대한 협력도 많이 일어날 수 있고 또 특히 통관절차와 수출입과 관련해서 e-Trade Network를 한일 간에 먼저 만들고 동아시아로 확대해 감으로써 양국 간의 협력이 명실 공히 동아시아 경제 협력에 초석이 되고 출발점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일 FTA가 잠깐 중단상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를 돌파구는 역시 기업 간의 상호 협력과 서로 이해를 증진시켜서 정부에다가 오히려 한일 FTA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역설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座長 : 다음은 삼성경제연구소의 김경원 실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③ 『中國의 産業政策 및 外國人投資 政策 變化』

金 京 源
三星經濟研究所 專務
Global 經濟室長



저는 삼성경제연구소의 김경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이고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중국의 산업정책에 대해서 외국인투자정책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4, 5년 전인가요? 한국

하고 일본이 중국의 농산물에 대해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대응이 상당히 과격했는데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는 아마 전자제품 전체 수입을 금지한 적이 있었고 한국에 대해서는 휴대폰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중국의 고위관리를 만나서 생무부에 “당신들 너무나 것 아니냐. 파리를 잡으려면 파리채로 잡을 것이지. 왜 망치로 잡느냐?” 그랬더니 그 분 말씀이 대답이 이랬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으냐?” “알고 싶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파리채가 없답니다. 망치밖에 없대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이 중국이 세련미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소프트 파워가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정책 변화가 굉장히 급격할 수 있다는 것도 반증하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중국의 산업정책 변화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에서 산업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때는 7차 5개년 계획(1986~1990년)이 시작된 1986년부터 대요. 개혁 개방의 초기인 1980년대 초반에는 발전전략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경제정책이 실시되었으나 1986년 때 시작된 7차 5개년 계획에 산업정책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나타나면서 이런 표현이 일반화되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중국의 산업정책은 시기별로 경공업 육성이라든가 수출산업 육성이라든가 중공업 위주의 지주 산업 육성, 첨단산업 육성 등에 집중되었습니다만 이를 위해서 수출 우대정책, 대기업 육성 정책,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 그 다음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등이 산업정책의 근간을 이

루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연평균 9.6%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률과 ‘세계의 공장’이라는 닉네임을 얻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조업의 조립가공산업 위주의 발전, ‘첨단산업 및 중공업의 외국인투자 의존도 심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었으며 중국은 여전히 저렴한 노동력, 조립가공형 그 다음에 외국인투자우대정책에 의존하여 국제 분업에서 저부가가치 창출을 담당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6년부터 시작된 11차 5개년 계획(2006~2010)에서는 산업정책이 혁신에 의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서 산업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고 공정한 경쟁정책 도입과 국가독점체제를 타파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핵심 수단은 소위 ‘혁신’입니다. 후진 타오(胡錦濤) 주석은 2005년에 7월 공산당 정치국회의에서 ‘혁신’이 11차 5개년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이라고 강조했으며 ‘혁신’은 1980년대의 ‘농촌 경영책임제’와 1990년대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건립’에 상당하는 2000년대 산업정책의 핵심키워드가 되었습니다. 11차 5개년 계획의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은 기존의 정부통제와 관리를 ‘혁신’과 ‘공정경쟁’으로 대체해서 산업구조와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변화

중국의 산업정책의 변화에서 기본방향을 말씀드렸으면 다음은 외국인 투자정책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세계 3대 외국인투자 유치국으로 부상

외국인투자는 중국에서 보시면 1978년 개혁개방 이후에 연평균 9.6% 성장을 이끈 견인차 역할을 한 게 맞습니다. 산업의 고도화를 이끈 일등 공신이기도 합니다. 1980년대에는 화교자본에 의해서 1990년대 구미자본이 외국인 투자를 주도했습니다만 지금 세계 3대 무역대국인 중국의 수출 중 과반수가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에서도 외국자본의 기여도를 쉽게 알 수가 있죠. 개혁개방 이래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은 열악한 제도적 인프라나 정치, 사회적 낙후성을 상쇄하기 위해서 각종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양적 확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대외개방과 함께 5개 내에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세율 인하, 수출 장려조치 등 우대조치를 시행하였으며 특히 1992년 이후 5개 경제특구에 국한되었던 여러 우대조치가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외국인투자는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보시다시피 1991년 44억 달러에 그쳤던 직접투자 유입액은 1990년대 중반 이후 400~600억 달러 정도로 크게 늘어난 게 사실이고 지금도 중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영국과 함께 세계 3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러한 외국인투자정책이 변하가 일어나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높은 저축과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인해서 투자재원이 풍부해졌고 그러다보니까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우대정책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기조는 과거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11차 5개년 계획(2006~2010)은 외국인투자정책에 있어서 '질을 제고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 각종 특혜 축소

및 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 투자정책의 조정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금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된 '기업 소득세법' 개정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해왔던 법인세 혜택을 아주 크게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밖에도 반독점법, 노동계약법 등이 금년 내 입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부문별 정책 변화 양상

그러면 부문별로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세금감면 축소 및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과 중국기업의 법정 법인세율은 33%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은 실제로는 나타내는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자기업(外資企業, 100% 외국자본으로 구성된 중국법인)이 실제 납부하는 법인세율은 평균 11% 수준으로 중국기업의(22%)의 약 절반에 해당합니다. 경제특구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율을 15%로 감면해주고 있으며 그나마도 진출 초기 2년간은 완전 면제, 그다음 3년간은 반으로 깎아주고 있습니다. 경제특구 지역이 아니더라도 외자기업들은 각종 우대조치를 통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또한 일부 외국인투자기업은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을 조작하거나 의도적으로 적자상태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납세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기업은 기업세율을 단일화 하자, 이런 주장이 중국에서 수년간 제기되어 왔으며 금년 3월의 전인대에서 국내외기업의 법인세율을 25%로 통일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외자기업의 불법적인 이전가격 조작 등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

는 외자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에 의한 국부 유출을 연간 약 300억 위안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 여러 기업들 장기간 적자이거나 이윤이 미미하면서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실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독점법 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다국적기업들이 기술 브랜드 직원 등을 활용, 이용을 해서 시장을 지배한다는 시각을 중국 정부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을 독점한다는 인식을 상당히 갖고 있고 이에 따라서 10년 이상 지연되었던 반독점법을 제정을 해서 빠르면 올해 안에 제정이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외자기업이 중국기업에도 M&A를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 M&A를 통해서 시장 독점을 강화하려는 시각도 갖고 있고 그러다보니깐 지금 중국정부가 M&A 조차도 조금은 어떻게 제한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독점법 제정은 10년 넘게 지연되었습니다만 올해 안에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제정 취지가 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영기업의 독점을 해소하고 여러 가지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다국적기업의 중국시장의 독점을 견제하는 장치로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관계입니다. 그 동안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정부는 상당히 친외자기업적인 태도를 견지해왔죠. 그런데 이게 후진타오 지도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후진타오 지도부는 군대 정책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노동법에 예외 없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사분쟁 제일 최근의 중

립을 유지하는 모습이 보이죠 또 하나가 '신노동계약법'을 금년 7월에 시행할 예정인데 고용계약 해지시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고, 파견근무도 제한을 하고, 노조 권한 중국에선 公會(공회)라고 되어있는데 이 공회를 노조로 바꾸는 것을 은근히 지금 장려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향후 노사관계에서 중국정부의 친기업적인 태도는 점점 그 색이 약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이전 및 R&D투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기술 습득의 주요 통로는 '시장환기술(市場換技術)' 정책입니다. 시장을 내주고 기술을 얻겠다는 건데 사실 이것 때문에 중국의 기술 협력강화에 큰 공헌한 것은 사실이고 현재 외자기업들은 약 900여 개의 R&D센터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시장환기술'로도 중국이 원하는 기술을 잘 얻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규제 완화로 합작형태에서부터 지금은 단독투자로도 얼마든지 기업을 외자기업들이 설립할 수 있는 만큼 이런 기술을 얻는 가능성, 통로가 점점 묘연해지는 게 사실이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중국정부는 공장 신·증설·인허가시에 기술이전이라든가 R&D 투자를 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앞으로도 중국 정부의 필요한 정책을 유도하는 정책을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특혜제공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견제입니다. 기존의 중앙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 특혜를 제공하는 어떤 많은 재량권을 중앙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주로 이것을 위법행위, 다시 말하면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행위도 중앙정부가 묵인한 건 사실입니다. 이것이 최근에 세수 감소

라든가 규제회피라든가 무분별한 공업단지 확대 등으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이 중국기업들이 홍콩에다가 법인을 세워 다시 외자기업으로 중국으로 들어와서 각종 혜택을 받은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정부가 지방정부가 상당히 재량권을 남용해서 만든 여러 가지 약5,000여개의 개발구 중 60~70%를 폐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업 소득세법 규정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나면 중국이 앞으로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점점 줄이겠다는 것 같습니다.

3. 대응 전략

대응전략을 세운 것이 아니고 중국이외에도 이제는 다른 방면의 투자의 최적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데 이게 바로 'China+1전략'입니다.

이미 최근에 기업들이 한국, 일본, 미국 기업들이 대중국 투자가 감소하는 모습도 아마 이런 전략의 이바지라고 보여줍니다. 대응전략은 이제 인도나 베트남을 많이 생각해보라는 말씀도 있고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중국의 새로운 투자전략을 세울 때 중국에 있는 기업전략에 맞추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Think Local, Act Global'입니다. 중국에 맞추어서 생각을 하되 대신에 스탠더드는 Global 스탠더드를 채용할 경우에 여러 가지로 중국 사업에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시간이 다돼서 마치겠습니다.

座長 :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 잠깐 세분의 발표 내용을 요약 해볼까 합니다.

이종훈 이사장님은 모든 분석의 시작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체결해야 한다」라는 대명제를 대 전제조건으로 해서 분석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주도를 해야 될 책임은 한국과 일본에 있다. 그 첫 걸음으로써 에너지 공동체를 만들고 또 아시아 통화기금을 만드는 기초적인 일을 한국과 일본의 외환보유고를 활용해서 하고 그리고 또 한일 FTA를 해줘라, 이렇게 해서 한국과 일본간의 동아시아 공동체의 주요 기둥을 박으면서 그 다음에 중국을 편입시켜라 그래서 한·중·일이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책임을 맡아라, 이런 요지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특히 일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사장님의 분석과 발표로부터 저는 이러한 쟁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한일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추진이라는 목표가 없다고 치면은 그 이유가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한일 FTA 자체에서부터 한국이나 일본한테 오는 실질적인 경제적인 혜택은 한일 FTA를 추진해야 될 필요성에 주요 구성 요인이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좀 검토를 해야겠다는 느낌을 가졌고 한일 FTA의 에너지 공동체의 두 나라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은 과연 손에 잡힐 정도로 절실하게 있는 것인지 그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일본이 이와 같은 노력을 주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토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찬현 박사는 한일 FTA는 그 자체만 보서는 한국한테는 피해만 있고 혜택은 없다. 일본한테는 별 필요가 없고 주로

혜택만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혜택과 필요의 균형이 좀 일방적인 불균형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는 한일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만일에 일본이 한국과 FTA를 체결하기를 원한다면 한국한테 직접 투자를 늘리는 조치를 취해서 말하자면 하나의 배상으로써 혹은 인센티브로써 그것을 제공을 해야 한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그렇다면 한일 FTA를 추진해야 되느냐, 필요성이 있느냐 이 문제를 손찬현 교수는 궁극적으로 동북아, 한·중·일 FTA를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준비 작업으로써 첫 스텝으로써 해야 된다고 손 교수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전 이해를 했습니다.

한편, 외국인 직접투자가 일본으로부터 들어올 때는 특히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중화학공업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해서 산업 내 분업구조로 가면서 하면은 이것이 소위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동태적 혜택이 되가지고 한국에도 실질적인 득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촉진하느냐는 그런 어려운 명제에 부닥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양국 경제인들이 그 방안을 공동협력·연구해서 내세워라, 이런 유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로써는 이런 쟁점을 느껴봤습니다. 과연 일본측에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실질적으로 눈에 띄게 늘어날 것인가. 어제 김상하 회장님 말씀을 보니까 작년에 한국에 대한 일본 직접 투자가 26억 달러 또는 15억 달러 쯤 됐는데 손찬현 박사는 그것이 배 이상으로 늘어야 된다, 30억 이상으로 늘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일본이 노력을 안 해서 안하는 거냐. 또 일본이 노력을 한다는 게 뭘 한다는 뜻이나

그걸 좀 생각해봐야 되겠고, 저로써는 한국에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직접투자가 덜 들어온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국내 기업의 여건, 투자여건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냐, 저는 오히려 그 시각을 그 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일부 학자들은 한일 FTA 그 자체로써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늘리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했고 저 자신은 개인적으로 그 쪽의 기대와 또 약간의 신념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시켜서 어제 김상하 회장님 말씀이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해외직접투자)가 일본에서부터 한국에 대해서 5배로 늘었다, 2005년에서 6년으로, 3억에서 10억으로 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FTA를 하면은 그것이 더 촉진될 거라는 유지의 말씀을 하셨고 하타케야마 회장님도 비슷한 유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분 다 부품·소재분야에서 다시 말해서 한국이 중소기업부분에서 이 FDI가 늘고 있다.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가. 그리고 이것이 FTA를 추진하면은 촉진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FTA 자체에서부터 양보를 할 것인가 별도로 우리가 그것을 촉진해야 할 것이냐 이것도 쟁점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타케야마 회장님의 어제 말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본과 한국 간의 부품·소재간의 협력은 한국과 일본 단위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한국·중국·일본 간의 삼각적인 그러한 산업 내 분업구조의 일환으로 일어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김경원 실장이 지금 중국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무조건 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은 직접 투자를 중국에도 보내지만은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도 보내기 시작을 했다, 이런 말씀의 발표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한·중·일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던 그러한 분업구조, 교역구조는 점점 전 동아시아 전체 지역으로 확대가 되어 나갈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한일 FTA 자체냐 아니면 한·중·일이나 아니면 동아시아 FTA 그 전체냐 이와 같은 우리의 시각을 얼마나 넓게 봐야 할 거냐 그런 의미에서 한일 FTA만을 보는 것은 좀 협소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국정부가 한일 FTA 협상을 중단하면서 매번 이유는 농업 부문에서 일본이 충분한 개방의 의지를 안 보였기 때문에 그것은 희망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논리에 의하면 한일 FTA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가장 큰 혜택이 무역증진이라는 그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것이 과연 진정한 솔직한 이유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인지 지금 손찬현 박사 말씀을 보면 한일 FTA에서 피해가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중화학공업 부문 그 쪽에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한일 FTA를 중단한 이유 자체는 조금 더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토론자가 따로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토론자로서 몇 말씀을 추가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3) 日本側 主題發表

座長 : 그 다음에 일본측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라타 교수님 어디 계시죠?

① 『韓日FTA와 東아시아共同體 形成』

浦田 秀次郎
(URATA Shujiro)
早稻田大學 教授



네, 안녕하세요?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과제는 지금 양수길 교수님께서 세분의 주제발표를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저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특히 이 이사님 그리고 김 실장님의 말씀의 보완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이사님의 흥내를 내서 15분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을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여기에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동아시아 경제의 번영 그리고 정치,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것이 크게 기여할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공동체를 처음부터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맨 처음의 단계는 동아시아 FTA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아시아 FTA를 형성하는 그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은 이 지역에서 즉 경제 발전이 많이 선진화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두 나라가 높은 수준의 FTA를 구축하는 것이 참 중요한 공헌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꼭 한국과 일본의 FTA의 교섭을 재개해서 협상 합의 그리고 체결, 이런 식으로 진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

해서 몇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FTA 그리고 경제공동체, 다양한 표현이 이 지역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FTA, 이것은 손 교수님께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셨습니다. GATT, WTO에서는 무역, 서비스무역 이 2가지 무역에서 어느 특정 국가 사이에서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FTA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더욱 폭 넓은 WTO+α 라는 것을 포함시킨 FTA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듯이 무역 투자에 자유화, 무역 투자에 원활화 그리고 경제 협력을 포함한 것들까지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훨씬 더 큰 구상입니다. 공동체에 대해서도 어떤 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경제공동체 그리고 사회문화공동체 그리고 안전보장공동체 이 3가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중에서 저는 경제 공동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경제 공동체란 무엇인지 이것은 FTA Plus, 그 외에 다양한 경제제도의 조화, 통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앞서 말씀 드렸듯이 먼저 FTA를 형성해서 이 FTA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마지막에 경제 공동체 그리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경제 공동체, 이런 걸 보면서 정책을 세우고 실천해 옮겼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을 조금 더 보태서 몇 가지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이 이사님 말씀의 중복되는 겁니다. 현재의 세계에서는 FTA가 많이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매우 많은 FTA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는 WTO 세계무역기구 그리고

그 이전에 GATT, 관세와 무역과 관련된 일반 협정에서부터 생겨 온 누적 체결 건수입니다. 90년대 이후 매우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는 동아시아 FTA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슬라이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FTA가 모두 다 망라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FTA는 최근 들어서는 거의 매일이라고 하면은 과언이겠지만 대단히 많이 협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이상의 숫자 FTA 체결이 진행 중에 있을 겁니다. 지금 색깔로 분류해 봤는데요. 일본과 관련된 FTA가 Blue, 한국이 추진 중인 FTA가 보라색, 핑크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한국도 일본도 FTA에 적극적입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전체를 망라할만한 FTA는 현재 아직 공식적으로 협상이라든지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동아시아에 필요한 것은 공식적인 차원의 FTA에 대한 논의, 협상이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FTA가 체결된다면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인데 이것도 이미 많은 분들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무역 투자 확대가 실현이 되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이 실현되면 사회도 정치도 안정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정에서 각 지역 간의 교류도 심화되고 상호 이해도 증진되고 반복 말씀드립니다만 정치적, 사회적 안정에도 기여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숫자는 동아시아 FTA가 체결된다면 각국에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입니다. 동아시아 X Part Group 이라는 그룹이 현재에도 있습니다만 이 그룹에서 작년 7월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했습니다. 저도 일본측

Member의 한 사람으로서 이 논의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이 그룹의 출제 결과에 따르면 이것은 동아시아 FTA는 ASEAN 10개국과 한·중·일이 3개국입니다. 이러한 FTA가 형성이 된다면 한국의 GDP는 3.54% 상향 조정이 될 것이고 일본은 0.44% 인상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과소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의 내용을 보면 무역의 자유화만을 거론하고 있었습니다. 손 교수님께서도 강조를 하셨듯이 FTA에서 유출될 수 있는 것은 투자 확대입니다. 이것까지 포함하면은 이 이상의 효과가 나오는 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동아시아 FTA가 구축이 되면 각국의 많은 경제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건 확실합니다. 동아시아 내에서 일본과 한국의 경제적인 역할, 위상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숫자를 몇 가지 나열해 봤는데요. 일본과 한국과 동북아시아에서 여기는 중국도 숫자를 구해 보았습니다. 이 3개국이 동아시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참 큼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십시오. 일본과 한국은 OECD 가입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도 일본도 1인당 GNI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무역액에 대해서도 동아시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참 큼니다. 이 숫자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규모 그리고 경제 발전 수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경제 발전 단계를 나타내는 기초로써 사용되는 유아사망률이라든지 전화회선의 보급률 등등을 보더라도 한국과 일본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앞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한일의 무역 관계를 보면 이것은 상대적으로 보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저성장이라는 것이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만 이와 같은 양국 간의 상호의존관계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본다면 앞으로 이것을 확대시킬 여지가 많다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한일 FTA인데요. 이것도 손 교수님께서 매우 소상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듯이 경제 발전이 많이 진행된 두 나라가 높은 수준인 것은 자유무역도도 높고요. 내용도 풍부하고 WTO+a의 요소가 매우 큰 무역뿐만 아니라 투자자유화, 무역투자의 원활화 등 다양한 협력 등 이러한 여러 내용을 포함한 FTA를 체결하고 동아시아 FTA의 모델이 될 만한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장애물인데요. 이것은 양수길 원장님께서 앞서 농업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보자 하니 역시 일본측에 농산품 무역의 자유화 여기에 대한 약간 세부적인 자세, 초국적인 자세가 한국측 FTA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일겁니다. 반대로 제가 한국측에서는 잘 모릅니다만 손 교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아마 이러한 예외요소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중소기업 특히 기계 산업에 속하는 중소기업들이 무역 자유화를 함에 있어서 일본으로부터 제품이 많이 들어와서 시장이 석권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많은 곳에서 쓰고 또 말씀드리고 있지만 일본의 농업자유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일본에 있어서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즉, 일본은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

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경제성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노동력 증가를 앞으로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저출산화가 진전되는 것은 국내 자금, 감소로도 연결됩니다. 그러면은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효율을 올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비효율적인 자원을 효율적인 분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농업 보호의 자유화, 이것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농업은 GNP로 본다면 1% 전후 그리고 고용은 3, 4% 정도로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토목공사라든지요. 혹은 농촌의 기계를 파는 기계 산업 등 그러한 주변 분야까지 다 포함하면 일본의 농업은 꽤 많은 경제에 있어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침체되어 있는 자원은 다른 성장 분야로 전환시키고 실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농업자유화는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일본 경제 성장을 앞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한일 FTA를 포함해서 이러한 농업 자율화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FTA가 체결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그것에 따른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농업 종사자들이 직업을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직업보존을 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교육훈련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이런 대책을 세우고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이 자유화를 실현함으로써 피해를 입을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만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FTA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은 정치적 리더십입니다. 정치적인 리더십을 어떤 식으로 발휘를 할 것인가가 참 중요한 과제입니다만 저는 국민들이 FTA를 강하게 지지를 한다면 이는 당연히 정치가들, 정치적 리더들도 FTA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정치가들한테는 미래를 내다보고 생각하는 정책 즉 FTA 추진의 중요성을 인식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가를 지탱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FTA의 중요성을 인식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일 FTA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한일 에너지 공동체 이야기가 나왔고 또 재계에서의 규율 이러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덧붙이자면 저는 다양한 차원,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이 교류를 증진할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을지 여기에는 다양한 방안이 있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항공 노선, 각 지방 도시 간에서 그런 인프라를 정비를 한다거나 이것을 양국 간에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사실 어제 대학에서 처음 수업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휴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끝나자마자 이곳에 부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네다 공항에서 서울에 갔습니다. 마지막 편을 타고 서울로 들어왔고 그래서 서울에서 1박하고 새벽 5시 20분 KTX 타고 지금 1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제1세션 전예요. 근데 이것이 하네다 부산 노

선이 있으면 은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요? 물론 저도 나름대로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밤에 일본에 들어가야 되지만 부산에서 김포까지 갔다가 김포에서 다시 하네다로 가야됩니다. 부산에서 바로 하네다로 갈 수 있는 직행편이 있으면 훨씬 편하지 않을까 즉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座長 : 감사합니다. 다음에 히라즈카 센터장님 부탁드립니다.

② 『東아시아 經濟統合의 로드맵』

平塚 大祐

(HIRATSUKA Daisuke)

JETRO ASIA經濟研究所

開發研究Center長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시아 경제연구소의 히라즈카입니다. 먼저 한일경제인 여러분 앞에서 제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에게 주어진 주제라는 것은 한일 FTA와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형성으로써 동아시아 공동체의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 좌장께서 문제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한일 FTA를 추진해 갈 수 있을 것인가 또한 한일 FTA가 애당초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을 토론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제가 주어진 시간의 절반 정도 그 부분 할애를 했으면 합니다. 먼저 동아시아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서 우라타 선생님께서 아주 상세히 설명하신 바와 같이 FTA가 점점 증가

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FTA가 이러한 상황에서는 오버랩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 있어서는 수출대상국마다 조건, 관세율 즉 수입관세율이 각각 나라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업무가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관리비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동아시아 전체로 확대해서 보자면 동아시아 전체의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있어서는 이런 FTA를 지금 같은 상황에선 FTA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FTA를 이용하는 것, 그다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금년 이월의 JETRO가 발표한 조사내용에도 FTA 이용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이용을 하지 않는다, FTA 자체를 이용 못하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FTA 오버랩 문제에 대해서는 유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려를 하고 있어서 그 유럽연맹에서는 FTA 오버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EC라는 그룹, FTA Agreement라는 두 그룹이 있어서 어느 쪽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또는 둘 다 소속되어 있는 것을 가능하면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장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ASEAN 10개국과 FTA를 체결했을 때 각각 일본, 중국, 한국에 있어서 그 기업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12개의 서로 다른 수출 조건에 일본기업, 한국기업, 중국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13개의 파트너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2개 국가와의 각각의 FTA를 맺은 것 같습니다. 동아시아 전체를 확대해서 보면,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72 즉, 한 나라의 12개의 조건이 있으니까요 이것이 13개까지 면은 이것이 이제 겹치

기 때문에 13×12 그리고 2로 나눈다면 72개의 여러 가지 17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만들까 말까 할 고민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실제로 기업들이 FTA를 적용해 갈 것이고 거기 관리를 해나가는 것 자체에서 생각을 본다면 동아시아에서는 상당히 큰 관리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각국 정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타임 라인을 스케줄을 만든다든지 FTA를 관리해가는 행정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통합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이러한 과제가 대조하게 됩니다. 이 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 품목에 역시 공통의 관세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제품, 섬유,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것이 공통의 관세율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체결을 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로써는 13개국이 좋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된다면 역시 가능한 넓은 범위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도라고 하는 큰 시장도 있고요. 일본, 중국, 한국 또는 ASEAN 그리고 인도를 포함시키자는 것을 어느 한 나라가 만약 시작을 하게 될 경우에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서 다른 나라도 인도를 포함시키자 라는 그런 영향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항상 동아시아에서 이러한 관찰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큰 범위로 시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 것인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는 이들까지도 포섭을 하는 것 그 중 한 가운데 일본, 한국에 있어서도 보다 유익한 FTA가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단되지 않는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 문제가 있

을 텐데요. 역시 관세율을 삭감하는 것만으로는 깊은 통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Anderson and Wincoop라는 분들이 선진국의 국경장벽을 추정을 했습니다. 이런 추측의 한 결과를 보면 44%의 국경장벽 가운데 관세율 장벽은 선진국에서는 8%, 나머지는 관세 외에 여러 가지 장벽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장벽 가운데는 원활화 조치에 의해서 삭감되는 줄어드는 장벽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세뿐만이 아니라 물건 또 인적 교류 이런 것을 원활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일 간의 협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인식과 전략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점에서 공유를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인식하면 좋을지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먼저 하나는 동아시아에서의 FTA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러한 것이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단되지 않는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같은 경제적으로 뒤쳐져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CLMV라고 불리는 국가, ASEAN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공통의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자유화, 무역, 중국의 무역투자환경 개선,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해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역시 각국의 FTA형 관세 인하가 본격화되는 2010년 이전에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가능한 한 빨리 한일 FTA를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국정상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 좌

장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입니다만 먼저 제가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 또는 경제통합은 어떤 일을 가져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 의견을 여쭙고자합니다. 일반적인 이해로 봤을 때에는 앞서 손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역시 관세율이 높은 국가와 관세율이 낮은 국가가 예를 들어 FTA를 체결한다면 관세율이 높은 국가가 손해를 봅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통적인 무역이론을 기초한 상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일 간에는 역시 한국이 불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무역이론의 기초해서 이러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추산해보는다면은 한국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면 된다면 새로운 경제이론에 흐름에 의하면 전통적인 무역이론과는 전혀 다른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 31일에 마닐라에 제가 갈 기회가 있어서요. Financial Times, 제가 항상 비행기에서 Financial Times를 읽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글로벌리제이션 Spectrum Effect(세계화 스펙트럼 효과)라는 내용의 논문에 실려 있습니다. 국제간에는 자본이 움직임으로써 격차가 축소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국내에서는 반대로 격차가 확대되고 승자와 패자라는 말이 일본에서 지금 유행되고 있습니다만 승자, 패자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국제간에는 격차가 축소할 것이라는 공간경제학에서의 이론적인 귀결로 실증도 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제간의 격차가 축소된다는 측면이라는 것을 중시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업의 행동을 생각해보면 글로벌리제이션, 즉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기업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보면 각국의 국가 또는 도시가 갖고 있는 고유의 유일성 Location Advantage라고 표현합

니다만 이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동한다는 것이 기업의 행동으로써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승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한일 경제협회의 김상하 명예회장의 기조강연이 있었던 것처럼 한국의 진취적이고 다이나믹 역동성, 일본의 뛰어난 기술 그리고 자본력을 통해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것을 기대한다는 말씀이 기조연설에서 있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한국과 일본에 차이에 포인트를 맞춘 논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약간의 서로의 차이, 한국은 기술력도 있는 R&D의 힘도 갖고 있는 그러한 국가입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이용을 해서 역시 한국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기업이 아니면 일본의 기업도 세계화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한일 간의 예를 들어서 FTA 속에서 어떤 것을 포함시킬 것인가를 생각해본다면 역시 인적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 원활히 교류가 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일반적인 FTA의 내용과는 달리 일본 내에서 예를 들자면 한국과 일본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조치 그리고 나서는 Gateway 전략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네다에서 한국까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FTA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인적·물적 자원을 원활하게 이동시키는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담은 그런 FTA가 한일 간에는 특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미

국의 한 학자가 하신 연구입니다만 하루에 비용을 관세율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것은 0.8%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생국에서의 계산입니다만 이 0.8%가 큰가 작은가를 보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수송비는 2.5%정도를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2.5%가 시간적인 몇 가지 고려를 한다면 0.8%의 시간을 어떻게 축소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기업에 있어서는 실제로 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0.8%를 얼마나 줄어나갈 것인가 하는 점에서도 시간 등 이러한 점을 한일 FTA 테마 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나머지는 후에 토론,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한 번 여러분과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座長 : 히라즈카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히라즈카 센터장님 발표내용 중에 여러 개의 FTA가 서로 이렇게 겹치는 문제 그래서 기업입장에서는 복잡한 물을 따르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생기는 기업비용이 문제를 비용문제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참고로 경제학자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쌍방적인 FTA가 겹치는 현상을 스파게티 접시효과(Spaghetti bowl effect), 스파게티 국수가 막 얽힌 그런 모양이다라는 용어를 쓴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우리 히라즈카 센터장님은 그 용어를 안 쓰셨습니다. 요즘에는 스파게티가 유럽 용어니까 누들 볼 이펙트(Noodle bowl effect), 국수효과다 이런 말도 쓰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러면 끝으로 가도와키 이사장님 부탁드립니다.

③ 『韓日FTA와 東아시아共同體 形成』

門脇 英晴

(KADOWAKI Hideharu)

日本總合研究所 理事長



가도와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겨우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이라서 여러분도 피곤하시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미 파일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천천히 읽어주시면 됩니다. 약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많은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FTA와 경제 공동체,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구상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구상할 때 어떠한 것을 포함시킬 것인지 등입니다. 그리고 경제계의 역할, 책임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경제계 출신인 것 같습니다. 여섯 분 중에서.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상하기 위한 비전』이것은 모두 다 이론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거기까지 도달시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적·문화적 장벽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FTA 체결이라는 것은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에서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FTA 기반 없이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것은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2가지 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FTA는 주위 주장이나 또 신뢰뿐만 아니라 영내 국가가 Equal 파트

너, 동등한 파트너로서 참여를 해야 합니다. 특정 국가가 그 사상에 따라서 영내를 통제하거나 일반적으로 이익을 늘려고 하는 자세는 회피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FTA는 두 번째로 영내국가가 상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경제 합리성에 근거한 경제 정책, 기업 경영을 하는 틀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1990년대 이후 일본경제의 침체와 97년 IMF라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 합리성에 결여에 기인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TA는 경제제도에 틀을 제공해서 불합리적인 경제정책이나 기업경영이 일어나는 리스크를 저하시키는 수단일수도 있습니다. 경제 발전이 눈부신 중국이 합리적인 경제 운영에 걸맞은 틀을 갖추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WTO에 가입해서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한일 그리고 중국은 투자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하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세 나라에 FTA 체결에 의한 준비 그리고 분위기는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합리성에 측면에서 본다면 지역의 다양성을 어떤 식으로 흡수해 나갈 것인지 Nationalism, 국가적인 부분 이걸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 인데 이것은 이미 일본에서도 농업문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극복을 해 나가는 과정이 없으면 전망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한·일·중 이 동아시아의 3나라 중심국가가 FTA를 체결해서 경제 합리성에 근거한 운영과 기업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형성이 된다면 미국이라든지 EU, 다른 나라들도 합리적인 지역 연합에 관심을 내 비추며 자연스럽게 저희한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반이 구축된 단계에서 동아시아의 경제 통합에 미래상을 내다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는 미국·멕시코, 미국·캐나다, 멕시코·캐나다 이 3개의 묶음으로 중심이 되는 북미자유무역(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처럼 장벽이 대단히 낮은 FTA 정도의 머물 것인지 아니면 EU처럼 높은 수준으로 될 것인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구별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향후 FTA 및 경제공동체 구상에서 고려해 나갈 시점 이걸 4가지 정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계경제 불균형과 Global만의 움직임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공조해서 나아갈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FTA는 무역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건데요. 당연하게도 그 금융시장, 화폐 이런 것과는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협의체 틀 이것을 병행해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하지만 오늘날 동아시아의 성장은 미국을 포함한 생산과 소비에 Network에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경상수적자를 역사적인 수준에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어느 정도 유전하고 있고 미국은 아시아의 Finance에 따라서 미국도 또 거기에 의존하고 있고 이런 체제 속에서 금융시장이 앞으로 또 뒤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병행해서 금융시장에 틀, 금융시장을 안정화 도모할 수 있는 틀을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또 하나 중국경제의 연착륙에 대해서 인데요. 연착륙에 틀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많은 분들께서 언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중국의 무역 의존성이 매우 높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2005년 사이에 중국의 무역 의존도는 34.4%부터 62.5%까지 급상승했습니다. 32.4에서 62.5%로요. 이렇게 되면 중국은

앞으로 자유화되어 인민폐시대가 시장압력에 노출될 경우 그 대외적 영향이 매우 커질 것은 매우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너지 문제입니다. 중국에 미국에 에너지 사용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중국의 발전이 가능해질지 인데요. 이러한 것을 어떻게 앞으로 보상할 것인지가 다음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시아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산업재편을 직시한 중소기업의 육성입니다. 기업은 경제의 최적화에 의해서 국경을 초월하여 자본이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중소기업은 어떻게 여기에 따라 갈 것인지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의 틀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중소기업을 어떤 식으로 육성시켜 나갈 것인지 그리고 중소기업 존속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지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견 일본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일본의 중소기업들은 1986년이 절정 기였습니다. 2004년에 이르기까지 86년에는 533만개의 중소기업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개념은 한국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는 433만개 100만개 사가 감소했습니다. 최근 5, 6년 동안 매년 일본은 16만 회사정도 기업하고 있지만 29만개 사 정도가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부도를 내고 있습니다. 매년 12만 사 정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자가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의 경영자가 늘고 있는데요. 이것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전시켜 나갈 것인지 중소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일본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140만개 정도가 기업을 새로운 회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146만개사 정도가 폐업을

하는데요. 6만개사 정도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일본의 10배정도가 항상 많은 상태입니다. 일본은 최근 M&A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소기업을 포함한 M&A가 매우 늘고 있습니다. 2년 전 보면 3천 건 정도 M&A가 이루어지는 걸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존속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도 생각해 볼만한 것입니다.

또 하나 성장과 분배를 양립시키기 위한 경제제도 정비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Global화라는 것은 기업이 경쟁, 국가가 경쟁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 또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특히 개도국, 저개발국의 임금이 낮기 때문에 그러한 외면적인 힘이 항상 작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입니다. 양극화 문제, 격차 문제라는 게 있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있을 수 있지만 Global화의 메커니즘 내에 Global Minimum, National Minimum이 아니라 Global Minimum에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개인의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 외에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 복지라든지 젊은이의 감소라든지 그래서 청년층의 능률 향상과 고용 촉진, 소득 격차 시정 등등을 해나가야 됩니다. 한일 FTA의 촉진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자면 한일 FTA는 최근 한미가 FTA를 체결하셨는데요. 웬지 일본이 낙후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일 FTA를 추진하지 않는 단점은 무엇인지 아까 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것이 아직 뚜렷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양국이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다시 짚어봐야 됩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조사를 해보았더니 역시 무

역 불균형이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FTA 체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아닌지 그런 논의도 있겠지만 장차 이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일본 은행의 국제수지통계에 의하면 일본의 대한투자직접 잔고는 2005년 말 9694억 엔이었습니다. 같은 해 말, 일본의 대 ASEAN 직접투자 잔고는 그 5배에 해당하는 4조 7554억 엔으로 달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부문은 2005년에 7876억 달러고요. ASEAN 5는 804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대한직접투자 잔고는 적습니다. 한편, ASEAN의 대일직접투자 잔고는 2005년 말 2660억 엔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대일투자직접 잔고인 367억 엔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여기 하나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3분밖에 안 남았네요. FTA를 할 때 경제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FTA를 체결하게 되면 기업 주로 대기업에 이익이 가고 National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역시 경영자는 자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소비자, 국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도 관심을 집중시켜서 기업이 이기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면은 국민은 당연히 그러한 FTA나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지지하게 않게 됩니다. 되돌아보면 일본, 한국은 97년 이후 경제 환경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기업 경영자들은 위기의식을 갖고 기업조직 경영기법, 기업지배구조, 상관습 등을 개혁해서 이것을 극복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좀 약화된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앞으로 구조개혁을 향한 열의가 식지 않고 더 뜨거워지는 기

폭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 통합을 한다고 해서 경제를 통합하려면 젊은 사람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국경이 없어지면서 젊은 사람들이 국경과 국경을 초월해서 이동을 하게 됐는데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국경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여기저기서 활약할 수 있는 틀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 그것이 저희의 책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座長 :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깐 제가 이해한대로 요약을 하면 우라타 교수께서는 이런 쌍무적인 FTA가 여러 개 생긴다고 해서 반드시 동아시아 단위의 지역공동체 차원의 지역 FTA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방향으로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

그러나 동아시아 차원에 자유무역협정을 만들 때에는 그것이 이 모든 나라한테 혜택을 가져온다. 한국을 포함해서. 그것을 개량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아시아 FTA를 위한 하나의 모델 FTA를 한일 양국이 한일 FTA에 그 내용으로 만들도록 해야 되고 따라서 그 내용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협약이 돼야 된다. 특히 일본으로 치면 예컨대 농업도 열어야 되고 한국으로 치면 기계분야, 중화학공업 분야도 규정 없이 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히라즈카 센터장님은 제가 아까 표현한 스파게티 볼 효과로 인해서 이 지역에서 여기저기서 아웃소싱(Outsourcing)을 해서 생산체제를 갖추어 가는 그러한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쌍무적인 FTA가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래서 지역 단위의 FTA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좀 재미있는 쟁점을 제시해주었습니다.

다. 동아시아 FTA 그러면은 ASEAN 10 개국 하고 한·중·일 북쪽의 세 나라 소위 ASEAN+3를 생각을 하는데 지금 히라즈카 선생님께서는 ASEAN+3+3, 호주, 뉴질랜드, 또 인도 같은 것을 해서 이것이 사실은 요즘 일본정부에 공식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중국, 한국하고 일본 간의 의견차이가 있고 이와 관련시켜서 어제 하타케야마 선생님께서 지금 이 지역단위의 FTA에 관한 3가지 모델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 ASEAN+3의 FTA, 중국과 한국이 입장이고 ASEAN+3+3 이것이 일본의 입장이고 그리고 미국은 APEC 전체 그 환태평양 단위의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FTAAP)를 이야기 하고 있어서 이 3개의 관한 상충 되는 입장을 어떻게 조화될 것인가 하나의 큰 과제를 말씀을 하신 바가 있음을 말씀을 일깨워 드립니다. 그리고 히라즈카 선생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ASEAN+6+6 이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되 한일 FTA는 당장 협상을 시작해서 2010년까지 발표를 시켜야 된다는 참 구체적인 제안을 하셨고요. 가도와키 이사장께서는 역시 한일 FTA가 동아시아 공동체에 아주 필수불가결한 그러한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동아시아 공동체의 협력 Agenda는 FTA뿐만 아니고 사실은 무역 불균형 문제를 가도와키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라든지 환율 안정문제라든지 중국에 대응하는 중국의 연착륙에 관한 문제, 중소기업문제, 사회적차문제등 많은 것을 포괄할 수 있고 FTA는 그중의 하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일 FTA는 어떻게 추진해나가느냐 우선 특히 아마 한국을 염두해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의 한일 FTA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일본에서 한국의 직접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 상당히 둔화된 그것이 바로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일본으로 치면 농수산물 시장을 개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고 경제계 차원에서는 FTA 시대를 능동적으로 수용해나가는 자세를 갖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관련되는 쟁점 몇 가지는 제가 나중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우선 커피 휴식을 갖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는데 원래 Coffee Break 시간이 20분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동안에 시작도 좀 늦었고 진행상에 약간의 차질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10분 만에 다시 돌아오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ffee Break>

(4) 討論 및 質疑應答

座長 : 질의응답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만 12시까지는 끝내야만되는 그런 시한폭탄장치를 제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거는 무언가 하면은 12시에 우라타 교수께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이 회의장을 떠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시까지는 꼭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동안의 오랫동안 경청하시느냐고 지루하시고 힘이 드셨겠습니다만 플로어에서 패널을 좀 활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논평·질문 모든 것을 환영을 합니다. 단, 말씀하시는 분은 본인 소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가급적 짧게 예컨대 90초나 2분 이내로 꼭 좀 시간을 맞추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시죠. 하타케야마 회장님.

畠山 襄(HATAKEYAMA Noboru) (財) 國際經濟交流財團 會長 : 예, 멋진 강연 감사합니다. 2, 3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한일 FTA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느낌으로 이것은 한국이 의도,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세계 FTA를 봤을 때 경제가 더 큰 국가가 리드해 가고 약소국이 접근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간의 경우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요청을 해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강대국은 더 큰 시장을 개방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상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에는 이익은 더 작은 국가의 이익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 FTA도 재개할 경우에 주도

권을 한국이 갖고 한국이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공동체에 대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에너지 공동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EU의 경우에는 공동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런 에너지에 대해서 한일간의 구체적으로 공동 관리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이 에너지 공동체 다음으로는 어느 쪽으로 가야할 것인가 에너지 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공동체를 형성할 것인지 아니면 한일 외에 지역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인지 그 다음단계는 어떻게 되는지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공동체는 물론 당연한 전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공동체, FTA는 공동체의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전체는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권이라든지 공통의 가치관,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주장하시는 분께서는 예를 들자면 중국 1당 독재체제가 변해서 자본주의 체제가 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인체로 중국과 주권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을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座長 : 하타케야마 회장님. 꼭 박사학위 논문 낸 학생한테 묻는 식으로 아주 어려운 질문만 골라서 해주셨습니다. 두 분을 먼저 받고요. 그리고 답변하고 다시 질문을 받겠습니다. 두 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동안에. 네 말씀하시죠.

和地孝(WACHI TAKASHI) テルモ(株)

代表取締役 會長 : 와치라고 합니다. 이 선생님께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아주 시사적으로 뛰어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3가지 정도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돌이켜보면 2개의 큰 국가가 주도권을 갖는 것 보다는 3 이상일 경우 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EU도 독일과 프랑스 외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균형이 아주 미묘하게 잘 잡혀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한·일·중국이 이렇게 처음부터 포함을 시켜서 공동체를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까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대서양에서 태평양시대로 갈 것이다. 특히 아시아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제 발전도 역시 유럽에 비해서 현저히 규모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그들은 여기에 주목할 것이라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부지리의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역시 동아시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는 그 타이밍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FTA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에 너무 눈을 돌리면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의료기기업체이기 때문에 첨단 의료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개발.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해야겠습니다만, 개방 Risk를 범하면서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은 중국과 하기가 싫습니다. 한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

러한 점에서 일본보다 더 앞서있습니다. 한국에선 일본은 임상실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동아시아 즉, 아시아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런 승인을 취할 경우에도 공통의 가까운 그런 Merit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장기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바라보고자 하기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고령화, 저출산화가 추진이 되면 저는 아주 장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례입니다. 의료실험에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3가지 점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座長 : 한분만 더 요청 드리겠습니다.

李熙道 (株)釜山都市Gas 代表理事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우선 가도와키 이사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FTA에 대해서 접근의 차이가 있는 것을,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우선 FTA를 체결하기 전에 한국에 투자를 먼저 받고 나서 지속적인 격차를 줄이고 그 후에 FTA를 하기를 바라는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는 FTA를 하고 나서 한국에 투자를 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평면적으로 FTA를 체결되지 않은 이유가 일본의 경우는 농수산물의 문제 때문이었고 한국 같은 경우는 한일 간의 무역적자가 있었기 때문에 FTA가 논의되다가 지금 논의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 FTA가 체결이 되려고 하는 시점인데 만약 한미 FTA는 체결되고나면 일본에서 많은 투자가 이제 올 것으로 한국측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본측에서 만약에 한국에 투자를 한다면 어떤 부분이 보완

이 된다면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座長 : 지금 말씀하신 분 소개 좀 먼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李熙道 (株)釜山都市Gas 代表理事 : 저는 JCR코리아 부산지구 국제교류이사 이희도라고 합니다.

座長 :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 질문을 좀 추가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박종훈 경제부장이 글을 썼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된 것은 일본이 그런 기회를 놓친 격이기 때문에 일본한테는 큰 불행이고 한국한테는 큰 행운이다. 일본이 한일 FTA를 추진하고자 해도 당분간은 힘들 것이다.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며칠 전에 여기 와 계신 후카가와 교수께서 후카가와 교수는 한국에서나 유명한 논쟁이신데 한국경제신문에 FTA Nationalism에 경계한다. 이런 제목으로 시론을 쓰셨는데 그 요지인 즉 일본 입장에서 혼내로 치면 한미 FTA에 대해서 별로 부러워 할 필요가 없다. 일본은 지금 제조업 분야에서 큰 관심이 없고 서비스 분야로 나아가자 한다, 이런 글을 아주 대조적인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는 한미 FTA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좀 여쭙어보겠습니다. 자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 박사님은 조금 있다 해주시고요. 우리 이종훈 이사장님이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사마라고 불려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에너지 문제, 그 공동체 문제 등 몇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이 주도하는 게 많지 않느냐는 말씀을 손 박사님, 말씀해보시고 그리고 장기적인 혜택을 생각해라 이런 것에 대

해서 혹시 김경원 실장이 할 말씀이 있으신지 답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일본측에서도 공동체에 관해서 주권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언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種燻 學校法人 德成女子大學校 理事長 : 두 분 질문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TA 주도를 한국이 하라는 말씀인데 저는 일본이 주도를 하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FTA 문제는 다만 경제적인 이해관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와세다 대학의 우라타교수님이 동아시아 FTA를 하게 되면 한국이 한·중·일 중에서 GDP의 효과가 제일 크다고 그러는데 경제적인 이유만 가지고 FTA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한일 간의 역사적인 여러 가지 대립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주어진 테마가 동아시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전 공동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동체 중에서도 경제공동체를 하자는 겁니다. 그 경제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FTA입니다. 그래서 FTA를 하는 순서에 대해서는 과연 이것을 내용을 어떻게 하고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지역은 한일부터 하고 중국을 끌어들이어서 동북아가 하고 여기에 ASEAN을 비롯해서 동아시아, 나아가서는 호주와 뉴질랜드, 인도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중간의 FTA가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시는데 한중간에는 이미 국교정상화가 지금 15년입니다. 그런데 한일 국교정상화는 42년째이고 한일경제협회만 하더라도 30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3국간의 지역공동체라든가 FTA보

다는 한일 간에 먼저 하자는 겁니다. 즉 EU가 50년 전에 시작된 것도 프랑스하고 독일 특히 독일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지구상의 100만명 이상 되는 도시가 미국에는 9개가 있습니다. 유럽에는 3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160개가 있습니다. 이 중국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지금은 중국의 영향이 한국보다도 일본에 더 심하다고 봅니다. 세계 경제는 일본의 손자의 사치품과 한국의 자회사 제품과 중국의 모회사 제품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일본과 한국이 경쟁에 버틸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역은 한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확대를 하고, 내용은 에너지로부터 해서 에너지를 하는 이유는 과거는 달러만 있으면 얼마든지 석유를 수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입시장에서 중국이 뛰어들어 와가지고 수입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산유국인 한일간의 석유자원 공동조사, 공동연구, 공동개발, 공동구입 이러한 것을 한 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즉, FTA를 하려면 사전준비, 내마와시가 필요합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한일간의 신뢰도 구축이 돼야 관세철폐가 되죠. 그래서 저는 에너지 말씀을 드리고 과학기술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교류로 확대를 해서 한일 간의 정서적인 장벽이 사라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座長 : 감사합니다. 짝막하게 손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孫讚鉉 江原大學校 經濟貿易學部 教授 : 우선 하타케야마 이사장께서 한일 FTA에

대해서 한국이 좀 주도권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가, 아닌가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히려 일본이라든가 지금은 일본이 해야 하는 시점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부의 FTA를 추진할 수 있는 협상단이라든지 정부의 FTA의 정책을 결정하신 분과 대화를 해보면은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전세계를 통틀어서 국가 간의 산업과 무역의 구조가 매우 경쟁적인 나라끼리 FTA를 한 사례가 있느냐 별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산업 구조가 무역 구조로 바뀔 때 일본하고 가장 경쟁적으로 비슷하고 이어서 미국, 중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하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일본하고는 너무나 경쟁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경쟁적인 구조로 가진 국가하고 FTA를 했을 때 한국이 살아남겠느냐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큼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법이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산업 내 교역으로 가서는 안 되니까 산업 간 교역으로 갈 수밖에 없고 산업 간 교역에 갈려면 일본의 첨단기업하고 한국의 첨단기업의 목표와 또 이상이 같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제3국에서 경쟁을 하지만 그 경쟁의 메커니즘은 간단한 무조건적 컴피티션(Competition)이 아니고 쿠퍼레이션(Cooperation)을 통한 컴피티션 다시 말해서 코페티션(Coopetition)으로 가야된다. 그것이 되려면 상호 이익이 결집이 되려면 방법이 뭐냐, 서로 상호 투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투자를 저는 서로 지금 현재 일본에 서비스나 이런 것이 많이 오겠습니다만 서로 제조업에 치열하게 경쟁하는 부

분 조선, 기계, 전자, 철강 이런 쪽에서 상호투자가 있어서 상호이익이 서로 일치되고 그래서 제3국에서의 하나의 어떤 시장 측에 서로 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도 우리가 한국에서 일본의 FTA에 대해서 한일 FTA에서 좀 어려워하는 것은 무역 적자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같은 경제학자들이 목을 높여서 무역적자라는 것이 확대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문제는 일반 시민들이 무역 적자 확대가 되면 어려울 것 아닌가 장사 밀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식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일본에서 매년 한국에 엄청나게 많은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데 그것의 일부를 과감히 잘라서 투자한다면 서로가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지고 해서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면에선 일본의 양보가 필요하다. 제가 농산물의 양보가 아니고 그런 큰 그릇의 양보를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고 혹시 오해가 있어서 하나만 간단하게 우리 한국분이 질문하신 건데 하나의 질문은 우리 한일 FTA를 할 때 한국측에서는 먼저 투자를 하고 FTA를 하자, 이것은 아닙니다. FTA를 하면서 투자도 확대하자 이런 것입니다.

座長 : 김경호 실장님.

金京源 三星經濟研究所 專務 Global 經濟室長 : 저한테는 질문이 전혀 없었는데요. 그래도 사회자께서 시켜주셔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이익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한미 FTA를 체결을 하면서 한미 FTA를 양국에서 한 동기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양쪽 관리들 많이

불러다 세미나를 했습니다. 미국 쪽 통상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저희 쪽 한일 FTA까지 맡았던 통상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서 미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한 얘기 그 다음에 한국 관리가 일본에 대해서 한 얘기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농업분야에서 하나의 양보도 생각지 않는다고 그렇게 일본 관료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도 뭐랄까 네고시에이션(Negotiation)에 여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미국도 진작에 그걸 포기했고 한국의 경우에도 이렇게 완강하게 나오는데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일본이 아무리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 좀 더 이런 장기적인 이익을 생각한다면 일종의 어떤 정치적인 압력이라든가 관료층에서의 컨센서스(Consensus)현상이 먼저 좀 전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봅시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아시아권에서는 원래 일본에서 나온 이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라임 기스 마델이라고 선도국의 발전모델을 후발국이 따라간다는 모델인데 이것이 지금 중국이 등장하고 그래서 완전히 깨진 상대입니다. 중국을 저희는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Store Goose라고 부르거든요. 대형 거위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편대 자체를 흔들어서 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래는 일본과 한국과 중국이 순차적으로 발전모델을 따라가는 것이 완전히 형클어지면서 그 역사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과다경쟁의 모습이 동아시아 3국 형태 대만까지 포함해서 4국에서 벌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FTA 동아시아 공동체 문제는 이것을 추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국제 분해된 문제를 분업으로 같이 이행하는, 그래서 어떤 평화로운 서로 동아시아 경제 질서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는 일본의 자기 시스템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으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座長 : 감사합니다. 일본측에도 간략하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門脇(KADOWAKI) 日本総合研究所 理事長 : 가도와키입니다. 질문해 주신 한국에 대한 직접 투자는 FTA 이후에 할 것인지 이전에 할 것인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 관계 속에서 무역 흑자, 무역 적자 등등에 관계가 있지만 지금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한국에 더 투자할만한 경제 합리성이 있으면 해야 하고요. 한국도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만약에 현 상태로 FTA가 한일 간에서 체결되면 지금의 무역 불균형 같은 것이 더욱 오히려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려합니다. 따라서 그 전인지 이후인지 이것과는 좀 달리 만약에 FTA를 한다면 보다 투자라는 것이 일본으로부터의 투자를 받아들이고 혹은 한국의 대일투자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더욱 확대시켜나가지 않으면 무역구조의 시정이라는 것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로 인해서 딴 일이 일어날 건인데요. 제가 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제 예상을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의 대미수출이 점점 증가할 것이다. 그런 분야에서는 만들고 있는 부품이라든지 구성되는 것들에 대해서 일본기업들이 한국에 직접 투자를 해서 더욱 합리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도출해 낼 수 있고 또 한국기업도 경제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어느 정도 상상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平塚 大祐(HIRATSUKA Daisuke) JETRO ASIA 經濟研究所 開發研究Center長 : 좌장님으로부터 세션 맨 처음에 농업분야의 개방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한일 FTA 주장, 장애가 되고 있는지 이러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양 원장님의 의견은 그것이 커다란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FTA는 참 독특해서 한국은 농수산 분야에 그렇게 강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과 같은 분류에 속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 간의 FTA를 보면 한국측이 농업 개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인 그런 부분이 FTA에 있습니다. 여기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연구자 입장에서 조금 도외시된 벗어난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한일 FTA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요 정말 농업분야가 문제이나? 저는 자동차라든지 매우 커다란 국제적 기업이 한국에 존재하는데 그러한 기업들의 큰 저항감이 한일 FTA 체결의 장애물이 되고 있지 않을까 그것이 저의 솔직한 의견입니다. 방금 청중들로부터 한일 FTA를 추진하는 게 좋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의료재생문제 이것은 일본보다도 완화돼있고 그러한 한국과 일본, 중국의 약간의 차이들, 이런 것을 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역시 한일 FTA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저는 한일 FTA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을 서로 다른 부분을 잘 픽업(Pick-up)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座長 : 감사합니다. 한 라운드를 더 돌겠습니다. 아까 현오석 박사께서 손 드셨죠?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원 소장입니다.

玄旰錫 (社)韓國貿易協會 國際貿易研究院 院長 : 무역협회 국제무역 위원장입니다. 모든 발표하신 훌륭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일 FTA 우선순위에 대해서 일본 발표자에게 여쭙어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하고 일본에 FTA의 추진에 있어서 큰 차이는 한국은 동시다발적인 FTA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미 FTA를 비롯해서 아마 다음 달엔 한·EU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멕시코라든지 다른 지역하고의 FTA에 대해서 상당히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제가 알기엔 주로 한미 FTA를 비롯한 동아시아권의 FTA에 대해 상당한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의 한일 FTA 내지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에 대한 FTA를 우선순위하고 일본에 있어서의 한일 FTA 내지는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에 대한 우선순위에 FTA 정책에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인지 또 일본의 경우에 어떤 FTA 전체적인 맵이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한일 FTA라든지 한미, 일미 FTA라든지 또는 일·EU FTA라든지 다른 거대경제권의 FTA 추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座長 : 그 다음에 저쪽에서 아까 손 드셨죠. 네.

金江熙 (株)東和Entec 會長 : 시간이 다 되어 간단히 두 말씀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발표를 보면 모든 분들이 한일 FTA는 조속히 체결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협상이 중단되었다는데 중단이라는 것은 진전이 없다는 얘기 인데 어느 쪽에서 중단을 원해서 했는지. 그렇다는 얘기는 모순이 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한 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둘째로 FTA가 성립된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효과만은 아니다, 그 이외에 문화적인 것,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히 큰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을 잘 하시는데 FTA를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따진다고 할 때 일본하고 한국과의 관계에서 조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흔히 말해서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라는 관계를 계속 우리는 지금 얘기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많이 스스로 서로들 기대고 의지하고 지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양국 간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야 할 국가가 일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본은 그것을 경제적인 이해타산에 너무 치우친 것이 아닌가, 좀 어떻게 대범하게 생각한다면 경제를 떠나서 경제를 넘어서 양국 관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이 2가지 말씀을 질문하겠습니다.

座長 : 지금 이 포인트는 이따가 기회 되면 우라타교수가 좀 답변해주시고 먼저 본건은 손 박사가 나중에 답변해 바랍니다. 또 질문과 논평을 받겠습니다. 손들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金珍鉉 (株)曉星 顧問 : 앞서 히라즈카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여기 두 분 질문하신 것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한일 FTA가 중단된 지가 2년인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우리가 근거에 대해서 아는 것을 사람들이 좀 파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6차 회담에서 끊어지고 난 다음에 왜 끊어졌느냐? 우리가 알기에는 일본의 농수산 문제에 대한 양허 문제 있고 일본측에서는 한국이 라운드에

나와서 협상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진전을 할 수가 없다. 그럼 이제 한국측 말은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당사자들은 좀 더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만 밖에 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깨진 이유는 한국에서 처음에 갈 때 상당히 과감한 그러니까 처음 오부치 총리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합의에 의해서 상당히 포괄적인 FTA를 하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 걸겠다 한 걸로 90%이상은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본측에서 생각하기를 농산물을 포함하지 않아도 상당히 포괄적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농산물을 종목에다가 생각을 안 하고 왔다는 것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용 즉은 한국에선 그것을 좀 포함 해주시면은 우리가 제기할 겁니다,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일본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한국이 무조건 협상장에 오지 않는 것이 문제다 하는 것을 밖에 다 얘기 한 걸로, 밖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데에서 와가지고 양측 대표단간의 감정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座長 : 시간 제약 상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한 분 더 계십니까? 얼핏 손 든 분이 안 계셔서 여기서 종결을…….손 드셨나요? 이 플로어로부터 질문 받는 평을 마감을 하고 답변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라타 교수가 좀 있다 떠나셔야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라타교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浦田 秀次郎(URATA Shujiro) 早稻田大學 教授 :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질

문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답변에 해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일 FTA에 대해서인데 제가 발표한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양국이 서로 양보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농업, 이것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한미 FTA가 가져다 줄 영향, 이것은 아직 합의 타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비준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태에서 뭐라고 뚜렷이 얘기하기 어렵지만요. 제가 바라 본 한미 FTA에 합의에 따른 일본에서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비즈니스 업계, 세계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에 자유로워질 것이다. 한국 시장에서는 미국 기업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일본도 미일 FTA를 체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국 시장에선 미국 기업에 대해서 불리한 사항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FTA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한편 농업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저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합의를 본 것 즉 한국의 농업이 농업분야에서 많이 양보했다는 것 이걸 보고요. 일본의 농업은 왠지 낙후된 것 같다,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 것을 왜 일본에선 못하냐, 이러한 시점도 있습니다. 저는 FTA 추진론자인데요. 한미 FTA가 합의된 것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농업 분야에 압력이 가해지구요. 이것을 정치가들이 잘 생각해서 일본과 미국 FTA 그리고 한일 FTA 재개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FTA 전략에 대해서 EU는 어떻게 미일은 어떤지 공식적인 입장은 어떤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오피서(Officer)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뭐하지만요. 저는 미일 FTA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공식적인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맨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일본과 ASEAN의 FTA입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일본은 점진 단계적으로 임할 겁니다. 먼저 일본과 ASEAN이 아니고 일본과 호주 이것이 4월 23일 정도 시작됩니다. 일본과 호주와의 FTA인가요. 이렇게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것이 일본의 입장입니다.

座長 : 우라타교수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발표자들 마지막 종합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이라고 말씀드렸습시다만 시간이 제약되어 있는 걸 감안하셔서 이 이사장님부터 발언하시고 그 다음에 일본 분 두 분이 답변하시죠.

李鍾燾 學校法人 德成女子大學校 理事長 : 한일 FTA 문제는 협상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너지 공동체부터 시작하자 그랬고 또 통화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외환이라든가 이런데 협력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AMF(아시아통화기금)를 만들어서 한일 간이라도 아시아 통화기금을 만들어서 그러한 협력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상호간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상호 간 신뢰가 생기면 협상이 자연스럽게 잘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경제적인 이유 가지고는 한일 간에는 맺어질 수가 없고 특히 한중일 3국간의 FTA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 한일 간의 쉬운 것부터 하자, 하는 것이고 자원개발만 하더라도 지금 사전 여러 가지 가스 개발이라든가 한국이 감독하는 것도 있고 황해라든가 동해라든가 이것을 얼마든지 공동조사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연구도 할 수가 있

고 이것은 성과가 있는 없던 이렇게 해서 신뢰를 쌓아야만 관세를 철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FTA인데 FTA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 내마와시를 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座長 : 감사합니다. 꼭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30초 말씀 해 주세요.

孫讚鉉 江原大學校 經濟貿易學部 教授 : 앞의 현오석 원장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사실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일 FTA에 대해서 한국 쪽에서는 지금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보기에 최하위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는 제일 먼저 했는데 실질적으로 논의는 하위로 떨어진 것이 참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일 FTA 협력은 한일 간의 FTA가 아니라도 경제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 현상이 이미 동아시아에서 중앙경제권이 확대가 돼 있고, 일본은 그동안 30여 년 동안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ASEAN을 자기의 시장 또는 전진기지로 활용을 해왔다가 최근에는 전부 다 중국에 내주고 호주, 뉴질랜드, 인도로 꼭 도망 다니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아시아가 너무 크게 결렬되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다시 ASEAN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한일 FTA를 해서 다시 이런 지금까지 가꾸었던 동아시아 시장을 다시 한번 같이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座長 :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 부

탁드립니다.

平塚 大祐(HIRATSUKA Daisuke) JETRO ASIA經濟研究所 開發研究Center長 : 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FTA 전략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그 다음에 EU, 그 다음에 전략을 갖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영향 도미노 효과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FTA 전략 그 자체에도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역시 일본과 미국의 FTA 또는 일본과 장기적으로 EU와 진지하게 FTA를 생각해 볼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상황을 한국이 제공을 한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FTA에 대한 평가를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랄까요? 이렇게 의미 깊은 뜻 깊은 회의에 참석하실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양국 간의 FTA가 이웃한 나라와는 FTA 관계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서로 너무 잘 알 경우에는 필요성을 알면서도 잘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연애 관계로 비유해서 어울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신기합니다. 일본은 어느 쪽을 좋아할 것인가라는 것을 물어보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듣다보면은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누굴 좋아하느냐를 강요하는 것처럼요. 일본에서 지금 농업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 와서 다시 한 번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경제단체에서도 이미 정부에 농업에 대해서는 어찌면 보상을 해주더라도 이 문제를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기에서 참석하신 분들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비즈니스를 해 온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에 경제는 상당

히 규모가 크고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FTA와 같은 경제 합리성이 실현되는 것 같은 그런 경제권이 형성된다면 기업으로써는 Risk Control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질 것입니다. 어느 정도 중국에 어떤 부분을 맡길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베트남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인도로 갈 것인가 이런 걸 기업이 자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반대로 일본 전체의 경제 Risk Control을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5) 座長 總括

座長 :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한일 FTA는 왜 지금 막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강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지적된 이유로써는 비경제적인 요인의 역할이 크다는 이러한 말씀도 공통적으로 있었는데 지금 토론된 결과로는 그것도 장애물이지만은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일 FTA로 인해서 이것이 한국이 가져다주는 실익이 무엇이나에 관해서 그런데 한국이 한미 FTA에 실익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확신이 있었습시다만 그와 같은 확신이 없는 게 근본적인 장애물이고 또 한·미·일 FTA를 다시 추진하고 성공시키려면 그 점을 우리가 대응하고 보완해야 한다하는 것이 아마 큰 결론 같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라는 큰 이상과 목표가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 가지고는 좀 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현 오석 박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의 FTA 전략을 보면 동아시아 공동체의 대상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한 모티베이션(Motivation)이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어디나 FTA Network를 가져서 한국이 그 중심지 Hub 되겠다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한국이 추구하는 한일 FTA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써, 그래서 결국은 한국에 대해서 이 한일 FTA를 가지자는 경제적인 실익이 뭐냐는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강조를 하고 싶

고 이 자리에서만 다른데서나 별로 얘기가 안 되는 것이 한일 FTA를 해서 그것이 한국에 가져다주는 개방국가, 일본과 경쟁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한국경제에 가져다주는 구조조정이라든지 제도선진화라든지 이러한 얘기가 별로 안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미 FTA를 왜 해야 하느냐고 정부가 말하면 학자들이 말할 때 한국 사람한테 얘기를 할 때 그것이 한국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개선을 추진해서 한국시스템을 Upgrade 시킨다는 개방 효과를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일 FTA에 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고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무역장벽을 낮춤으로 해서 자원 활용이 효율화되고 또 구조개혁이 혁신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효과가 있고 또 그것이 사실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직접 투자를 촉진할 것이고 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한국 정부가 한국의 투자 여건을 개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FTA 교역의 직접 수약, 투자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증명하고 그러한 효과를 어떻게 하면 강화할 것이냐 이것을 손찬 현 박사가 말한 FTA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의 문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수용해나 갈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한일 FTA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정치적인 리더십의 역할이 많이 강조 됐습니다. 비경제적인 문제에 관한 정치적인 리더십 발휘는 물론 중요합니다. 원자바오 총리의 일본 방문에서 그와 같은 것이 극적으로 들어났습시다만 그러나 정치 지도자가 나서서 한일 FTA를 함으로 해서 이것이 이러한 경제적인 효과가 온다, 이것을 일본 농민한테 얘기하고 한국에 반대하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그러

한 것도 정치적인 리더십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으로 오늘 제1세션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제가 진행이 서툴러서 시간이 초과된 점 사과드리면서 여기 연사들한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司會 : 감사합니다. 제 1세션 좌장을 맡아서 아주 멋진 진행을 해주신 양수길 원장님과 발표·토론에 참여해 주신 양측 발표자 여러분 그리고 플로어에서 적극적으로 질의에 나서주신 단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후 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2시부터 한일 양국 고문, 단장단, 전문위원장 그리고 제1세션 사회자께서는 공동성명 심의를 위한 오찬회가 42층 샬롯데 스위트룸(42F Charlotte Suite)에서 있습니다. 일반참가단원 여러분께서는 옆 방 크리스털볼룸 I (Crystal Ballroom I)에서 옆방에서 오찬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1시 반부터 개최되는 제2세션도 바로 이 자리에서 개최됩니다. 시간을 엄수하면서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午餐會>

5. SESSION II

議題 : 韓日兩國의 協力課題와 對應方案

司會【柳奉雨 (社)韓日經濟協會 理事·事務局長, 以下同一】: 안녕하십니까?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오전 회의에 이어서 제2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제2세션은 오전에 있었던 제1세션과 조금 다르게 진행됩니다. 본 회의에서는 한국측에서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이신 설원봉 대한제당(주) 회장님과 일본측에서는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이신 사메시마 후미오 태평양시멘트(주) 사장이 공동의장이 되어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설원봉 회장님, 사메시마 후미오 사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1) 兩側 共同議長 人事

薛元鳳
韓日經濟協會 副會長
大韓製糖(株) 會長



방금 소개받은 설원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메시마 후미오 사장님과 함께 제 2세션 회의의 공동의장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회의에서는 '韓日兩國의 協力課題와 對應方案'이라는 주제 하에 먼저 한국측에서 두 분이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 그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이어서 일본측에서 주제발표를 하시고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코자합니다.

아무쪼록 한일양국의 협력방안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상호협력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본측의 사메시마 후미오 사장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鮫島 章男
(SAMESHIMA Fumio)
日韓經濟協會 副會長
太平洋시멘트(株) 社長



설원봉 회장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평양 시멘트 주식회사의 사장을 맡고 있는 사메시마 후미오라고 합니다. 평소부터 깊이 존경하고 있는 설원봉 회장님과 함께 제 2세션 의장을 맡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2세션에서는 한일 양국의 공통되는 몇 가지 과제를 들어 세 분께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각각 시기적절한 아주 흥미로운 주제이므로 한정된 시간이긴 합니다만 부디 여러분들께서도 활발히 질문과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설원봉 의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2) 韓國側 主題發表

薛元鳳 議長 : 감사합니다. 그럼 주제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제발표는 한 분이 20분으로, 시간을 가급적 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발표는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님께서 『한일 양국 간 무역확대의 전망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현원장님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과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14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신 후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대외경제조정실 과장을 거쳐서 세계은행 Economist 및 대통령 경제비서관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이후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국고국장, 세무대학장 및 ASEM 사업추진본부장, 부총리 특별보좌관으로 활약하셨으며,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로 활동 하시면서 인재육성에도 많은 노력을 해 오고 계십니다. 그럼 현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크게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韓日兩國間 貿易擴大의 展望과 課題』

玄 旻 錫
韓國貿易協會 國際貿易
研究院 院長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제무역연구원장 현오석입니다. 우선 이런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준비 한 파워포인트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대강의 순서는 우선 한국의 교역현황을 살펴 본 다음에 한일 양국 간의 교역관계 그리고 교역의 구조 그 다음에 양국의 교역 확대에 대한 과제로 FTA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교역동향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최근, 1/4분기에 비교적 한국의 수출은 호조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별로 15%를 증가했습니다. 당초 세계경기가 둔화될 거란 예상과 달리 상승세가 지속하는데 크게 원인이 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입은 같은 기간에 13% 증가해서 현재 3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1/4분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수입의 안정세는 원자재 수입가격에 대한 안정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원화강세에 따른 소비재 수요의 증대가 그 원인인가 합니다. 이 수출동향에 대해 살펴보면 반도체 라든지 선박, LCD 수출이 지난해 이어서 호조를 지속하고 있고 시장으로 보면 선진시장보다는 멕시코라든지 러시아 또는 베트남 이런 신흥시장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을 품목과 지역별로 보면 유가의 안정으로 원자재 수입 증가율이 둔화되었습니다. 자본재는 액정디바이스라든지, 정밀기계 등이 수입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는 역시 중국이 수입을 주도해서 전년 동기비로 41%나 많이 늘어난 걸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특히, 대중 철강 판이라든지 LCD등의 수입이 급증하였습니다. 한·중·일간의 역내교역도 최근 들어서 상당히 활발하고 있습니다. 한중간의 교역 규모는 2002년 5년 전에 비해서 2.9배 정도 상승했고 또 한일·일중 간의 교역도 2배 상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 간의 교역은 거기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중·일 삼각의 이러한 교역 구조는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적자, 중국에 비해 흑자였던 반면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 적자라는 이러한 삼각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대일교역관계를 간단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도의 교역규모는 앞서 여러분이 언급하신바와 같이 전년대비는 8%정도 늘어서 784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첫 번째 수입국인 동시에 세 번째 수출국입니다. 1/4분기 중에 대일 수출은 오히려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러한 주요원인은 석유값 안정에 따른 석유제품의 감소와 컴퓨터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된 데에 기여합니다. 한편, 수입은 원/엔 환율의 하락 등으로 인해서 10% 가량 증가한 117억 달러를 기록하여 수입은 1/4분기 중에 64억 달러 한국측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출 품목은 한국으로 볼 때 석유제품, 반도체, LCD 특히 최근 2년 간 LCD 수출이 증가한 반면에 대해서 철강판, 컴퓨터 수출은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대일의 주요한 수입품목으로는 반도체, 철강판, 반도체 제조용 장비라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 생산에 대한 자본재와 원자재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흑자는 98년 이후에 한국은 흑자로 전환이 되었으나, 대일 적자는 지속적으로 지금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 폭도 다소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상품 상에서의 교역의 현황이었고 한편으로 서비스 간의 교역의 현황을 보면 최근 들어 재미있는 상황이 대일본 서비스 수지가 2000년 이후 계속적으로 흑자폭이 줄어들고 있다가 2005년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서비스 수지도 한국으로부터의 대일적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은 기본적으로 여행수지 흑자의 축소와 특허권사용료 등 이러한 기타 서비스 수치가 악화되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특허권 등 사용료 수치는 적자를 기록한데 기타서비스 전체는 흑자를 기록하게 된 것은 광고료라든지 최근 들어서 한국측의 일본기업에서의 그러한 서비스가 수준이 늘어난데 기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적교류 역시 최근에 좀 변화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일본 출국자는 굉장히 높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년 상반기에 24%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일본인의 한국방문객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기본적으로 원/엔 환율의 하락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작년 상반기의 한일관계 경색으로 인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앞에서도 여러분이 언급하셨듯이 한국의 대일본 투자는 14억 달러, 전체에서는 한국 전체의 해외 투자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의 11번째 해외투자 대상국임 반면에 일본의 대한국 투자는 미국에 이어서 2번째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200억 달러의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한일·중일 간의 교역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일본에 수출한 수출제품의 수출 구조를 살펴보면 대일 수출은 중화학공업이라든지 IT산업 비중이 확대되어 소위 대일 수출구조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전자부품 등 석유화학 수출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중화학공업인 전체구조는 한국에 대일구조에

있어서의 수출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대일 수입구조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말씀드릴 부품 구조상의 문제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원자재와 부품 소재 및 기계류 등 중화학공업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만 비중은 거의 변동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역시 한일 양국 간의 수출경합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에 100대 수출품목을 저희가 뽑아보니까 95년도에 32개 품목이 새로 경합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작년 48 품목으로 늘어났습니다. 디지털 반도체라든지 액정 디스플레이, 컴퓨터 부품, 자동차 부품 등이 경합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미국시장이라든지 중국시장 또는 전체 세계시장에서 한일 양국 간의 경합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경쟁에 치열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또 하나 재미있는 현상은 부품 수입에 있어서 중국으로부터의 부품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부품 수입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전자부품에서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하는 것은 늘어나는 반면에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표에 있듯이 전자부품, 전기기계 부품, 정밀기기 부품에서 중국으로부터의 부품수입이 늘어나는 반면에 일본으로부터의 부품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강이라든지 실리콘웨이퍼 등 한국의 주요한 핵심 부품소재 수입은 여전히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부품소재산업에서의 대일역조에 커다란 개선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

도체 수출 확대는 일본으로부터의 웨이퍼라든지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수입이 증가로 연결되고 있고 자동차 수출의 확대는 마찬가지로 대일 철강 판의 수입 증가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역시 앞서 한·중·일 3국간의 역내 교역을 살펴봤습니다만 부품교역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중간의 교역구조는 부품의 교역구조는 3배 정도 늘었고 일중간의 부품교역은 한 2배 정도 늘었는데 오히려 한일 간의 부품교역은 한 1.7배 정도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부품에 있어서 일본으로부터 중국의 수입증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의 부품소재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2가지 측면에서 결국 대일무역수지 적자는 지속되는 가운데 대중 무역수지 흑자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서 한국 전체 무역수지 흑자 축소 추세가 우려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부품소재 분야에서의 중국에 대한 기술우위 유지 및 일본과의 기술 격차 축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중무역수지는 오히려 줄어든 반면에 대일무역수지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이 이러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양국 교역확대 중 과제로 FTA 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지적하셨듯이 현재 한국은 동시 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효 중인 것이 ASEAN 지역을 비롯해서 4대 트레이딩 파트너와 FTA가 종료되어서 지금 이제 발효 중에 있고 협상 중인 미국이 지난 4월 2일 타결됐고 현재 협상 진행 중인 것이 멕시코, 인도, 캐나다 그리고 일본이 진행을 하다가 작년 2003년 12월에 시작해서 6차 협상 이

후에 갑자기 중단된 상태로 있고 공동연구의 연구일원으로서 나중에 MERCOSUR와 중국이 공동연구단계를 시작했습니다.

한일 FTA는 여러 번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반복하지는 않고 2004년 11월 이후에 지금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고 양국 간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보완적인 산업구조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시장 확대에 따른 교역확대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 GDP의 17% 그리고 인구의 1억 7천만 명의 단일시장 형성에 따른 규모의 경제와 경제의 효율화 그리고 인적 교류의 확대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국의 KIEP와 일본의 IDE에서 이런 경제적 효과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앞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한일 FTA는 반드시 경제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 외교적 전략적 효과를 예를 들어서 국제신인도에 향후 제고로 인해서 한일 동맹의 경제적 가치가 신장될 수 있고 통상마찰 가능성 축소로 한국에 일본에 대한 감정 완화에도 기여하고 또 한반도 안정성의 제고에도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핵문제 해결을 포함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 조화의 효율성 증대와 개성공단 등 대북경협에의 일본 기업의 참여도 가능하다. 그리고 지역협력으로써 앞서서의 세션에서 논의했듯이 동북아 지역협력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된다. 그리고 동아시아, 동북아 지역협력에서의 외교적 입지도 강화할 수 있고 또 다른 영내국 중국이라든지 이런 국가와의 관계개선 특히 자원부족이라든지 에너지 공급 등에 대한 대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제로써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비관세장벽을 포함하는 관세장벽이 한국보다 일

본의 관세가 낮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관세의 표준관세율은 11%인데 비해서 일본은 3%, 농산물에서도 상당히 차이나는 것이 역시 한일 간의 FTA의 하나의 과제가 되겠고, 기타 항공이 일본에서 지배하는 여러 가지 통관이라든지 또는 위생 또는 거래관계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기본적으로 한일 FTA는 조속히 제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양국에 관심 가운데 국민에 대한 재검토와 또 한국이 원하는 투자와 기술이전 확대에 대한 일본측의 배려 그리고 한일 기업에 공동의 제3국 투자 확대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정부 간의 협상에 앞서서 민간 베이스 간의 앞으로의 협력도 제안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일 FTA 구체적인 효과는 '기업'의 노력에 의해서 실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일 FTA 협상 진전 이상의 어떤 민간의 협력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지향하는 것은 한미 FTA의 경우에 한국의 경우에는 KOREA US FTA Industry Alliance와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상 커뮤니티 Business Coalition 커뮤니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일 FTA도 정부 간의 협상 재기 이전에 이러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양국 간의 기본적인 어떤 그라운드 의욕을 하면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일 양국 간 그리고 양국 정부 간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하는 걸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薛元鳳 議長 : 현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지금 현 원장님께서 오늘 오후에 서울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으셔서 곧 퇴장하셔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주제 발표 후에 하기로 했습니다만 또 한 번의 주제 발표 전에 약간 2, 3분 정도 질의를 받고 현 원장님의 말씀을 듣기로 하고 그리고 곧 퇴장하실 예정입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현 원장님 말씀에 질의 있으신 분 말씀 해 주시죠. 플로어에서 좀 활발한 질의가 있었으면 합니다만, 특별히 현 원장님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지 또 일본측에서 있으신지. 그러면 제 2주제로 넘어 가기로 하겠습니다. 현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하겠습니다. 또 양해를 구해야 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침에 이상 기류로 인해서 비행기가 뜨지 못해서 풍산의 류진 회장께서 항공편 결항으로 참석을 못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부득이 (주)풍산 동래공장 대표이신 박우동 대표께서 발표하시게 되어 양해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이 자료는 류진 회장님께서 준비 하시기 때문에 류진 회장님의 약력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류진 회장님께서 서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셨으며, 현재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한국 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그리고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는 한·미 태평양연안주 합동회의 의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대신 말씀 해주실 박우동 동래공장 대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영남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오시고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시고 풍산에 오래 계셨고 현재의 대표로 계십니다. 그럼 박우동 대표님, 류진 회장님을 대신해서 주제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韓日兩國間 投資増進을 위한 環境 造成』

朴 宇 東
(株)豊山 專務



방금 소개 받은 풍산 동래공장 대표 박우동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회장님이 공항에 나오시려고 준비하시다가 갑자기 그런 기상악화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참석하면은 오늘 참석하신 우리 한일경제인 모두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꼭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류진 회장님께서 준비하신 주제 과제에 대한 내용을 제가 대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한일 경제 협력의 중요성 증대>

세계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한일경제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다자간에서 양자 간으로” 이는 작금의 세계경제 및 통상환경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용어 중 하나입니다. 1995년 다자간 무역협력을 위한 WTO가 출범하면서 다자주의 협정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출범 이후 오히려 지역간 FTA를 통한 지역경제통합의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변화는 경제개발전략 등 구조적 측면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게 양국 간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동반 성장은 물론 나아가 다자간 협상무대에서의 영향력 제고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정체 국면에 있는 한일 투자관계>

정체 국면에 있는 한일 투자관계는 어떠합니까?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 간 경제관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한편으로는 보완적관계로,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을 돌이켜보면, 교역, 투자, 산업 및 기술협력 측면에서 절대규모는 확대되거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양국 간 경제관계는 정체 또는 상대적으로 축소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배경에는 양국 경제가 산업구조의 유사성으로 인해 상호 보완적이기 보다는 대체적·경쟁적 측면이 강한데 따른 요인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이와 함께 중국과 ASEAN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는 가운데 양국이 이들 국가지역과의 교류를 크게 확대하는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한일 양국 간 경제관계의 정체 현상은 교역 규모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투자관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1998년 이후 한일경제협력관계 개선과 투자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이 전개되면서 양국 간 투자규모는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한국의 대일 투자규모는 1억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일본의 대한 투자 역시 2000년과 2004년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20억 달러가 채 안 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1962년부터 2005년 현재 누계기준으로 보면 일본은 한국에 있어 미국, EU 다음으로 3대 외국인투자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양국 간 교역 규모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논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한국이 일본의 20대 외국인투자국인 점을 고려하면, 양국 간 투자관계에 있어 한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일본의 대세계 직접투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점은,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국 간 투자증진을 억제하는 장애요인>

양국 간 투자증진을 억제하는 장애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대한국 투자가 여러 경쟁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는, 무엇보다도 일본의 저임금 활용형 자본이 상대적으로 투자여건이 열악해진 한국을 떠나, 중국과 ASEAN 등으로 이전한 데 따른 요인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기업 역시 한국의 투자환경과 관련한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여전히 제도의 불투명성과 자의적 운용, 그리고 세제부문에 대한 애로사항을 제기되고 있으며, 수출입규제와 통관규제, 고용·노사관계 및 기업에 대한 규제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 간 투자관계 확대를 저해하는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양국 간 산업구조의 유사성에서 비롯된 상호 의존적 분업구조와 기술적 종속관계라는 구조적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양국의 산업구조는 점진적이거나 수평적 분업관계가 심화되는 상호 의존관계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핵심 수출품목에서는 기술격차로 인한 수직적

분업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수직적 분업구조 하에서는 한국의 대일본 투자가 원천적으로 쉽지 않으며, 일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 역시 한국 내 동일 업종 및 관련기업에 투자하는데 있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국 간 투자관계에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투자 환경 개선 노력>

다음은 한국의 투자 환경 개선 노력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세계적 경제위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산업구조 및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IMF 경제위기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외국인투자 정책 기조를 “규제, 관리” 방식에서 “촉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여, 투자절차의 간소화 및 투명성 제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즉 외국인투자 제한요소가 철폐되고 자본거래가 자유화되는 등 제도적 측면의 외국인투자 환경은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투자 환경이 제도적 측면에서 다른 경쟁국에 비하여 취약한 투자 여건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인센티브, 규제완화 장벽 제거 지연, 행정적 지원체제 정비 미흡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일본기업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배타적 감정과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이고 과감한 변화와 개선의 노력을 경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특히 불안정

한 노사관계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은 노동법을 개정하여 정리해고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파견제도 등을 도입했으며, 노사정 합의를 통한 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지주회사제도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점진적이나마 창업과 소유권 등기 및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기업규제가 완화되면서 대내외 투자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국 간 투자증진의 필요성과 중요성>

양국 간 투자증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는 단순히 경영 참여를 위한 자본의 유입뿐 아니라 무형의 경영자원인 기술·특허·상표·경영 및 마케팅 노하우 등 기업의 제반자원이 이전되는 효과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은 지대합니다. 특히 국내 자본형성을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할 뿐 아니라, 기술이전 및 교역 활성화를 통한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함에 따라 고용창출 및 외환 확보, 경쟁촉진 등을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은 중국이나 ASEAN 등 주요 경쟁국에 뒤지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03년 1월 발효된 한일 투자협정(BIT)은 양국 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일본기업 또한 투자처로서 한국을 재인식하는데 크

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한일 투자협정(BIT)은 양국 간 FTA 체결을 향한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기에 한국으로서는 원활한 협상과 신속한 체결을 위해서라도 일본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려는 가일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일 양국은 급부상하는 중국 리스크 요인을 감소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본은 양국 간 FTA 논의 초기단계부터 정치적·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한국 역시 모든 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어 자본·기술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중국경제의 급부상으로 해외 수출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한국기업뿐 아니라 일본기업에게도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양국은 중국경제의 급속한 양적 성장과 질적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경쟁력 확보 및 유지 노력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일 FTA를 통한 투자 증진 도모>

그리고 한일 FTA를 통한 투자 증진 도모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직면한 상황을 고려하면, 양국 간 FTA 체결은 양국 기업 간 투자 증대를 유발하여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한국기업의 연구개발 능력 강화, 생산성 향상, 구조개혁 촉진 등 동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역내 분업구조상 한국의 위상을 확보·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양국 간 투자 확대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게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급속한 고령화 시대

로 들어서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시설 일부를 해외에 재배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양국 간 투자 촉진은 분명 일본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양국 간 FTA가 곧바로 양국 간 투자 확대에 연결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양국의 직접투자를 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라는 점에서 FTA의 역할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은 여전히 세계적인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선진국으로서 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일본 또한 대내외적으로 한국의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일 FTA 체결은 양국 간 투자 증진을 위한 환경 개선 등의 경제적인 효과 외에도, 동북아 분업구조 및 동아시아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의 변화에 부합하는 경제협력의 틀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 측면에서도 한국 내 반일(反日) 감정을 해소하고, 일본 내 왜곡된 대한(對韓) 시각, 즉 무지(無知)에서 비롯되는 무관심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사회의 구조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보다 반목과 대립의 관계가 보다 강했던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환경을 직시할 때, 한일 양국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아시아지역 및 자국의 국익 향상을 고려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협조와 이해를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은 한일 FTA는 물론 양국이 기대하는 미래지향적인 통상관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3) 質疑應答

薛元鳳 議長 : 박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한국측의 주제발표를 마치고 한국측 주제발표에 대한 여러분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손으로 표시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주제발표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식사 후에 또 오전에 격한 토론도 있었고 있어서 좀 피곤하시겠지만 혹시 질문이나 의견 또는 꼭 이것과 주제가 맞지 않더라도 이 자리를 빌어서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구 전 상공회의소 회장이신 노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떠십니까?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의견이라든지 좋은 말씀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盧喜燦 三一紡織(株) 代表理事 會長, 大邱商工會議所 名譽會長 : 설원봉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2004년에 대구에서 상원식 회장님 취임 시에 한일 경제인협회 총회를 모시게 됐습니다. 그 전에 아마 2003년에 제가 히로시마에서 지난해에 빠짐없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 지난해의 삿포로(札幌) 행사에서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참석해서 늘 느낀 게 한일간의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서 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많은 토의와 논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을 해서 가끔 보면 좀 겉도는 현상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사실 이런 5년 동안에 한일간의 경제관계를 돈독히 해왔고 또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이

제는 터놓고 이해를 돕게 하고 건설한 대화로써 우리가 양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한일 FTA관계도 여러 주제 말씀대로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정말 우리 기업인들이 양국의 경제계에서 뜻을 모으고 이것들이 바로 정부와 정치적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앞으로도 한일경제인회의가 양국의 경제발전에 정말 실질적으로 크게 기여될 것으로 생각을 하며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薛元鳳 議長 : 감사합니다. 노회찬 회장님 감사합니다. 일본측에서 혹시 질문이나 또는 우리 노 회장님처럼 이번 회의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또는 말씀이라든지 질문이라든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토 유조 전 부회장님께서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瀬戸 雄三(SETO Yuzo) (社)日韓經濟協會 名譽會長, アサヒビール(株) 相談役 : 주제 발표 감사합니다. 매우 시사하는 바 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한일 투자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본에서부터의 투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리고 한국의 대일투자가 적다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대한 투자라는 것이 왜 이렇게 적은지 여기에 대해서 더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이면서 또 문화나 역사적인 부분에서 많이 공유하고 있는 민족이면서 왜 그것이 불가능한지 투자 저해 문제들이 점점 없어지고 또 이것이 활발해지면 한국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과도 연결이 되고요. 고용과도 연결이 됩

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발전되면 FTA의 촉진에도 이어질 겁니다. 이러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어려운지 물론 FTA도 그렇지만 투자관계도 그렇습니다. 왜 이런 것을 항상 양국 경제인들 사이에서 생각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이 있었듯이 진정한 본심의 대화 흥금을 던 진정한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모임에도 있었지만 왜 이 FTA가 저해되고 있는지 어려운지 그 실체를 잘 모른다, 정부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지 경제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 되는지 역시 저희는 경제계의 사람들로써 이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이었습니다.

薛元鳳 議長 : 세토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KOTRA에서 나와 계신 김승준 위원님 계신지 모르겠네요. 조희장님께서 직접.

趙錫來 團長 : 방금 세토회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또 노회찬 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또 솔직한 의견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세토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라든지 혹은 또 정부의 규제문제라든지 그런 등등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한일경제인회의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또는 일본측에서 한국에 투자하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지면 일본의 투자가 한국에 많이 들어오는 건지 또 한국측에서는 일본의 투자가 어떤 형태로써 해주심으로써 한국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 혹은 또 서로가 Win-Win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촉발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혼네로, 좀 더 깊이 논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찬성을 해주신다면 사실은 우리가 공동성명에도 그러한 문제를 넣어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저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좀 더 그런 일을 파헤쳐서 문제점을 노출시켜서 그 문제점을 서로 솔직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지 않느냐, 우리가 39번 했는데 39번을 하면서도 아직도 서로 잘 모르는 것 같은 얘기가 된다면 우리 하는 일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파헤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많은 일본 분들한테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너무나 무섭다, 또는 우리나라의 정부의 규율은 투명하지가 못하고 잘 모르겠다, 이런 응답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 자체는 우리도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薛元鳳 議長 : 감사합니다. 조 회장님. 그런 의미에서 조 회장님께서 이번에 전경련 회장님까지 맡으신 것을 비롯해서 상당히 힘든 일이긴 하지만 저희 양측 회장단 및 단원들은 크게 기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조 회장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鮫島 章男 議長 : 의장석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만, 제 경험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에 쌍용시멘트에서 투자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습니

다. 태평양 시멘트가 현재 약 일본 돈으로 600억 엔을 넘어선 투자를 쌍용시멘트에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태평양시멘트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웃나라 그리고 같은 업종, 동업이며 매우 훌륭한 생산설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곳을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현재 그러한 의미에서 쌍용시멘트의 경영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아까부터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노사문제, 노사관계 등등은 저는 다시한번 한국과 한국의 노사관계라는 것은요 회사에 따라서 천차 만별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쌍용시멘트 노사관계를 보면 대단히 매우 뛰어난 매우 수준이 높은 노사관계입니다. 저는 매우 놀랍습니다. 회사는 지금 재건의 중간 도상에 있지만 그 재건을 위한 노사의 일치단결이라는 것은 아주 끈끈하고 좋은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반드시 꼭 좋은 훌륭한 회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대한투자가 적다, 이러한 말씀이 있고요. 그 이유는 저는 역시 북한의 문제를 빼고 거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간 기업에 투자에 대해서입니다. 역시 정치적으로 미래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항상 우려하면은 좀처럼 투자에 과감히 나설 수 없는 것도 사실이구요. 혹은 그다지 아직 그러한 부분이 크진 않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조금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느껴집니다. 의장석에서 좀 외람된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薛元鳳 議長 : 사메시마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주 생생한 말씀 해 주셔서 큰 성과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밖에 또 혹시 말씀이나 질의나 의견을 해주실 분계신지

그러면은 이것으로써 한국측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 의견, 토론을 마치기로 하구요. 사메시마 후미오 회장님. 일본측 주제발표로 넘길까 합니다.

(4) 日本側 主題發表

鮫島 章男 共同議長 : 설원봉 의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일본측의 주제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측에서부터는 마쯔시타 전기산업주식회사의 오오츠루 히데수구 이사님으로부터 『松下電器가 挑戰하는 環境經營』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오츠루 이사님은 일본의 오이사현의 출신이시며 큐슈 공업대학교를 졸업하신 후에 마쯔시타전기산업에 입사하셨습니다. 그리고 98년 取締役(취체역) 즉 이사로 취임하시고 관련 회사의 사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그 후에 마쯔시타전기산업에서 주로 금지 환경 등을 통괄하셨고 리싸이클(Recycle)사업, 재활용사업등을 추진해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풍부한 경험과 또 깊은 조의를 갖고 계신 오오츠루 이사님으로부터 저희 한일의 공통과제라고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기업에 선진적인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오츠루 이사님께서서는 이 광범위하고 또 구체적인 내용을 30분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 내에 발표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오츠루 이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松下電器가 挑戰하는 環境經營』

大鶴 英嗣
(OTSURU Hidetsugu)
松下電器産業(株)
取締役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마쓰시타전기의 오오츠루입니다. 오사카에서 왔습니다. 어제 이 개회식에서 양국의 단장님으로부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 새삼 인식을 새롭게 한 것이 있습니다. **한일 양국 간에 있어서 경제교류 그리고 인적교류 또한 문화교류가 대단히 그리고 꾸준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듣고요. 감명을 받았고 한일 양국이 서로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상대국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토론을 통해서 새삼 느꼈습니다. 마쓰시타전기도 한국 분들에게는 저희제품을 통해서 혹은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공급하는 것 등등을 통해서 참 많은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제가 단상에서 실례가 뵙니다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일 경제인회의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주제 발표를 해서 저희 회사의 환경 경영에 대한 노력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진적이라고 아까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선진적이라기보다 평소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말씀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발표가 한일양국이 환경과 경제양립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저에게 있어서 커다란 행복입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환경문제에 대한 저희의 기본 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즉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정부 Company의 제4차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팬 리뷰에도 있듯이 저희의 경제활동은 이미 이 지구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게 아닐까, 이러한 우려감을 안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구 환경과의 공존은 인류 공통의 그리고 초

미의 과제이며 기업을 존속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21세기의 장차 지향해야 할 사업비전으로써는 **유비쿼터스네트워크(Ubiquitous Network)** 사업의 실현과 그리고 인류와 지구 환경과의 공존을 내걸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와도 네트워크(Network)를 통해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인류와 지구환경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사회 이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환경문제의 최첨단의 기술로 공헌을 하면서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기업의 주어진 사명이며 또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순서대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환경경영의 개요를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회사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새로운 삶의 가치 창조』에 대한 도전과 세 번째로는 이것을 지탱하고 있는 Green Products에 대한 도전 그리고 네 번째로는 Clean Factory를 향한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공장에서 제조에 있어서의 환경배려, 다섯 번째로 가전 재활용 여섯 번째는 환경 커뮤니케이션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파트너십 확립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의 환경 경영의 개요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저희 회사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쓰시타전기는 1918년 지금으로부터 89년 전에 松下幸之助(마쓰시타 코노스케) 창업자와 그 안에 무메노씨 그리고 무메노씨의 남동생 이 세 분이서 스타트를 했습니다. 창업을 했습니다. 바로 지금 시대에 말하는 벤처기업이었습니다.

덕분에 전 세계의 고객님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아서 작년도 매출액은 8조 9000천억 엔, 종업원은 전 세계적으로 약 33만 명 이러한 사업규모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로써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그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사업 분야로써는 TV, 비디오, 카메라, 오디오, 휴대전화 등 소위 AVC네트워크라는 분야이며 이것이 전체 매출의 38%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백색가전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만 냉장고나 세탁기, 전자렌지, 에어컨 등 가정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Appliance 분야에서 약 12%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여기 나와 있듯이 반도체나 전자부품, 전지와 같은 부분 그리고 또 PanaHome 집까지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창업 이래로 경영이념에 근간으로 삼아왔던 생각,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경영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松下(마쓰시타) 고노스께 창업자의 경영관에 근거한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기업은 사회의 공기」 즉 공공의 그릇이라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업은 사회로부터 사람과 자금, 토지나 건물 또한 여러 가지 소중한 지구자원을 활용해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고 또 그 결과 사회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즉 이익을 조금씩 받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최근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관심이 매우 고조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말하자면 기업은 사회의 공기, 공공의 그릇이라는 생각이야말로 CSR, 기업의 사회

적 책임을 뜻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경영이념 실천에서는 저희 회사의 현재 회장님 나카무라(中村) 회장님이 알기 쉽게 「정직」한 회사가 되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을 지고 하자 그리고 만약에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바로 즉시 시정하자, 그러니까 투명과 자정, 즉시 시정 이런 것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환경 활동에 연혁을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1960년대 중반부터 공해 방지를 위한 각종 환경대책법이 정비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도 1970년대는 환경대책을 중심으로 소위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문제로 1980년대 중반부터 오존층 보호와 같이 전 지구 규모로 확대해서 1992년에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정상회담에서 대표되듯이 환경문제는 인류 공통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도 1990년대는 전 지구규모의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환경보존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는 전 세계 110개 사이트가 있는 데요. 전 세계 제조 사이트에서 ISO14000 이래 인증을 취득,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서 환경, 경제, 사회 이런 것을 공존시키는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도 2000년대에는 사업 경영 그 자체의 것들 중에서 환경 배려를 모두 적용해서 추진해 나가자 즉 환경 경영에 나섰습니다.

현재 본사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 경영의 기본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본사는 경영기본 방침 하에 1991년 창업자의 마쓰시타 고노스께의 인간관 혹은 우주관을 토대로 한 환경 선언을 대내외

에 발표했습니다. 2001년에는 환경비전을 책정했고 2010년을 향해 10년간의 장기 환경 동향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이 환경 비전에서 내걸었던 7가지 분야에 대해 2010년을 목표 연도로 하는 구체적인 환경 행동계획, 사내에선 이것을 Green Plan 2010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을 책정했습니다. 이는 지구 환경과의 공존을 지향한 본사가 사회의 여러분들과 같이 한 약속이다 계약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의 환경 활동은 모두 이 환경비전을 토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리해 놓은 것은 일본에 있어서 일본 국내의 온난화 효과 가스 이산화탄소 CO₂ 배출량입니다. 본사의 제품이 대부분이 일반 가정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었을 때의 CO₂ 배출량은 여기 나와 있듯이 2,083만 톤으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만들기 위해 공장에서 배출되는 CO₂ 배출물량의 10배나 됩니다. 2,083만 톤이라는 것은 일본국내의 가정에서 배출되는 CO₂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저희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인식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 회사는요. 새삼 가정 내의 에너지 감축을 위해서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제품 만들기가 더욱 더 중요해진다는 자각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새로운 삶의 가치 창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사는 고객에 삶의 도움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고객에게 이것을 제공하는 것을 저희의 임무,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삶의 풍요로움, 생활의 질을 재고시키는 것을 우선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다른 한편에서는 에

너지의 소비 확대를 초래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손님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면서도 동시에 환경에 대한 영향 부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해 나가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삼으며 이러한 생각을 지속가능한 새로운 삶의 가치창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환경과 경제 발전을 양립시키는 생각이며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세워서 방금 말씀드린 지속가능한 새로운 삶의 가치 창조를 진척사항을 검토하면서 계속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지속가능한 새로운 삶의 가치창조를 구체적인 모양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고객들이 느끼기 위해서 집을 만들었는데 이 집의 이름 EU(Eco&Ud, Ud는 Universal Design의 약자) House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것입니다. 이 EU House에는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가족 모두가 모여서 말하자면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 필수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사용하기 편하게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필수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Eco와 Ud, Ud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약자입니다. 쾌적하고 풍요로운 생활 공간 실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EU House에서는 2010년을 상정해서 1990년과 비교해서 생활의 질을 2배로 늘리고 분자를 2배로 늘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0.4배 줄입니다. 분모는 줄이는 거죠. 그래서 Factor 5, 저는 팩터라고 부르고 있는데 Factor 5의 실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Factor라는 것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 얼마만큼 제품 가치를 향상시켰는지 이것을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하는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환경과 경제, 환경과 사업 이것이 양립된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이 가능해집니

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생활의 질은 현재 표준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생활의 질은 현재 집 1채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 기능에 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기 때문에 기능에 숫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품기능에 숫자는 제품 수의 증가를 더해서 현재 다기능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1990년은 집 1채로 숫자로 보면 90이었는데요. 2010년에는 이것이 180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생활의 질은 2배로 향상될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 중 어려운 공식 같은 것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1년간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입니다.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기기 자체에 의한 에너지 절약 그리고 고성능 단열재에 의한 에너지절약 그리고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사용한 에너지 절약 또한 연료전지나 태양광발전에 의한 에너지 절약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잘 균형을 잡아서 조합하면은 밑의 공식이 나와 있듯이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은 1990년을 숫자 1로 봤을 경우 2010년에는 약 0.4 즉 60%감축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활의 질은 2배가 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0.4배로 감축되므로 이렇게 계산하면 Factor 5가 실현됩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삶의 가치창조를 지탱하고 있는 소위 Green Products를 향한 도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당사의 환경배려제품이 Green Products 친환경 제품을 저희 회사에서는 Green Products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삼각형 보시면 밑에서부터 몇 가지 저희가 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이 필수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충족하지 못하면 판매자체를 못합니다. Green Products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품의 Assessment

(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환경 효율의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또 이 환경효율과 Green Products의 개발 율에 대해서는 연도 별로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면서 경쟁력 있는 Green Products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의 멤버원의 환경배려 성능 즉 친환경성을 실현시킨 제품을 압도적 GP(Green Products), 탁월한 우월한 G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발상으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한 제품을 그 위에요 슈퍼G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환경성능이 높은 것을 슈퍼 G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내에서 표창을 하거나 혹은 사외 대외적으로 어필해서 개발에 대한 동기부여로 올리고 또 그 결과 사회에 대한 기여, 공헌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Green Products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환경배려에 대한 기술이 뛰어난 것을 Black Box 기술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요소, 기술개발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제품에서 환경 배려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스형 TV의 대형화가 가정 제품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는 현재 전력을 다해 PDP TV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 해 그 성능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년 전의 이 제품과 비교해 45%나 에너지 절약을 저희가 달성했습니다. 이상 저희는 세계최초로 플라즈마 패널 TV, PDP를 납을 없애는 것을 실현을 하였습니다.

Non-front냉장고는 2006년 2월에 제1호기를 판매를 하였습니다. 2004년 4월에는

현재 일본시장에서 생산 판매하는 모든 가정용 냉장고에서 Non-freon 타입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하였고 완료 되었습니다. Non-freon 냉장고가 시장에서 받아들여진 것은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에 변화에 대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로써는 독자적으로 진공단열제를 개발함과 동시에 이른바 파워 일렉트로닉스(Power Electronics) 기술을 구사하여 에너지 절약을 크게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안전하고 효율이 높은 21세기 발전시스템에서 차량적재용과 가정용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소와 산소를 발화시킴으로써 전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기와 함께 발생하는 열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발전시스템에 2배 효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실험적인 실용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만 현재 본격적인 실용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납이 없는 납땀이 전 세계에 전국적으로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납은 인간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해서 여기 여러 분야에서 다들 지금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납이 없는 납땀을 2003년 3월말에 Panasonic National 회사제품에서 사용되는 납땀에서 납을 없애는 이런 목표를 저희가 또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런 특정화학 물질규제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EU에서의 이런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시는 바와 같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RoHS 지령이라 하는 것은 EU에 함유하는 제품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6가지 유해물질 작년 7월부터 금지되고 있습니다. 저희로써는 이 RoHS 지령에 대해서 단지 EU를 위한 제품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마켓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1년 앞당겨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고 실현하였습니다.

Green Factory 제조업에서의 도전에 대해서 Clean Factory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공장에 세계적으로 배출하고 있는 CO₂ 양에 대해서 나타났습니다. 그 생산고당 CO₂ 즉 원(原)단위로서는 삭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박스형 TV로 대표로 들면 디지털 가전의 순수한 확대와 중국에서의 생산 확대가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배출만큼 자체 삭감을 위해서 현재 다양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전 세계 공장에서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례로써는 셀 생산방식의 도입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셀 생산방식이란 고객과 집결된 제조를 하기 위해서 컨베이어 중심의 생산방식에서 변혁을 하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이것은 에너지 절약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DVD 플레이어 또는 DVD 레코더 생산 공장에서는 16개의 공장을 한 곳에서 완결시킴으로써 생산에 필요한 면적이 62%삭감, 줄게 되고 생산에 사용된 전력은 제품 1대당 제조하는 전력의 59%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IT를 이용해 생산성 향상과 환경부하절감을 모두 가능하게 한 생산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저희 회사의 전 세계 공장에 있어서의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000년과 2003년 비교를 해보면 일본 외의 지역에서는 폐기물 발생량은 늘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재활용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전 재활용을 향한 도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일본에서

의 가전 재활용법 시행에 따라 이것이 추진되었습니다만 가전 내의 제품을 업체가 책임을 지고 재활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가전재활용 공장으로써 보시는 바와 같은 마쓰시타 에코 테크놀로지 센터를 가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재활용 공장의 특징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재활용 공장에서는 먼저 상품에서 상품으로 이러한 것을 컨셉으로 삼고, 상품별 재활용 라인을 설치하여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세계에서 최초의 설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공장뿐만이 아니라 재활용 연구소를 그 옆에 병설하여서 저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리사이클 재활용 기술 앞으로 판매하는 제품도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3번째로 공장 공개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환경 교류의 장으로써 많은 학생 그리고 어린이들에게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분들도 많이 와서 관람하십니다. 4번째로는 공장주변에 일본술을 만드는 아주 유명한 쌀을 생산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지역과의 공존을 꾀하고 있습니다. 가전 재활용에 있어서도 4개 품목 각각의 독자적인 기술로 여기 그림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재활용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각각 돈을 주고 사 온 상품들이 되겠습니다만 TV를 그렇게 사와서 그것을 분해하고 또 거기서 나온 것을 또 돈을 받고 또 재활용을 하는 것을 이러한 것을 각각 어떤 비율로 되어있는가를 재활용률로 %로 나타내보았습니다. 그 상품에서 상품으로 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 표에 나타냈습니다만 금속과 유리의 재활용 또 플라스틱 또 결국 분류를 해서 재활용 하는 것은 점점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냉장고는 냉장고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을

새 냉장고에 바닥 부분으로 쓴다던지 세탁기의 바닥부분을 쓴다던지 이러한 식으로 저희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 커뮤니케이션을 향한 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을 향한 도전은 투명성을 갖고 사회에 전달을 하고 이러한 것이 쉽지는 않고 소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명 책임을 다하는 그 결과 기업의 가치가 향상된다면 좋을 것 같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사회·환경경영보고서, 이것은 일본어, 영어, 중국어로 저희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 있는 공장에 각각 환경 퍼포먼스와 그 활동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성장 리포트를 작성해 이것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는 세계적으로 Panasonic Brand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국내에서는 아직 백색 가전에 대해서 National이라는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판매의 일환으로서 National의 N을 따서 일본 내의 백색 가전에서는 에너지 절약 절수 상품을 보급해 가고자 합니다. 또한 고객과 이러한 것을 함께 에너지절약을 활동을 해나가는 것을 Brand 행사에 일환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Ed사업비전이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 실현과 인류와 지구환경과의 공존을 꾀하는 이 2가지를 가능하게 해주고요. 발신뿐만 아니라 수신하는 기지로서 도쿄, 오사카에 이른바 Panasonic Center를 만들었습니다. 국외,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 많은 분들께서 방문하고 계십니다. 한국에서도 만약 일본에 오실 기회가 있다면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저희 회사에서 업무 가운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역으로 돌

아오면 저희는 또 시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활에서 환경 친화적인 행동을 하자는 뜻에서 사원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식 영어 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Love the Earth(L♥E) 라는 뜻으로 회사의 임원들에게도 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시민활동의 이러한 점을 지역에 돌아가서도 환경 친화적인 행동을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더 하고 있는데요. 가정에 있는 회사원들은 가계부를 기록하자고 합니다. 에너지 절약, 전기를 끈다든지 아니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성장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연간 얼마나 자기가 에너지를 절약을 하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가계부를 쓰자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6년, 2007년도 그렇습니다만 약34,000명의 사원들이 가정에서 환경 가계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만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의 파트너십 확립을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구기온의 온난화 방지를 위해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토의정서를 보완하는 것으로 일본과 한국 그리고 미국, 호주, 중국, 인도가 6개국 모여 이른바 APP(Asia Pacific Partnership)라는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십이라는 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6개국이 앞에 그림이 있습니다만 세계 CO₂ 배출량에 약 절반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것입니다. APP는 관민 협조하에 세트와 어프로트, 8개 Task Force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주제, 테마에 대해서는 일본과 한국이 일단 지금 맡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와 관계가 깊은 건물 및 전기기기 이 Task Force에서는 한국이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 그 가운데 에너지절약 성능이 뛰어난 전기제품이 잘 보급되는 시장으로의 전환, 이 프로젝트에서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본이 리더를 또 맡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건물 및 전기기기 Task Force에는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만 에너지 절약성능이 뛰어난 전기제품의 개발과 보급에는 국제적인 협조 관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일본, 한국, 중국이 가전제품에 3개 생산국으로써 일본, 한국, 중국입니다. 현재 생산국으로써 이중에서도 저희 한일이 해야 할 역할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PP 환경부분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대응에 있어서도 한일이 파트너십을 이룩해서 세계를 리드, 주도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친화적인 제품 개발에 있어서도 그 시장에서 경쟁을 하면서 서로가 노력을 하면서 세계를 리드하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서로가 개발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제품의 보급과 촉진에 있어서는 각각의 베스트 프랙티스(Practice)를 공유를 하여 여러 국면에서 협조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일환경제인회의가 아시아에서의 온난화 방지를 위해 서로가 연계하여 지혜를 모아 기여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회의가 되는 것을 절실히 바라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質疑應答 / 共同議長 總括

鮫島 章男 議長 : 오오츠루 이사님, 대단히 시사적인 발표 감사합니다. 소개를 드릴 때 제가 발음을 잘못해서 오오시마 이사님라고 했는데 오오츠루 이사님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응답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오오츠루 이사님의 발표에 대해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거수를 해주시고 먼저 본인의 소속과 성함을 말씀을 해주신 후에 내용을 간결하게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金江熙 (株)東和Entec 代表理事 : 저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대표이사 김강희입니다. 환경보전에 대한 마쓰시타전기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뿐만 아니라 지구를 보전하기 위해서 그 많은 노력을 하신 점에 대해서 저도 큰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환경보전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지만은 한 가지 문제는 코스트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쓰시타전기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해서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몇 %나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돼 있을 때의 다른 경쟁사와 가격 경쟁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鮫島 章男 議長 :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大鶴 英嗣(OTSURU Hidetsugu) 松下電器産業(株) 取締役 : 질문 감사드립니다. 지금 질문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환경 커뮤니케이션에서 환경보고서 내에서

공개를 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환경회계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Global하게 환경비용은 580억엔을 경비로써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를 들어서 공장의 에너지 절약화라든지 에너지 비용이 낮아지는데 그것이 220억엔 그래서 3백 수십억엔 정도 직접적인 적자가 됩니다. 하지만 에너지 절약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고객에 제공해드리는 제품이 고객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추정한다면 그것이 660억엔 정도가 될 겁니다.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보면 저희의 활동은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 본다면 궁극적으로는 플러스가 됩니다. 저희 경영상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죠. 하지만 앞으로는 환경에 대한 대처, 노력은 저 자신은 확신을 갖고 있는데요. 비가격적 측면의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제조업은 생산요소적으로 따지면 품질이 좋고, 비용이 가격이 낮고 그리고 합리하게 시기적절하게 하는 QCD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 더해져서 환경에서 X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QCDCX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좋은 것을 싸게 그리고 빠르게 공급을 하면 전 세계에 이것이 다 확산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좋은 것을 저렴하게 빨리 그리고 환경에 배려한 친환경적인 제품이 아니면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그러한 세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성능의 경쟁이라는 게 발생할 것이고요. 이미 그러한 상황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鮫島 章男 議長 : 감사합니다. 다른 분.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金都亨 啓明大學校 國際學大學 日本學

科 教授 : 계명대학교의 김도형이라고 합니다. 환경문제에 관해서는 한일경제인회의 산하의 위원회이었던 일반산업위원회에서도 한일간의 산업협력 방안에 대해서 과거에 기초연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모처럼 환경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서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쓰시타의 환경경영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역시 환경과 무역의 조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 WTO에서도 새로운 이슈로 등장할 정도로 난제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기업인들 간의 또는 지방 한일 양국 간 또는 한·중·일 3국간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의 대학 간의 그런 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 이런 모임들이 NGO 레벨에서도 많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아까 6개국 파트너십 각종 회의에 참가하시면서 우리 한·중·일 3국간의 상당한 의견 차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구체적으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것을 양국 3국간 정부에 어떤 건의를 하실 수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문제점을 지적해주시면 우리가 앞으로 환경문제 대처하는데 또 앞으로 한·중·일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大鶴 英嗣(OTSURU Hidetsugu) 松下電器産業(株) 取締役 : 대단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 자신 APP 6개국의 노력에 직접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내용을 소상히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래서 답변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중·일 사이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선 저는 잘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APP 6개국의 노력이라

는 것은 대처방안은 특히 저희 업계와 관련된 것은 각각 최상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드러내고 이것을 좋은 것을 스스로 공유해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또 그러한 가운데서 서로 열심히 노력하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한중일의 시장 마켓이기보다는 거기서 만들어진 제품이 전 세계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의 환경에도 크게 공헌을 할 것입니다.

사메시마 의장님께서도 혹시 보충설명을 해주시면 부탁드립니다.

鮫島 章男 議長 : 실은 저희 회사도 일본의 시멘트 산업의 대표로서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십 APP의 시멘트 산업부문의 의장국으로서 일본 정부와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장국은 중국입니다. 회의가 작년 4월부터 열려서 지금까지 2번 정도 개최된 걸로 아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진전은 없습니다. 다만 기초연설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일본의 에너지 효율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각 산하인 6개국에 기술이전을 시켜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문제, 이것은 결국 개도국은 CO₂의 배출량까지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먼저 산업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개도국과 선진국가간의 의견의 차이라는 것은 필시 생길 겁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정도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질문 있으십니까? 네

舟久保 陽一(FUNAKUBO YOUICHI) 太平洋セメント(株) 秘書部長 : 태평양시멘트의 舟久保(FUNAKUBO) 라고 합니

다. 마쯔시타전기에서 지금 아주 폭넓은 환경대응책에 대해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환경에 세세한 부분까지 배려하시고 경영하시는 그런 자세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폐기물 리사이클 재활용을 잘 기능시키기 위해서는 산업 직접화에 형성이라고 할까요? 산업 간의 연계, 이것이 토대가 되어서 처음으로 폐기물 재활용이 효과적으로 기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뜻밖이라고 생각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자료 PPT 30페이지 ‘공장에서의 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률 제고’ 이것을 보면 특히 중국이 있는데요. 중국에서 귀사의 폐기물 재활용률은 구미보다도 높습니다. 거의 일본과 비슷한 수준까지 재활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것은 중국내의 폐기물 재활용의 산업 간 연계라고 할까요? 이것이 중국에서 어느 정도 틀이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만약 그런 게 없다면 귀사가 중국에서 이 정도로 재활용률을 제고시키고 있는 것은 그만큼 많은 노력과 또 방법을 구사하신 것 같은데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방법 등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大鶴 英嗣(OTSURU Hidetsugu) 松下電器産業(株) 取締役 :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공장 폐기물의 재활용률에 대해서는 산업 간 연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의 인프라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과 그러지 않는 곳에는 크게 다르다는 것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고민이 많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브라운관이라든지 또 물, 물을 재생해서 북경에서는 특히 물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의 재활용에 이런 점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사회의 일본계 기업의 입장을 보면 그 나라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鮫島 章男 議長 :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말씀하시죠.

高島 正之(TAKASHIMA MASAYUKI) 三菱商事(株) 顧問 : 三菱商事(미쓰비시상사)의 高島(TAKASHIMA)라고 합니다.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물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림 29의 셀 생산방식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물류를 간단하게 넘어가신 것 같은데요. 물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大鶴 英嗣(OTSURU Hidetsugu) 松下電器産業(株) 取締役 : 셀 생산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물류 로티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일본에서 이 모달시프트, 트럭에서 철도로 바뀌간다는 도쿄, 오사카의 거점을 크게 이제 묶고요. 나머지는 트럭으로 하는 또는 직접 트럭으로 간다든지 이른바 모달시프트라든지 저희 가전제품의 배송을 각각 지금 대리점에 배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 트럭의 환경 성능이 뛰어난 트럭으로 바꾸어 간다든지 이런 몇 가지 대응을 이른바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만 저희 회사의 회사 안에서 사용하는 사용차가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임원들이 쓰는 차는 환경면에서 별 4개를 딴 이런 차들로 전부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도요타산의 프린스를 타고 있습

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은 안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鮫島 章男 議長 : 진행이 지금 빨리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오오츠루씨에 대한 질문, 질의응답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써 일본측의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한국측의 의장이신 설원봉의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薛元鳳 議長 : 사메시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세션 회의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일본측 공동회장으로 회의를 진행해주시고 협조해 주신 사메시마 후미오 사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총괄해서 정리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鮫島 章男 議長 : 그러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으니 총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진 회장님분의 대독으로 박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일·일한 간 FTA 체결 상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두었습니다. 오전부터 FTA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하자, 이것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지도자가 결단을 내리고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인 농업 분야에 대해서 양국이 이제 이걸 확실히 분리를 해서 결단을 내리고 어떻게 피해를 입게 될 분들을 이제 커버를 해서 보전할 것인가, 이점을 제시를 하면서 지금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체결할 수 있도록 저희 경제인들이 정치지도자 층에 제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경영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일본의 경단련(經團連, 일본경제단체연합

회)에 환경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지구환경 문제를 맡고 있습니다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드디어 교토 의정서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1990년에 배출했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삭감하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과제가 있어서 현재 경단련, 일본의 경단련 중심으로 자율 활동계획 산업별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오츠루 주체역이 말씀을 하셨던 가정 부문 그리고 운영부문 이 두 부분이 지금까지 이미 삭감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33개 부문에 있어서는 교토 의정서가 교토 의정서에 배출량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2개 부문에 있어서는 CO₂ 배출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괜찮습니다만 6%를 전체적으로 줄여간다는 것을 이 2부문에서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가정부문과 이 2부문의 CO₂ 확산이 저희로써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업체로서 가정용 전기기구를 CO₂ 배출량을 적은 제품으로 바꿔갈 것인가 이것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오츠루 주체역,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APP 아시아 파트너십이라는 그 틀 안에서 아시아, 한일을 포함한 6개국이 산업별 CO₂ 배출량 문제에 대응해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회사 경영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경영을 여기에 적용을 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과제가 언젠가는 일본, 한국 양국에 있어서 모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일경제인회의가 이러한 주제를 내년 이슈에는 크게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총괄 마치고자 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薛元鳳 議長 : 사메시마 후미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한일양국의 우호증진은 물론 교류협력이 더 협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더욱 활발해지고 발전되어 지기를 기대하고요. 우리 경제인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회의에 참석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특히 일본측 공동회장으로 회의 진행을 협조해주신 사메시마 회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제2세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무국에서 다음 일정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司會 :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세션을 모두 마치고, 커피 브레이크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4시 정각부터 폐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3시 55분까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ffee Break (共同聲明(案) 配布)>

6. 閉 會 式

(1) 共同聲明 採擇(主催國側 朗讀)

司會【許南整 (社)韓日經濟協會 專務理事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專務理事, 以下同一】 : 그럼 지금부터 폐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폐회식의 진행은 조석래 단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석래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趙錫來 團長 : 그러면은 우선 이번 제39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 안을 채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성명 안을 양쪽의 단장단 또 위원께서 심의를 했었는데 그럼 한국측에서 공동성명 안을 발표하겠습니다.

許南整 (社)韓日經濟協會 專務理事 : 공동성명 안을 발표 드리겠습니다. 제39회 한일경제인회의가 2007년 4월 12일 및 13일, 이틀 동안 대한민국 부산광역시에서 한국측에서는 조석래 단장 등 190명, 부산광역시 기업인 35명을 포함합니다. 일본측에서는 이이지마 히데타네 단장등 1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하 생략)



※ 「공동성명」 전문은 본 보고서 II항에 기재

飯島 英胤 團長 : 일본어 공동선언문은 지금 동시통역으로 정확하게 번역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趙錫來 團長 :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양쪽에 공동성명 안을 지금 낭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명 안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을 해주시고 수정할 데가 있으면 기탄없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지요? 어디 한국측이나 혹은 일본측의 다른 얘기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여러분께서 이 공동성명 안을 승인해주는 걸로 하고 크게 박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공동성명 승인을 받고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승인을 하나 받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 우리 회의의 전체가 한일 FTA에 대해서 이 건 꼭 했으면 하는 말씀이 많이 계셨고 또한 많은 분이 FTA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 경제인 회의가 제일 바라는 것이 한일 FTA 체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동성명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미 FTA 체결을 하는 과정에서 한일·한미 재계인 회의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한 경험에서 비추어 볼 적에 우리 한미 재계인 회의에서는 양국의 정상, 수뇌에게 양국 경제인들이 한미 FTA를 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꼭 바란다고 하는 요망서를 두 공동회장이 서명을 해서 양국 정상에 보낸 적이 2번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의견을 여쭙어 보고 싶은 것은 이이지마 회장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한일 FTA, 일한 FTA를 꼭 체결해 주십사 하는 요망하는 서신을 양국 수뇌에게 보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두

의장이 의견교환을 하였는데 여러분께서도 괜찮으시면 찬성해주시면 박수로 승인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사회자로 돌려드립니다.

(2) 團長人事

司會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순서에 의거 양국 단장님의 폐회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먼저 일본측 이이지마 히데타네 단장님의 폐회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飯島 英胤
(IIJIMA Hidetane)
日本側 代表團 團長



제가 폐회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대단히 열의가 가득 찬 그러한 세션에 토론이 있었습니다. 2, 3년쯤 전부터 진심의 허심탄회한 논의가 가능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는 전문가 분들의 말씀도 있었지만 청중들로부터 정말로 흥금을 터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한 서로 솔직한 대화, 이것이 바로 서로의 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한일 FTA를 중심으로 한·중·일 또는 ASEAN+3 혹은 ASEAN+6 와 같은 다른 국가들과의 FTA, 경제연계 FTA,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 분들의 폭넓은 의견과 또 여러분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핵심을 찌른 제안과 의견 기준이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큰 참고가 되었습니다.

특히 FTA 한일 FTA 대해서는 너무 좁은 범위를 생각하지 말고 관세뿐만 아니

라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투자문제라든지 인적교류라든지 혹은 나아가서 지적재산권 혹은 상호승인문제 등등 다양한 한일 간의 경제적 교류, 인적교류, 투자교류 등등에 있는 다양한 장벽들을 가급적 국제 경쟁력이 있고 공평하고 자유로운 하나의 시장을 형성 하자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을 포괄한 한일 FTA 말하자면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지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해서 방금 조석래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양 회장 연명으로 한일정부의 정상들께 요망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 조석래 회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의 협력으로 무사히 이렇게 마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司會 : 이이지마 히데타네 단장님, 감사합니다. 이번엔 조석래 한국측 단장님이 폐회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趙錫來
韓國側 代表團 團長



이이지마 단장님, 한일 양국의 대표단과 발표자 및 토론자 여러분, 또한 이번 회의의 성공을 하기 위해 애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작년 삿포로에서 열린 한일경제인 회의에 사상 최대 규모의 참석자가 참석하여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기 때문에, 이번 회의를 그에 못지않게 준비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내심 크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국 대표단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번보다 더 많은 분들

이 참여하였고 이들간의 회의를 내실 있게 끝낼 수 있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양국 경제인 회의가 날로 융성해져가는 것을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토론을 활성화하려는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았으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협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성명에서도 밝혔듯이, 한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로서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며 그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데에 리더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경제인회의가 4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40주년에 걸맞은 성대한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양 협회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도 내년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일경제인회의를 잘 모르시는 주변의 기업인들께도 참석을 권유해 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양국의 대표단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폐막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내년 일본에서 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閉 會

司會 : 조석래 단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거쳐서 훌륭하게 회의를 준비해주신 조석래 단장님과 이이지마 히데타네 단장님의 노고에 여러분 다시 뜨거운 박수를 다시 한 번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회의의 승패는 동시통역사의 실력에 크게 좌우된다고 봅니다. 이번 회의의 통역은 어떠했습니까? 김혜원씨, 이정남양 통역사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수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국 경제인 여러분, 본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폐회식 이후 일정에 대해서 잠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회식이 끝난 후, 바로 42층 샤롯데스 스위트룸(42F Charlotte Suite)에서 30분간 양국 단장님의 공동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경하시는 한국측 단원 여러분께서는 5시에 호텔정문에서 출발하는 전세버스를 타시면 부산(김해)공항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다시 일본에서 뵙겠습니다. 한일 양국 경제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さよなら(사요나라).

《종료》